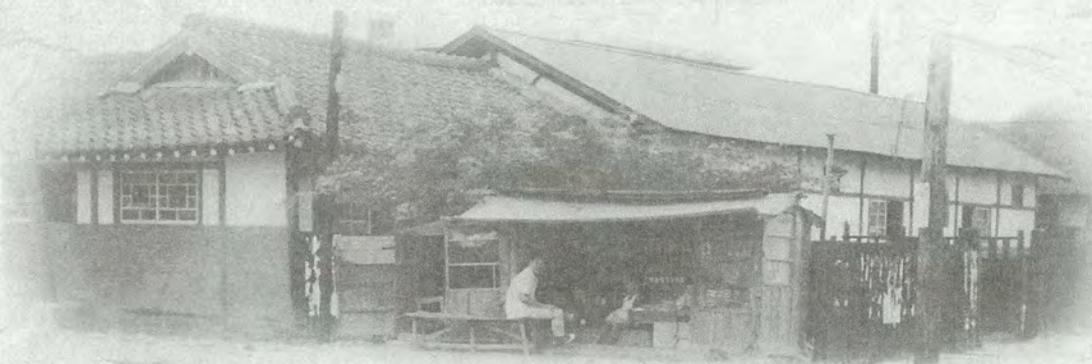


## 문화원장의 발자취

1. 조구행(趙球行) 원장 재임기(태동기)
2. 이일영(李一寧) 원장 재임기(재건기)
3. 김정근(金正根) 원장 재임기(전환기)
4. 박용익(朴庸益) 원장 재임기(발전기)
5. 송재권(宋在權) 원장 재임기(발전기)
6. 이헌규(李憲珪) 원장 재임기(도약기)
7. 이인영(李仁寧) 원장 재임기(도약기)
8. 홍재구(洪在九) 원장 재임기(번창기)
9. 이종민(李鐘敏) 원장 재임기(재도약기)





## 1. 조구행(趙球行) 원장 재임기(태동기)



조구행 원장은 한양조씨 가천재공(嘉川齋公) 파 후손으로서 1910년 1월 24일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67번지 속칭 음터골(음덕곡)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농촌에서 밥술을 뜨는 중농에 속했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살아가는 데에는 궁색하지 않을 정도의 여력이 있었다. 조원장은 1926년 용인의 김량장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진학하여 1932년 휘문고보(徽文高普)를 졸업하였다. 당시의 형편에서 휘

문고보를 나올 정도였다면 부친의 교육열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양조씨 가천재공파 종손이었던 조빈행씨는 일찍이 신학문의 필요성을 깨닫고 종재 일부를 정리하여 서울에 집을 사 놓고 장작과 쌀을 올려 보내 가천재공파 조씨 문중의 자제들이 이에 기숙생활을 하도록 뒷받침을 해 주었다. 그 결과 용인에서 40여 명에 이르는 한양조씨 후손들이 상경하여 공부할 수 있었고, 조원장 역시 서울에서 휘문고보를 다닐 때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연세대학 전신) 교수였던 ‘핏셔’ 교수에게 1년간 영어를 사사 받았다. 지금으로 치자면 원어민 교사에게 개인교습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어서 영어 구사력은 미국사람들과 완벽하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실정으로 용인면내에서는 유일하게 영어를 잘하는 청년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다가 1938년 용인으로 내려와 용인군청 서기가 되었으나 곧 그만 두고 1940

년 상업은행(지금의 우리은행)의 전신인 '조선중앙무진주식회사'에 잠시 근무한 뒤 '조선광업진흥공사'를 거쳐 '조선물자영단'으로 옮겼다.

광복 이후 '조선물자영단(朝鮮物資營團)'의 자치위원장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미 군정청에 합병되면서 군정청에 옮겨 근무하였다. 뒤에 이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되어 서울시 관제국 처분과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곧 사임하였다. 이후 동양유지공업 사장과 일흥피복주식회사 고문을 역임했는데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처음 고향에 와서 운크라(국제연합한국재건단,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1950년 12월 UN총회의 결의로 6·25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한국의 재건과 구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인데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 전후 복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 에서 근무했다.

조구행이 운크라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미 군정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영어회화 실력이 인연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용인에도 운크라사무소가 있었다.



조구행 원장이 받은  
녹조근정훈장

1958년 운크라가 한국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 되자 용인에 있던 운크라 사무소 역시 철수하게 된다. 이 때 발족된 것이 용인문화원으로, 조구행 원장은 용인문화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이 되었으며 운크라가 시행하던 사업을 인수하게 된다. 따라서 조구행 초대원장은 용인문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였다. 무엇보다도 궁벽한 용인의 당시 실정에서도 용인에 '문화'라는 씨를 뿌리고 싹을 움트게 하였기 때문이다. - 이상 시민신문 기사 참조 -

조구행은 문화사업 이외에도 BBS연맹 용인지부장과 적십자 경기지사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 용인 라이온스클럽의 창립 멤버였으며 3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에 기여한 많은 공적으로 인하여 1960년대에



목련장 수훈기념사진 1963년 5월 15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내외분과 함께  
(앞줄 우측 첫번째가 조구행 원장이다.)

이미 경기도지사의 감사장과 문화공보부장관 표창장을 받았고 1963년에는 국민훈장목련장을 수훈(受勳)한바 있다.

이 외에도 대통령표창과 내무부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수많은 향토문화 공로상과 사회에 공헌한데 따른 공로상이 주어지기도하였다. 조구행 원장이 생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는 '메기의 추억' 이었다. 조원장은 회갑 잔치 날 합창단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도 메기의 추억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1) 위생, 주택 구호사업

조구행 원장이 6·25 한국전쟁 이후 난민구호주택사업을 실시하던 운크라와 인연이 되어 운크라 사무실에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미국사람들의 통역을 맡아 사업을 전개하였다.

물론 사업주체는 미국사람들이었겠지만 지역사회의 실정을 그들에게 알리고 주택건설 사업과 의료구호 사업 등의 전개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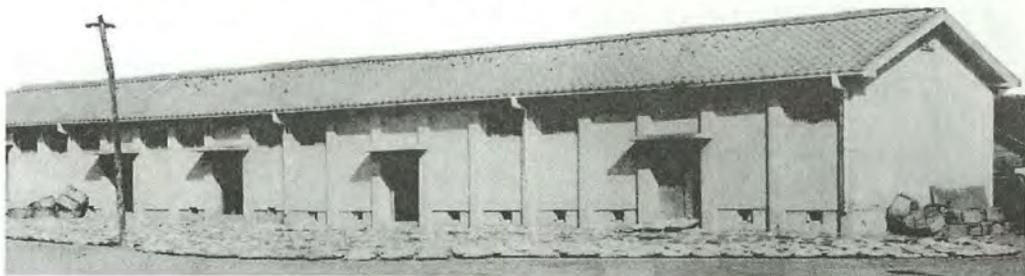


운크라사무실 앞에서 미국인 이사를 비롯한 관내 유지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가운데가 조구행 문화원장. 이 건물은 김량장동 133-61번지에 있었으며 용인문화원 건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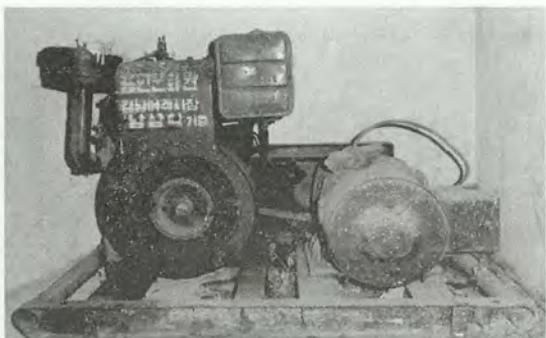
립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난민 주택 구호사업은 운크라의 원조로 실시되었다. 흙벽돌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져와 흙벽돌집을 지어주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역북리 신성마을과 지금의 용인여중 뒤편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때는 그곳을 수용소라는 명칭으로 불렀는데 주로 외지에서 온 피난민들의 정착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하였다. 당시 피난민촌이었던 수용소는 1960년대 중반까지 있었으나 그 후 없어지고, 1970년대 역북리 수용소가 있던 자리에 용인 관내에서는 최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백삼' 공장이 세워졌으나 1970년대 용인군 구획정리사업때 철거되었다. 난민구호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에 국한



역북동 신성마을 수용소자리에 있었던 용인백삼제조공장(1970년대초)



경남여객 남상학이 용인문화원에 기증한  
순회영화용 발전기

되지 않고 안전한 식수의 공급을 위해 우물을 파주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샘물을 떠서 마시고 있었으므로 수인성 전염병 등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동식 펌프를 설치해 주기도 하였으며 미국 유니세프나 윤크라에서 등에서 지원되는 밀가루를 나눠 주기도 하였다.

## 2) 농촌계몽, 홍보사업

미국공보처(USIS)에서 제공되었던 영화와 대한뉴스 등의 필름으로 용인지역 각 마을을 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하는 등 농촌계몽 사업을 펼쳤다.

미국사람들이 주로 전개하던 사업으로는 거처가 없는 피난민들에게 구호주택을



문화원 순회영화상영에 모인 군중들

지어 주기도 하였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의 복구사업과 무료 진료사업, 전쟁미망인에 대한 직업알선을 시행하였고 농촌계몽운동으로는 4H구락부지도, 영어강좌, 수리시설복구, 보건위생, 결핵환자 진료, 식량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1955년 10월 슈머박사를 비롯한 운크라 사업단이 해체되어 본국 철수가 결정되자 이들의 사업을 인수받아 계속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곧 용인문화원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문화원은 16mm영사기를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국내외 소식을 시청각으로 직접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던 시절 농촌계몽 순회영화는 대단한 인기였으며, 문화원 순회영화가 상영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10여리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수 백 명 씩 모여들었다. 그리고 주말이면 이웃 주민이나 학생들을 모아 놓고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로써 문화원의 위상은 대단히 높았다.

### 3) 결핵퇴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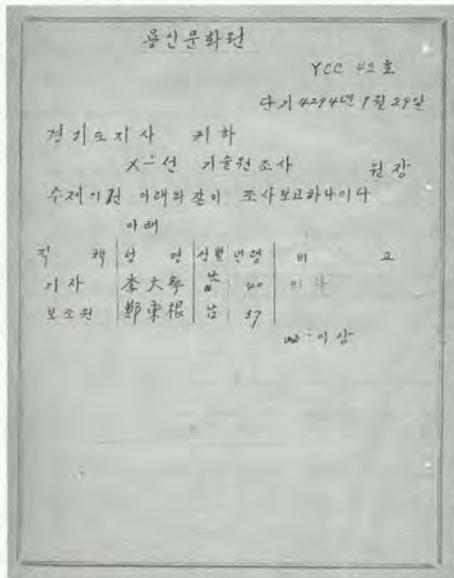
특히 결핵은 후진국 형 법정전염병에 속했었다. 1950·60년대 국민영양이 현저히 부족하고 생활 환경이 열악했던 시절, 결핵퇴치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시하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용인군 관내에는 결핵환자를 검진할 수 있는 렌트겐(X-레이 촬영기)이 용인문화원에 단 한 대밖에 없었다.

결핵환자의 결핵균 검사까지 실시하고 결핵환자로 판명되면 미국에서 지원해주던 치료약을 투여하고 환자로 등록하여 완치될 때까지 구호약품을 무상 지급하였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요즈음의 암과 같이 한번 결핵에 걸리면 불치병으로 여기던 시대였으니 문화원의 결핵사업은 용인주민에게 있어서 그 기여도는 실로 요긴하고도 중대한 건강증진 혜택이었던 것이다.

문화원이 결핵퇴치 사업을 전개하였던 예는 인근 수원시나 전국



운크라병원(용인문화원 전신)과 간호원 조갑순(가운데)



1961년 경기도내 X레이기 조사에 응신한 보고서 이 당시 X레이 촬영기를 보유한 곳은 도 내에서 3개시군과 용인문화원, 수원시립보건소 뿐이었다.

문화원의 사업 내용을 검토해 봐도 용인문화원이 거의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핵 퇴치사업이 주민건강에 기여한다는 입소문이 전국에 알려져 영세민, 또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갈 수 없는 용인 인근의 주민은 물론 멀리서 부산에서까지 찾아와 검진을 받고 치료약을 타갔다고 하였으니 용인문화원의 결핵퇴치 사업은 사실상 용인주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문화원에서 촬영한 X-레이 필름을 판독하려면 당시 대동병원 이대영 의원이나 용인병원 조광수 의원이 그 역할을 해야 했다.

그 이전 운크라시절에는 미국에서 파견된 의사가 있어서 X-레이 판독과 결핵환자 여부의 판명, 주사, 약품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들이 철수하자 처음에는 대동병원 이대영 원장이 주로 판독을 하고 처방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보건소장과 검직을 하면서부터는 용인병원 조광수 원장이 집적 내원하여 판독하거나 처방을 내렸다.

지역 원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용인주재 운크라에서는 일반진료도 실시하여 약을 조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운크라병원'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 보건의료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결핵협회가 창설되었고 결핵사업이 보사부 산하로 일원화 되면서 문화원의 결핵사업은 폐지되었다.

'운크라병원' 을 인수받아 운영되었던 문화원의 의료구호사업은 폐결핵환자의 구료사업 이외에도 치과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간호원이었던 조갑순(73, 수원시 파장동 거주)씨에 의하면 치과의원에는 최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당시 용인에는 치과의원이 없었고 치과시술을 받으려면 수원이나 서울을 가야 했던 실정이어서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문화원의 치과시술은 지금과 같이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거나 보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주로 치과환자들의 발치(拔齒)와 염증치료에 필요한 처방을 해주었거나 항생제 등을 지급했던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문화원(운크라 병원) 간호사였던 조갑순의 증언으로서 당시에 최선생이 X-레이 촬영도 겸하고 있었는데 최 선생의 딸 최승자와 매우 친하게 지냈었다고 한다.

#### 4) 도서관 운영 사업

용인군 당시에는 용인지역에 태성중고등학교와 용인중고등학교 등 2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었다. 이곳 학생들은 양지, 이천의 마장, 기흥 등 수여선 열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용인읍내에 거주한 학생들 또한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 이



문화원 도서실에서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태성고교 학생들



1960년대 용인문화원 도서관 내부 전경

들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고나 문화 공간으로서 유일한 곳이 있었다면, 그곳은 용인문화원이었다. 중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용인문화원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던 '자유의 벼'를 얻어갔다. '자유의 벼'는 미국의 USIS(미국공보원)에서 발행하던 책으로 지금으로 치면 '화보'와 같은 것이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등 각 나라의 문물이 소개되기도 하였고 국가 간의 우의와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국내외의 사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 책은 해외정보나 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홍보책

자였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높았다. 특히 용인문화원에는 대략 매월 1천여부가 배포되었다고 한다. 이 책을 많이 배정받게 된 것은 당시 김용기라는 분이 용인 사람으로서 문화원장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한때 국회의원의 물망에도 오르면서 용인을 위해 이 책이 폐간될 때까지 무상 보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 문화원 도서관에는 세계명작을 위시하여 국내외 작가의 소설집 등이 있었고 위인전기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인영 역시 학창시절부터 용인문화원을 드나들면서 세계명작을 읽었다. 당시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보급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PC 같은 채널이 없었으므로 학교 교과목 이외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독서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학창시절에 문화원을 드나들면서 책을 읽은 덕분에 후에 문단에 데뷔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방과 후에 영어사전을 보려고 문화원을 찾았던 기억이 있고, 학생증을 보이고 회원으로 등록하면 당시 도서를 대출받아 집에 가지고 가서 읽을 수 있었다. 당시에 문화원 도서실에 자주 들렀던 정양화(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에 의하면 도서실에 들어가려면 2원을 냈다는 것으로 보아 유료시설이었던 것으로 여겨 지는데 이 돈은 도서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문화원의 도서 대출과 도서관 운영은 용인읍 김량장동에 작은 도서관(전 용인시의회, 현 용인지방공사 위치)이 생길 때까지 용인문화원 도서실이 용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독서문화의 요람이었다.

## 5) 문예활동

1966년, 용인문화원에 합창단이 결성되었다. 이것이 용인문화원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당시 용인장로교회나 감리교회의 성가대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모여 합창을 할 만한 지역사회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용인고등학교에 양윤식이라는 음악교사가 전근되어 왔다. 이 분은 인천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음악지도에도 열의가 대단했던 분이였다. 이 분이 조구행 원장과의 만남에서 문화원에 합창단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군청에

서 퇴근만 하면 용인문화원을 거쳐 집으로 가던 이인영에게 조구행 원장은 “사람을 모집해 보라”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것은 모두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학창시절 트럼펫을 불었던 일이 있었고,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던 인연으로 남녀 20여 명의 단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당시 용인문화원에는 일제 야마하 풍금이 있었다. 이 풍금은 용인국민학교에서 일제 때부터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학교에 피아노가 생길 때 용인문화원에 기증한 것이었다.

합창단원은 주로 군청 여직원, 우체국, 용인고등학교 서무계 여직원, 용인초등학교 교사, 농협 여직원 등이었다. 풍금 반주는 정경옥이라는 용인국민학교 교사가 맡았고 물론 지휘는 양윤식 교사가 맡았으며 그 때 이인영이 합창단 총무를 맡았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용인문화원에 모여 미국민요, 한국가곡과 세계명곡 등을 주요 레파토리로 연습하였다. 당시 합창단의 명칭은 ‘용인문화원 인성합창단’ 이라고 했는데 ‘인’은 용인의 ‘인’, 인천에서 오신 선생님이라는 뜻에서의 ‘인’을 의미하였으며 성은 용인의 ‘성산’에서의 성자를 딴 이니셜이었다. 사진에서의 ‘제2회 납양음악회’는 1969년 7월 26일, 용인문화원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이때의 지휘자는 송전국민학교 오시우 교사였다. 처음 합창단을 창단했을 당시의 양윤식 선생은 다시 인천으로 전출을 갔을 때여서 오시우 선생이 그 후임자로 발탁되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반주자 정경옥 선생도 전출을 갔으므로 후임자로 양지국민학교 전기원 선생이 반주를 맡았다. 지휘자가 선생이었기 때문에 전출이 된 후 공백기가 생기면 교회성가대를 지휘하던 이인영이 공백을 대신하면서 10여 년간 지속되었다.

1970년 문화원 인성합창단은 수원시의 난파음악제 합창경연대회에 나가 지정곡



간호업무 이외에 도서대출 등의 임무도 겸했다는 조갑순(왼쪽)과 도서관 내부

‘고향의 봄’과 자유곡 ‘밀양 아리랑’을 불러 2등의 영예를 얻기도 하였는데, 당시 1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아마 지금의 돈 가치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던지 모든 단원들과 문화원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돈이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구행원장

조구행 문화원장은 “상금은 합창단에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였고, 매주 화, 금요일 합창이 끝나면 간단하게나마 반드시 음료수와 다과를 내주었다. 조원장은 문화원 합창단을 끄집이도 아껴주었는데 총무를 보던 이인영이 1968년 8월 기흥면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통근을 하는 등으로 자연 합창단을 빠지게 되는 일이 많아지자 조구행원장은 당시 이견우 군수에게 “이 아무개가 없어서 문화원 합창단이 안된다. 빨리 원대복귀시키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이군수는 “이 아무개가 기흥면의 그 애늬은이

같은 놈을 말하는 것이냐”면서 불러오라고 했는데 군청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의료로 발령을 내버렸다. 면서기로 나간지 딱 1년 닷새만이였다. 문화원장 덕분에 면서기 신세를 일찍 면하게 되었지만, 당시 용인문화원장의 힘(?)이 용인사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를 생각나게 하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문화원장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문화원 강당에서 합창연습을 하고 있을 때 당시 공화당 서상린 국회의원과 함께 원장이 나타났다. 원장이 국회의원을 위해 한 곡 불러 달라고 하였다. 연습 중이던 ‘선구자’라는 곡을 불렀다.

이것이 맘에 들었던지 박수를 쳤다. 그리고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것이 아닌가?

그 때 합창단 총무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에게 “의원님 저기 풍금은 일본사람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일제 야마하 풍금인데 보시다시피 소리가 잘 나지 않으니 피아노 한 대만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단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피아노 한 대만 사주세요, 의원님.”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자, 서의원은 “좋다, 내가 피아노 한 대를 마련해 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서성린 국회의원이 기증한 피아노

그로부터 1주일여가 지난 다음 ‘이바하’ 피아노 한 대가 문화원에 도착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증, 국회의원 서상린”이라는 금박의 글씨가 써 있었다. 맑고 청아한 피아노 현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찌 풍금에 비하리오. 물론 피아노를 사달라고 한 것은 합창단원이었지만, 피아노 한 대를 기증받게 된 것은 결국 당시의 조구행원장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피아노는 용인국민학교에 이어 용인에서 두 번째의 피아노였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후에 용인문화원 예식장에서 웨딩마치용으로 사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외에 미국문화 공보원에서 기증한 LP판 축음기(수동식) 1대가 있었다. 당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수원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였던 이동직 선생이 용인고등학교로 전입되어 왔다. 이동직 선생은 음악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구행 문화원장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동직 선생은 문화원에 드나들면서 매주 금요일 클래식 음악감상회를 주관하였다. 주요 곡목은 ‘헨델의 메시아’를 비롯해서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모차르트, 사라사데의 ‘지고이네르바이젠’, 그리그의 ‘페르퀀트 조곡’ 중에서 ‘솔베지의 노래’,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하이든의 ‘천지창조’, 푸치니의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등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들려주면서 해설을 하였고, 라이트 뮤직으로 미국민요를 비롯한 세계 명곡과 특히 당시에는 ‘마리오 란자’가 부르는 테너독창곡 ‘오 대니 보이’(아 목동아) 등을 중간에 삽입하여 들려주었다.

그리고 행진곡의 구성에 관한 해설을 통해 “행진곡은 서주부, 전개부, 트리오,



1966년 결성된 용인문화원 인성합창단 연주장면, 이때의 단원들 중에서 몇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맨 우측 첫 번째가 필자이다. 단원은 남자 10명, 여자 15명 등 모두 25명이었다.

반복부로 나누어진다.”면서 행진곡이 갖는 특성과 구성요소까지 해설을 곁들여 감상하는 등으로 당시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이와 같이 수준 높은 음악 감상회를 1960년대 전개했다는 사실도 예삿일은 아닐 것이다.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들을 수 없는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음악다방이라는 게 생겨서 일반인들에게는 좀 지루하고 어려운 곡들을 ‘디스크 자키’의 해설을 들어가며 음악을 감상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 후의 일이었고, 음악다방이 생기기 이전에 용인문화원에서 이처럼 수준 높은 곡을 감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청소년들에게는 행운이었다.

이와 같은 음악감상회는 당시 나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순수음악’ 수준을 이해하고 느끼면서 청소년들의 정서에 풍부한 감수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은 조구행 문화원장이 당시에 보기 드물었던 인텔리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과 그 면모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감각을 전이시켰던 분이라는 사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조구행 문화원장 이후 그분과 같은 인텔리로서, 예능과 문화감각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서 대를 이을만한 인물이 없었다. 조구행 원장이 헨델의 '메시아'나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같은 오라토리오를 즐겼다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음악을 전공하였거나 음악학도, 아니면 최소한 고등학교 음악교사 정도의 수준과 같은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존경하였고, 그 영향력은 용인이란 지역사회에서 문화의 토양을 마련하고 문화정서의 뿌리를 내렸다고 본다.

그래서 조구행 문화원장은 운크라의 사업을 인수 받아 용인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와 의료시혜를 베풀었고, 용인문화의 맹아기에 지역사회에 문화의 씨를 뿌려 오늘이 있게 한 '용인문화의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용인 인구가 85만에 육박하고 있어 인재풀이 넘쳐나고 있지만 인구 10만을 밀돌던 1950·60년대에는 인재풀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배웠거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서울이나 대도시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그런 여건 하에서 태업을 감아 레코드판을 돌리던 축음기를 가지고 축음기 바늘이 닳고 닳아서 잡음이 섞이고 태엽이 늘어져서 음정과 박자가 늘어졌어도 문화의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용인문화원에서 실시하던 주부 요리강습은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월 1회 혹은 월 1·2회씩 실시되던 요리강습에는 당시 요리강사로 유명했던 왕준연 여사가 도맡았다. 요리 강습이 있는 날은 주부들이 조리 연습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강연과 실습을 겸했으므로 요리강습이 있는 날은 문화원 식구들은 맛있는 점심, 혹은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생활에 별로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리강습에 나오는 실습생들은 대개 기관, 단체장들의 부인이었거나 그래도 용인에서 밥술이나 뜨는 부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 6) 초창기 문화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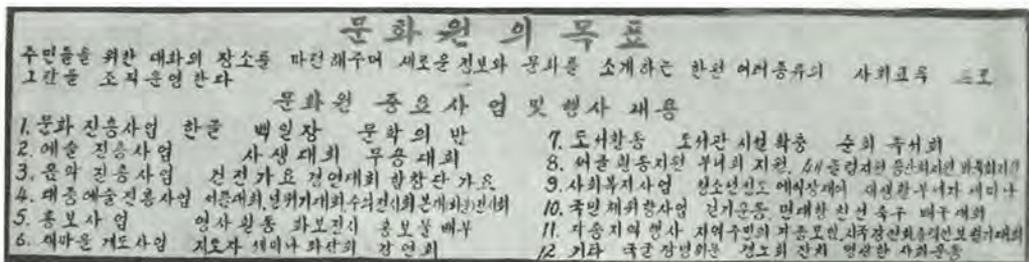
초창기의 용인문화원은 지금과 같이 문화원 연합회에서 작성 시달한 표준 정관(준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보사부에서 운영지침을 내려 문화사업의 메뉴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작성 게시되었던 '문화원의 목표'라 쓴 현판이 발견되어 초기 문화원의 사업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 현판의 크기는 세로 45cm, 가로 184cm 크기이며 합판(베니다)에 백색 도료를 입힌 후 육필로 12개 항목을 나열하였다. 현판에 게재된 '문화원의 목표'의 원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원의 목표

주민들을 위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주어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여러 종류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조직 운영한다.

### 문화원의 중요사업 및 행사 내용

1. 문화진흥사업 : 한글 백일장, 문학의 밤
2. 예술진흥사업 : 사생대회, 무용대회
3. 음악진흥사업 : 건전가요 경연대회, 합창단, 가요
4. 대중예술 진흥사업 : 씨름대회, 널뛰기대회, 수석전시회, 분재(화분)전시회
5. 홍보사업 : 영사활동, 화보전시, 홍보물배부
6. 새마을 계도사업 : 지도자 세미나, 좌담회, 강연회
7. 도서활동 : 도서관 시설확충, 순회독서회
8. 서클활동 지원 : 부녀회지원, 4H클럽지원, 등산회지원, 바둑회지원
9. 사회복지사업 : 청소년 선도, 예식장 대여, 새 생활 부녀자 세미나
10. 국민체위향 사업 : 걷기운동, 면 대항 친선축구, 배구대회
11. 각종지역행사, 지역주민 모임, 시국강연회, 총력안보결기대회
- 12 기타 국군장병위문, 경노잔치, 명랑한 사회운동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략 1970년대 중반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새마을 사업을 위한 계도사업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4H클럽이나 국민체육 분야까지를 문화사업의 범주로 잡고 있어 흥미롭다. 이 중에서 제 9항의 기록을 보면 '예식장 대여' 라는 항목이 눈에 띄는데 이 때 용인문화원에 예식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예식장으로서 용인 최초의 것으로서 당시 용인 사람들이 결혼예식을 올리려면 대개 수원으로 나가야 했었으나 용인문화원에 결혼 예식장이 마련됨으로써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국강연회나 총력안보궐기대회 같은 것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 로 하던 시절이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참고로 현행 문화원 정관에 명시된 '사업' 내용과 비교해 보면 용인문화원 사업관점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제4조 【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와 같이 문화지표는 시대의 변천과 발전에 따라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 7) 용인문화원 태동기(조구행원장 재임시)의 문화원 역군들

### \* 문화원 이사 역임자 명단

아래 인사들은 용인문화원 태동기에 용인문화원의 이사로 활약했던 사람들이다. 재직 기간 등의 기록은 분명치 않으나 용인지역의 유지들로서 대략 조구행 원장 당시 또는 이일영, 김정근 원장 당시 용인문화원에 이사로 적을 두었던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다.

김명균	1950년 1월 3일생	용한약국운영
김명환	1918년 4월 23일생	백암양조장 경영, 통대의원
김승영	1943년 9월 30일생	용인군청 체육회이사.
김윤근		
김익래	1935년 4월 15일생	용인농약경영
김종일	1942년 1월 26일생	경기농장경영
김중학	1946년 9월 3일생	반공연맹 용인지부청년회장
김지환	1923년 4월 23일생	용내단위농업협동조합장.
김홍렬	1923년 1월 7일생	대한생명 용인지부장, 언론인.
남기성	1929년 4월 7일생	태성중고등학교 교사 역임.
남원우		서울거주
박우혁	1946년 1월 3일생	상업
성무경	1935년 3월 17일생	대한지적협회 용인출장소장.
송요중	1901년 3월 9일생	용인주류조합이사.
심현옥	1924년 7월 25일생	송전양조장경영, 통대의원
양희석	1922년 1월 15일생	농업. 정당인.
이대영	1922년 7월 10일생	용인군보건소장.
이민준	1915년 5월 3일생	상업에 종사.
이영우	1936년 2월 28일생	민족통일 용인군협의회회장.
이종건	1917년 4월 25일생	3·1당 한의원 원장.
이학린	1917년 12월 2일생	경기도 자문위원.

- 인태운 1932년 1월 19일생 인치과 의원 원장.  
 정복용 1914년 6월 20일생 대한통운 용인출장소장.  
 정운영 1931년 11월 25일생 용인인삼경작조합장. 통대 대의원.  
 조성택 1945년 2월 3일생 농업  
 조성하 1932년 10월 7일생 용인면 방위협의회 위원.  
 채근묵 1932년 4월 29일생 사진관 경영, 인삼업에 종사.

### 한영석(韓永錫)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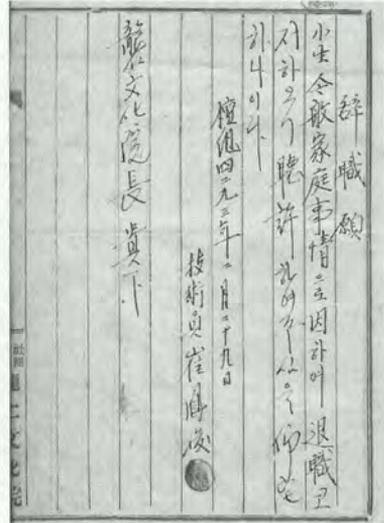
한영석은 1915년 4월 24일 황해도에서 출생하였다. 1935년 황해도 연안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황해도 금융조합에 근무를 하던 중 6·25 한국전쟁 당시 월남하여 용인에 정착하게 되었고 1952년 용인군 금융조합에서 1960년도까지 근무를 하다가 1961년 용인 문화원에 발을 들여 놓았다.

당시 한영석 총무는 주로 문화원의 살림을 맡아 보았으며 문화원의 도서관리와 대출 등의 업무를 보았다. 당시 용인면 역북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10여년을 자전거로 문화원에 출퇴근하였다. 문화원 초창기에 조구행 원장을 도와 용인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1970년 문화원을 퇴임하고 용인삼업조합 총무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딸 한영자는 대동병원 간호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후에 용인보건소 간호원으로 근무를 했다. 한영자가 대동병원으로 가게 된 것은 전에 있던 용인면 부면장 딸 이주옥이 서울로 가면서 자리가 났는데 이 때 이동직 음악선생의 추천이 있었고, 또 대동병원 원장이 문화원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을 당시였으므로 그것이 인연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한영석 총무는 슬하에 1남 6녀를 두었으며 10여 년간 용인문화원에 몸담고 있다가 1970년 자리를 옮겼고, 1998년 4월 20일 타계하였다.

### 최봉준(崔鳳俊) X-선기사

용인문화원 X-선 기사 최봉준의 본적은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호매실리로 되어

있고 주소지는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동 133번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단 기 4242년 생(1909년)이며 4259(1926)년 일본 후쿠오카 청년중학교 2년 중퇴, 1927년 일본 후쿠오카시 우가치과의원(右架齒科醫院)에서 6년간 근무, 1932년 5월에는 후쿠오카현 길정병원(吉井病院)에서 4년간 X-선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의 경력으로 보아 X선 기사였던 최봉준이 치과의사를 겸했다는 일부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는 일본의 치과병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므로 일부 발치 정도의 의료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당시 문화원 서면회의서 내용에 1960년까지 근무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다.



『서면회의서』

1. 안건 : 직원 임면의 건.

1. 제안이유 :

본원 X-선 기술원 최봉준씨는 과거 창원(創院) 당시부터 봉사하였으며, 간호원 조갑순 양은 만 3년간 충실히 종사하여 왔습니다. 금번 양씨께서 일신 사정으로 2월 29일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동일자로 수리 퇴직발령하였습니다. 간호원 후임자 김정순(이력서 별첨)을 좌기와 같이 채용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기

발령예정일 : 4293년 3월 4일.

급 료 : 일금 삼만환

4293년 3월 3일 원장 조 구 행

이사 제위 귀하



위의 내용으로 보아 X-선 기사 최봉준은 문화원 설립당시부터 X-선기사로 종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안나(白安羅)간호원**

1956년 10월 21일 용인문화원 보건간호원으로 임명되었고 1957년 3월 3일 사직하였다. 본적은 강원도 횡성군이며 주소지는 경기도 강화군 강화면 국화리 335번지로 나타난다. 강화여중을 졸업 한 후 1955년 경기도립 인천고등간호학교를 졸업, 경기도 인천도립의원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다가 인천적십자병원 결핵요양원 등지를 거쳐 용인문화원 보건간호원으로 1년간 근무하였다.



**조갑순(趙甲順) 간호사**

1957년 5월 8일 서울지방법원 김량장등기소(용인등기소)로부터 '사단법인 용인문화원'으로 법인등기를 마쳤는데 이보다 한 달여 전인 1957년 4월, 조갑순이 문화원 진료소 간호원으로 들어오게

된다.

조 간호원은 1957년 3월 15일 서울대 부속 간호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였고 집은 수원이었는데 조구행 용인문화원장과 같은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일류 간호고등학교 졸업생이 정식 병원도 아닌 문화원 진료소에 채용된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기가 어려워서 역북동에서 하숙이나 자취 생활을 했다고 한다.

현재 수원시 파장동에 살고 있는 조갑순(73)은 용인문화원에서 일할 때 주로 결핵환자의 객담검사를 실시하였고, 결핵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의 조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조갑순 간호원에 의하면 최승자라고 하였던 친구 아버지가 X-레이를 촬영하였고 치과치료도 담당하였으므로 치과 시술보조, 치료약 지급 같은 업무를 함께 맡아 보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환자가 없는 날이거나 한가할 때는 도서관업무까지 맡아 보았고, 뛰어난 미모 때문에 도서관을 찾는 사람도 꽤 있었다는 것이 후일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용인 관내의 농촌을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교통상황도 좋지 않아서 한번 가정방문을 나서려면 10리 이상 다리를 팔아야 했다.

그러다가 1960년 3월 서울 중앙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대동병원 간호원으로 있던 이주옥이 먼저 중앙의료원을 들어갔다가 용인에 있을 때 매우 친하게 지냈던 관계로 이주옥이 추천하여 중앙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후에 이 병원의 간호과장을 지내다가 퇴직한 후 지금은 수원에 거주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역북동 조제행 증언>



### 조광수(趙光秀) 용인문화원 전임의사

1928년 11월 29일 생. 서울 태생이며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254번지에 거주하면서 용인의원을 경영하였다. 1952년 3월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군의관을 거친 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의원을 개설했다가 1962년 위 김량장리에 '용인

의원'을 개업하고 있었다.

용인문화원에서 결핵보건의업을 경영할 때 촉탁으로 '사단법인 용인문화원 결핵진료부 전임의사'로 취임하여 봉사하였다. 본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용인의원'을 개업하고 겸임으로 용인문화원 결핵구호 사업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용인문화원 인성합창단 단장을 맡아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영어 회화반, 음악 감상회 등을 주선하는 등 용인문화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한 바 있다. 사진은 용인문화원 전임의사로 촉탁되었을 당시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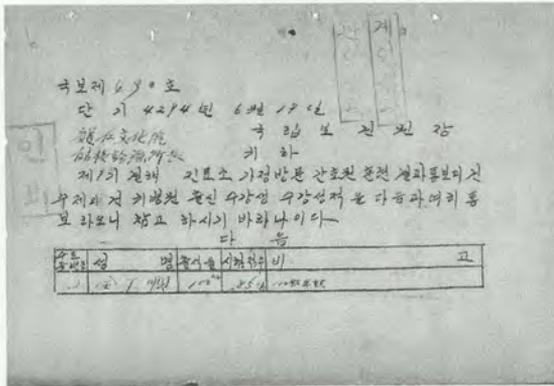


### 김정순(金丁順) 간호원

용인문화원 보건간호원으로 근무했던 김정순은 1937년 8월 24일 생으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필곡 2리 389번지가 본적이었다. 용인문화원 결핵진료 간호원으로서 1960년 3월 4일부터 1961년 9월 18일까지 1년 6개월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용인문화원을 사퇴한 후 1962년 1월경 수원도립병원으로 이직하였다. 경력사항을 보면, 1956년 경기도립인천간호고등기술학교 입학 1959년 3월 5일 졸업하고 1959년 5월 30일 국민학교 양호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였으며 1959년 8월 28일 인천자선공원 간호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1960년 3월 용인문화원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다.

### 조원자(趙源子) 보건 간호원

김정순 간호원의 후임으로 1961년 9월 조원자가 문화원 결핵진료소 보건간호원으로 임명되었다. 1931년 3월 28일 생이다. 이력사항을 보면 본적은 충남 대전시 중동 1번지로 되어 있고, 현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1-19번지로 되어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1945년 일본 고저총석(庫底叢石)국민학교를 졸업하였고, 1949년 원산 루씨(樓氏)고등여학교 5년 수료 후 원산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1949년 11월 20일 월남, 1954년 국립서울의과대학부속 고등간호학교를 마쳤으며, 동년 5월 대한중석상동광업소 부속병원에 입사한 후 1957년 퇴직후, 용인문화원 간호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당시 임명을 위한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이에 전제한다.



1961년 용인문화원 간호원 김정순이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한 결핵가정방문 간호원 훈련교육 수료 후 국립보건원장으로부터 받은 교육이수 수료증. 결핵간호원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5점을 획득한 시험성적표를 대외비(인비)로 용인문화원장에게 통보하였다.

## 『『서면회의서』』

1. 안건 : 보건간호사 임면의 건.
1. 제안 이유 :

본원의 간호원 김정순은 가정 사정으로 별지와 같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하고 그 후임으로 전 본원의 간호원,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간호부장 양은숙(楊銀淑)의 추천으로 조원자(별지이력서 및 졸업증명서 참조)를 좌기와 같이 채용할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記)

1. 보건간호원 김정순 의원면직.
1. 조원자, 임. 보건간호원, 급. 월봉 삼만원

4294년 9월 일

원장 조구행

이사 제위 귀하

이사 성명	인
심재혁(沈在赫)	인
송요중(宋堯重)	인
이대영(李大寧)	인

結核防疫所看護員訓練時間表

日	A		B	
	1	2	3	4
時	9.00~10.00		10.00~12.00	
6/5	開學式 (李鍾鼎)	公衆保健 預防及結核常識 (崔煥堯)	結核防疫 (吳貞玉) (白南振)	家庭訪問 (李珍輝)
6/7	地域社會保健施設 (金貞福)	結核外 療法 (李珍輝)	結核地理 (李珍輝) (珠玉媛)	結核外 療法 (李珍輝)
6/8	家庭訪問 (李珍輝)		結核地理 (李珍輝) (珠玉媛)	結核外 療法 (李珍輝)
6/9	세부관소 結核內科 --- (I Team) 實習 (別紙) 中區保健所 --- (II Team) 實習			
6/12	家庭訪問 (李珍輝)		家庭教育 (成洛瑛)	結核防疫 (吳貞玉)
6/13	세부관소 結核內科 --- (I Team) 實習 (別紙) 中區保健所 --- (II Team) 實習			
6/14	結核常識 (吳貞玉)	家庭教育 (成洛瑛)	面格技術 (吳貞玉)	環境衛生 (李鍾鼎)
6/15	面格技術 (吳貞玉)		家庭教育 (成洛瑛)	세부관소 結核內科 (I Team) 實習 中區保健所 (II Team) 實習
6/16	세부관소 結核內科 --- (I Team) 實習 (別紙) 中區保健所 --- (II Team) 實習 試驗			

결핵 가정방문 간호원 훈련시간표

됨으로 승급이 불가능 합니다. 연이나 상여(賞與)라는 과목도 없고 하여 노고를 사(謝)하고자 급료과목 중에서 급월에 한하여 약소하나마 별기(別記)한 바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를 경망합니다.

4292년 2월 3일 원장 조구행

### 기(記)

직위	성명	월급액	임시급여액	적요
서기	한영석	20,000환	5,000환	월급예정액 4291년 7월이후 월 4,000환
간호원	조갑순	27,000환	5,000환	" 월 3,000환
노무원	정동근	13,000환	5,000환	" 월 3,000환
"	박문자	6,000환	5,000환	" 월 4,000환
				계 20,000환

《추신》 의사, X-선기술원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겠으나 정상적인 직업이 있고

\* 위 보건간호원 조원자는 1963년 3월 22일 문화원 간호원을 사직한 후 용인보건소 가족계획요원과 조산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하였습니다.

### 『서면회의서』

1. 안전 : 직원·용원 임시급여 지급 건

본원의 상시종사 직원 및 용원 중 특히 서기, 간호원, 노무자는 4291년도 예산편성당시 약간의 승급을 도모 한바 있으나 429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수입면에 있어서 소기 액에 미달

상시 본원에 근무하지 않는 점 등으로 제외되었음을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제위 귀하

찬성이사 심재혁(인), 김윤근(인), 송요중(인), 이대영(인). 』

### 정동근(鄭東根) 총무



본래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리73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25년 12월 11일 생이며 1937년 봉담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1956년 7월 31일 용인문화원 용원으로 임명 되었다.

정동근은 용인문화원의 산 증인이었다. 초대 문화원장 조구행으로부터 12대 이인영 원장 시대까지 50여 년을 용인문화원에서 일해 왔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 그를 지칭할 때는 '정총무'로 통했고 그의 이름은 몰라도 '정총무'라면 시장 통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말하자면 그의 일생은 거의 용인문화원과 고락을 함께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문화원에서 먹고 살만큼의 급료도 받지 못했고, 또 문화원에서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원 건물 한 부분을 내어주고 부수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에 대한 배려의 전부였다.

본래 총무라는 직책으로 문화원의 제반 살림살이를 도맡아 보았으며 직원이 없을 때에는 총무겸 회계업무도 돌보았고, 문화원에서 결핵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때에는 어깨너머로 X-선 촬영하는 기술을 터득했다가 X-레이 촬영기사가 떠난 후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몇 년간 X-레이기사 업무를 대신 맡아 촬영기사 노릇도 했다. 그러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어 백혈병을 얻어 죽을 고비를 넘긴 일도 있었다. 이처럼 문화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좋은 일,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해 왔기 때문에 어느 문화원장도 그를 해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문화원 초창기로부터 대민홍보사업을 할 때는 영사기와 발전기를 리어카에 싣고 순회영화 상영을 다니기도 하였다. 문화원 건물이 신축된 후 구 건물 한 칸을 의지하여 구멍가게를 차리고 새벽에 일어나 시장 골목에서 파지를 모아서 팔기도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정년을 맞게 되자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당분간 생업을 이어가다가 퇴직하였다. 2005년 타계하였다. 아래 도면자료는 1960년도 서기 한영석과 용원(傭員) 정동근의 급료 인상에 관한 서면 회의 내용으로써 당시 대 문화원의 실상을 이해하는 자료이기에 원문을 전재한다.

書面會議  
職員傭員昇給의件  
提案理由  
本院의書記韓永錫은四三九年一月三十日採用되어滿四年八月間該書記가勸告로써奉任하여왔는之周知의事實이나그報酬가現在月二四〇〇〇원으로其他의比로文字 그대로奉任한은이由來本院의財産이減少되어가있는바이에應分의待遇은未定한일이나本院의豫算의許容하는範圍內에서氣分上의待遇라든가조금늘가리며左記와같이昇給은定施한것입니다  
本院의傭員鄭東根亦前就南書記로지았기  
二 臨時傭員採用의件  
提案理由  
去九月十日을로辭職한朴君의後任은두지않고서하였은은燃料屬現必舊團來宿日直等夏等보다特別注意以用役의必要한대鄭東根一人으로勤耐이어려은愛情이므로盜難必發等防止策으로六月間臨時傭員을採用한것입니다  
記

一 昇給案  
職位 姓名 班月 份額 昇給後 昇給後 份額 昇給後 份額  
書記 韓永錫 二四〇〇〇 四三九三 三〇〇〇 二七〇〇〇 四三九三 二〇〇〇  
傭員 鄭東根 一六〇〇〇 四三九三 二〇〇〇 二一〇〇〇 四三九三 二〇〇〇  
二 臨時傭員採用案  
職位 姓名 班月 份額 昇給後 昇給後 份額 昇給後 份額  
傭員 崔榮 一九〇〇〇 四三九三 二〇〇〇 二一〇〇〇 四三九三 二〇〇〇  
以上  
要

姓 名 登 取 印 不 登 取 印 掃  
許 日 出  
金 允 根  
李 大 善  
崔 榮  
張 在 勳  
字 亮 重  
理事 金 員 贊 防 以 是 本 件 原 案 內 可 決 議  
四三九三年十月二十九日  
院長 趙 球 行

上記承誌의수신은仰望한바  
四三九三年十月二十九日  
龍仁文化院長 趙 球 行  
理事 崔 亮 重  
以上  
要

## 『서면회의 안』

### 1. 직원 및 용원 승급의 건

#### 제안이유

- (1) 본원의 서기 한영석은 4289년(1956) 1월 13일 채용되어 만4년 8월간 성과 열로써 봉사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보수가 월 24,000환으로서 문자 그대로 봉사한 분입니다. 본원의 재원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응분의 대접을 못함은 미안한 일이나 본원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상의 대우라도 함이 가하여 좌기와 같이 승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2) 본원의 용원 정동근 역시 전술 한서기 못지않게 오히려 과중한 근로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X광선 기술원 최태환이 사임한 후 그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반면 현재 월 보수 16,000환으로서 흡족한 대우는 못하나마 좌기와 같이 승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2. 임시용원 채용의 건

#### 제안이유

거 9월 10일자 사직한 박문자의 후임은 두지 않으려 하였으나 연료처리, 화기단속, 숙·일직 등 하절 보다 특별한 주의와 용역이 필요한데 정동근 1인으로 감내키 어려운 실정임으로 도난·화재 방지책으로도 6월간 임시 용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기(記)

### 1. 승급 안

직위 성명	현원급여	최종승급년월일	승급액	승급후월급여	실시연월일
서기 한영석	24,000환	4292년3월1일	3,000환	27,000환	4293년10월1일
용원 정동근	16,000환	?	5,000환	21,000환	?

## 2. 임시용원 채용 안

직위 성명 연령 학력 월보수 적 요  
용원 최영하 19세 중졸 5,000환 자. 4293년 10월 지. 4293년 3월 6월간

### 이 상

상기 승인하여 주심을 양망하나이다.

4293년 10월 29일 용인문화원장 조 구 행

이사 제위 귀하

찬성이사 :

허갑수(인), 김윤근(인), 이대영(인), 조성우(인) 심재혁(인), 송요중(인)

이사 전원 찬성임으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 함

4293년 10월 29일 원장 조구행 』

### 박문자(朴文子)

1944년생.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133번지에 거주하였다. 1956년 5월 31일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1960년 9월 10일 퇴직하였다.

### 유양자(俞良子)

1943년생. 용인군 용인면 김량징동에 거주하였다. 용인국학교를 졸업하였고, 1963년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1964년 11월 3일 퇴직하였다.

### 이명희(李明熙)

1946년생.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298번지에 거주하였다. 용인중학교 졸업 후 1964년 12월 2일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근무, 1966년 4월 30일 퇴직하였다.

### 우화순

1951년생. 용인군 용인면 역북리에 거주하였다. 1968년 9월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일시 근무하였다.

### 조성한

1953년생. 용인중학교 졸업, 1968년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잠시 근무하였다.

### 염정일

1954년생.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85번지에 거주하였다. 1970년 용인중학교 졸업 후 동년 1월 24일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임용되었다.

### 박용호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133번지에 거주하였다. 1945년 9월 14일 생으로 1957년 용인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1960년 2월 태성중학교를 졸업, 1962년 4월 용인문화원에 용원으로 근무하였다. 결핵환자에게 결핵약품인 '아이나'와 '파스'를 처방해 주면 이를 지급하거나 결핵환자의 객담을 수거하여 용인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오는 등의 잡무를 거들었다. 결국 결핵에 걸려 합병증으로 일직 타계하였다. 순회 홍보영화와 도서관 일을 보았다.

### 남용희

당시 20세 안팎의 청년이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문화원에 몸담고 있었다. 역북리에 살았으며 군에 입대할 때까지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행물의 배부, 도서관 관리, 일반 서무를 취급하거나 영사기를 들고 순회영화를 다녔다고 한다. 지금은 50대 후반으로서 용인~대전 간을 왕복하는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다.

### 송금희(宋錦姬)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동 92번지에서 거주하였다. 1947년 생으로 1952년 용인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수원여자중학교와 1964년 수원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67년도 미스경기 선발대회에 앞서 용인 최초 '미스용인'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을 때 21세의 나이로 초대 미스용인 진으로 선발되었다. 김희숙 사무원 직전에 용인문화원에 근무를 했으며 2009년도 현재 63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필리핀

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용인최초 미스용인 선발대회는 용인문화원 옥상에서 실시되었다.

### 김희숙



1950년생. 김량장동 남구 중앙동사무소 뒤편 속칭 베르기(별학동)에서 살았다. 문화원 사무원으로 근무했으며 1966년도 합창단이 결성될 때부터 문화원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합창단원으로 함께 활약하였다. 1969년 인성합창단 제2회 납량음악회에 출연하였던 것으로 보아 1970년대 초반까지 문화원에 근무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연락처를 알 수가 없으나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웃기를 잘하였고 매우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 김정웅(金正雄)

김정웅은 1944년생으로 태성중학교를 거쳐 용인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용인문화원에 근무하였다. 시를 잘 썼던 문학청년으로서 당시 용인문화원에서 개인 시화전을 열기도 하였다. 시화전은 8절지 크기의 종이 위에 시와 그림을 그려서 문화원 회의실 벽면 공간에 전시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문화원의 환경을 가꾸는 정도의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후 문학적 소질이 있고 글을 잘 썼으므로 당시 공보실에 근무하던 이인영의 추천으로 군청 공보실에 발탁되었고 사진보도 업무를 맡으면서 군수가 대외행사 때 읽는 기념사, 축사, 격려사 등을 썼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공보실은 군수 대변인실이었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하였다.

그러면서 틈틈이 문화원 일을 도왔고, 문화원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김정웅이 월남에 파병 중에 있을 때 용인고등학교 이○○이라는 학생으로부터 “월남참전 용사에게 드리는 위문편지”를 우연히 받아 본 후 많은 편지가 오고 갔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후에 애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둘다 성인이 되어 결혼 적령기가 되었으나 이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1967년 경 봄, 당시 용인병원에 근무하던 한봉기(후에 용인

문화원 부원장을 역임)의 주선으로 이전 어느 병원 간호원과 약혼을 하였고, 그날 저녁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잘못되어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마쳤다. 그의 시세계는 더욱 성숙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고 이를 아끼던 친구들이 고인의 유작을 모아 시집을 간행한다고 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생존했다면 그의 타고난 문학적 소질과 감성으로서 시인이거나 문학인으로 대성할 수 있었던 아까운 인물이다. 특히 조구행 원장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고, 그의 글재주와 문화 감각은 남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용인의 문화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을 인재였다.

### 진인장(陣仁章)



1955년생. 용인군 용인면 역북리 289번지에 거주하였다. 태성중학교 졸업, 용인면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 후 잠시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용인공보실에서 차량 지원을 받아 발전기와 영사기를 싣고 다니며 관내 홍보영화 순회상영을 실시하였다. 용인문화원 순회영화 상영은 진인장 사무원 이후 종료되었다.

### 배창만

(배창만의 인터뷰 내용이 본서 부록에 실림)

## 2. 이일영(李一寧) 원장 재임기(재건기)



이일영 문화원장은 본래 교육자 출신으로서 교육장을 정년 퇴임한 후 문화원과 인연을 맺는다. 1908년 12월 2일 덕성리 310번에서 출생, 본관은 연안. 1927년 경기도 공립사범학교를 나와서 화성군 남양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몸담아 왔다. 그 후 서울 청운초등학교, 서강초등학교, 1944년 용인군 송전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다음 남사초등학교, 용천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고, 1950년 용인군 장학사가 되었다. 1950년 재단법인 태성중고등학교 이사를 역임하였다. 용인교육구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용인군청 학무과에서 관내 교육업무를 분장하고 있었다. 1952년에 와서 교육구가 생길 때 용인군청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교육구로 이관되었으며 이 업무를 인계받았다고 한다.

1952년 8월 8일 당시 용인군 각 면에 한 사람씩 있었던 교육위원회에서 이일영을 용인군 교육구청 초대 교육장으로 선출하였다.

1957년 4월 17일까지 초대 교육장의 임기를 마치고 난 후, 1957년 4월 18일 다시 추대되어 1960년 10월 30일까지 제2대 용인교육장을 지낸 후 1962년 용인군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 1963년 재건국민운동 용인군지부 지부장을 역임하고나서 1968년 남사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후 1979년 용천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을 맞았다. 1992년 11월 29일 타계하였다.

앞서 연혁 개관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74년 5월 현직을 유지한 채 조구행 원장이 별세하자 용인문화원은 5개월간 일시 폐원되었다.

그러던 중 1974년 9월 30일 용인문화원 재건을 위하여 초대 문화원 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송요중(한학자, 수원백구문단 회원) 외 3인이 발기인이 되어 1974년 10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 2대 용인문화원장에 용인교육장을 역임한 이일영을 선출하는 한편, 동년 10월 30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원장으로 추대된 이일영은 본래 교육자 출신이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자

출신으로서 문화원장을 역임하신 분은 이일영 원장이 유일하다. 교육자 출신의 이일영 원장은 사재를 털어 문화원의 경상비를 충당할 만한 여력도 없었다. 그렇다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후원금을 받아 낼 생각 같은 것은 아예 마음도 먹지 않았던 선비였다. 그러나 5·6대 문화원장 8년의 임기동안 문화원장 출장비, 회의비, 일반 경상비 등의 예산을 절약하여 1978년 200만원의 자금을 저축하여 문화원 1층 건물 평면 3분의 2를 전시실로 꾸밀 때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일영은 8년여 문화원장 재직 중 전반 4년간의 문화사업은 주로 정부홍보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대는 한참 새마을 운동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증산, 수출, 건설이 국가의 주요시책이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 아래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는 국민적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매진했던 때이므로 문화원의 문화활동도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내일의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섰던 것이다. 그리고 반공정신무장, 민방위 조직의 필요성과 활동, “상기하자 인질사태” 등의 국방과 대북 규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음도 눈에 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이일영 원장의 전반기 재직기간 중의 홍보활동(순회영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다. 예를 들어보면 ‘힘만 세면 제일



학생 사생대회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이일영원장



서예대회 입상자들과 함께 선 이일영원장

이냐, '의지의 여인', '호국의 의지', '자주국방', '고난속의 수확', '멸공', '안녕리 이야기', '마을의 전기', '나는 달라졌다', '누나와 소', '겨레의 지도자', '협동의 길', '양치는 처녀', '저축', '해 뜨는 들녘', '전국체전 이야기' 등이며 언젠가 한번쯤 보았을 '팔도강산'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홍보사업은 문화공보부에서 제작 배포되는 영화 이외에도 '대통령 각하 동정 및 정부 중요행사'에 관한 사진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문화원 사진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게시가 끝난 사진은 '대통령 각하 동정사진은 절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간행물에 일체 사용 또는 복사할 수 없으니 게시후에는 소각'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미국공보원에서 '미국의 역사' 등의 홍보영화와 대만 대사관의 홍보자료도 수령하여 문화교류의 활동도 했음이나 나타나고 있다.

이일영 원장 재직기간 중 순회영화 활동상황을 보면 1976년 36회, 77년 44회, 78년 20회, 79년 10회로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1979년경에 이르러서는 문화원 업무의 비중이 정부 홍보활동 일변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활동 경력으로는 용인지역 초·중등학교 교장모임인 '삼락회' 회원이었으며 문화원장 재임시에는 총력안보 홍보교육활동을 했던 흔적이 있다. 이외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민주통일경기도협의회’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이일영 원장 재임 8년 중 후반 4년차에 들어와서 움직임에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전반 4년여 기간에는 문화원장과 정동근 총무 두 사람이 문화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의 원사기(院舍記)에서 약간 밝혔듯이 이인영이 문화원 앞마당 공간에 가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낸 것은 문화원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였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종전 조구행 원장 재임시와 같이 문화원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가게를 짓고 세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고 적당한 사람을 물색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하자는 의견이었다.

이 말을 꺼내자 이일영 원장은 “자네가 문화원 사무국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인영은 당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대신 일할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말한 뒤, 박민용을 사무국장으로 추천하였다. 이때에 와서 처음 용인문화원에 사무국장을 두게 됨으로서 박민용이 초대 사무국장이 되었던 셈이고, 문화원 1층에 사무실 공간을 제외하고 전시실을 마련하게 된다.

당시 문화원 건물 임대현황을 보면 매월 1,170,000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협동조합 임대 25평		보증금 33,000,000원	
사진관	13평	3,000,000원	월세 200,000원
정양섭	창고 3평	100,000원	40,000원
용암로타리클럽	본관 17평	1,000,000원	180,000원
현정피아노	12평	1,000,000원	100,000원
문화가스	5평		100,000원
신협 전면2층	8.8평	1,000,000원	150,000원
동아서점 창고	25평		200,000원
동아서점 본관	38평	3,000,000원	200,000원
계		보증금42,100,000원	월임대수입1,170,000원

이것은 2009년 현재의 문화원 예산규모(12억)에 비한다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문화원에 고정 수입이 보장되었고, 또 이로 인해 직원을 채용하여 문화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데 큰 보탬이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후에 반환해야 할 보증금까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소진함으로써 후임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후에 보증금을 올려 최종적으로 54,100,000원에 이르렀다.

이 수입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문화원의 재건기에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까지 문화원 자산관리에 따른 수익금으로서 문화원 사업에 기여되고 있는 것도 이일영 문화원장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박민웅(1944년생)이 초대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일영 문화원장 전반기에 '노인회관'이라 불리던 문화원 이미지도 개선되었다. 일반 사무원도 없이 나이 많은 총무 정동근과 문화원장이 자리를 지켰으므로 자연 문화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일영 원장과 같은 연령층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사무국장이 자리를 잡자 문화원 연중 사업계획도 마련되는 등 점차 활기를 띠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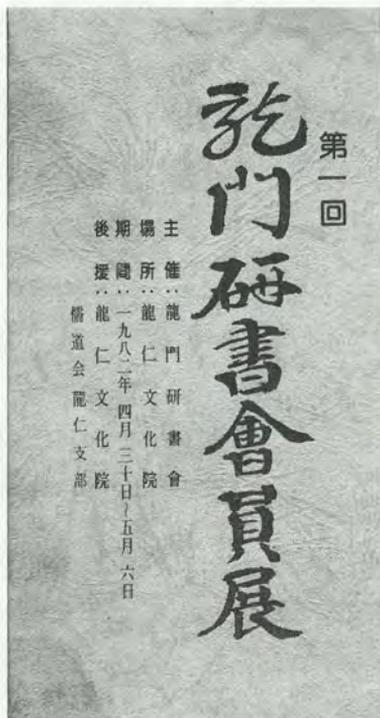
초등학교 학생 사생대회, 글짓기 공모전도 개최되었고, 문화원 전시실도 마련되어 시화전도 열렸다.

1980년 11월 3일 작성된 용인문화원 사업 실적을 보면 이일영 원장이 실시한 문화원의 문화사업에 있어서 주요골격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 미술 사생대회, 피아노 경연대회, 웅변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일영원장이 교육자 출신이라는 성향과 취향 때문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일영 원장 취임시로부터 1979년



제1회 서예전, 우로부터 신창기, 김건중, 이일영, 용인교육장



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문화원 프로그램을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참신한 교육풍토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질 있고 능력 있는 민족문화와 예술자원을 개발 선양코자 한다.'는 것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일영원장의 교육자적인 취향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때까지도 계속되어 온 사업은 영사활동이었다. 당시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던 홍보장비로는 16mm 영사기 1대, 8mm 영사기 1대, 발전기 1대, 마이크 2대, 사진기 1대가 있었으며 이 홍보 사업은 1979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외에 문화원의 자체 사업으로 1979년까지 전개된 프로그램을 종합해 보면 이일영 문화원장 취임 이후(1974), 주부백일장 3회, 학생 미술사생

대회 6회, 부녀 서예실기대회 2회, 각종전시회 5회, 피아노대회 2회, 유치원생 무용발표회 1회, 요리강습 5회, 기타 강연회(노인대학)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는 용문연서회(龍門研書會) 활동을 들 수 있다. 당시 용인에는 서예를 배울만한 사설학원이 하나도 없었을 때여서 문화원에 서예실을 처음 마련한 후 1982년 4월 30일 '제 1회 용문연서회 회원전'을 가졌다. 이것이 용인에서 개최된 서예전시회로서는 그 첫 번째가 된다. 이때 출품한 회원들을 보면 단산 박재홍, 남정 양용모, 란사 양애자, 연강 정연순, 인파 이한



용문연서회 제1회 회원전에 출품한 연서회원 일동

익, 한산 손영환, 연실 박용자, 춘파 남미양, 고송 이명옥, 청완 한례수, 신채 박경희, 태사 이상극, 청아 임철순, 보나 김연숙 등 14명의 주부들이었으며 찬조작품으로는 공연 장범상, 청은 조광수(용인병원장), 김건중(유도회장), 근정 이관용, 죽당 김춘자(현 용문서예학원장) 등이 출품한 작품 등을 합쳐 모두 33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때의 서예전은 이일영 원장이 문화원에 전시실을 만든 이후 용인 문화원에서 창시한 '서예문화'의 효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일영원장의 재직 기간 후반인 1982년 말까지는 주로 피아노 독주회, 학생미술 작품 전시회, 학생미술 사생대회, 부녀서예대회, 부녀백일장, 미술전시회, 꽃꽂이와 같은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후에 정부지침에 따라 식생활개선, 증산, 저축, 절미운동, 분식장려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초대 문화원장이었던 조구행 문화원장 당시의 문화사업 실태와 비교되는 점이 있다면, 조구행원장은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던 분으로서 외국문화, 특히 미국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선진국형의 문화감각을 체득했던 분이었다는 점이다. 베토벤이나 슈베르트의 곡을 즐겼고, 헨델이나 바하의 '천지창조'나 '메시아'를 감상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은 당시에는 보기 드문 인텔리로서의 일면을 보여 준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이어 받은 이일영 원장은 다분히 교육자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주로 청소년 문화에 관심이 깊었다는 것은 문화감각과 성향이 교육과 학생지도, 예능 발달과 청소년 활동 기회의 제공 등에 치중되었다고 하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 박민웅(朴敏雄) 초대 사무국장

박민웅(1944년생)은 경북고등학교 재학 중 고3 때 부친(박해관)을 따라 용인으로 이사하였고 1964년 태성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 용인면 유방리 지장실에 거주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자동차학원 강사로 재직하다가 공군에 입대하였다. 만기제대 후 용인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차렸으나 당시에는 차량이 많지 않았고 정비를 필요로 하는 차량도 대개 수원 정비소를 찾아 가는 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자 폐업하였다.

문학청년으로서의 감각도 있었고, 카메라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1982년 6월

경 용인문화원에 들어와서 1985년 말까지 문화원에 몸담고 있었다. 특히 1985년 말 용인문화원 최초로 심포지엄(문화논단)을 건의하여 '향토문화의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3년 초 김정근 문화원장 재임 중 용인군청 공보실로 자리를 옮겼고 사진기사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후에 용인군 요식업조합 상무를 지내다가 서울로 이사한 후 1995년 별세하였다.

### 홍옥희

1952년 생.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311번지에 거주 하였다. 1971년 용인중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 조경선(趙慶仙)

1950년 생.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153번지에 거주하였다. 1970년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잠시 근무하였다.

### 김현창

1945년 생.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574번지에 거주 하였다. 태성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육군 만기제대 후 1970년 7월 7일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일시 근무하였다.

### 이진남(李鎭男)

1952년 생.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327번지에 거주 하였다. 1971년 용인중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1972년 6월 8일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 남경조(南敬朝)

1946년 생.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124번지에 거주하였다. 1965년 태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0년 5월 12일부터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후에 용인신용협동조합 전무를 지냈다.

### 3. 김정근(金正根)문화원장 재임기(전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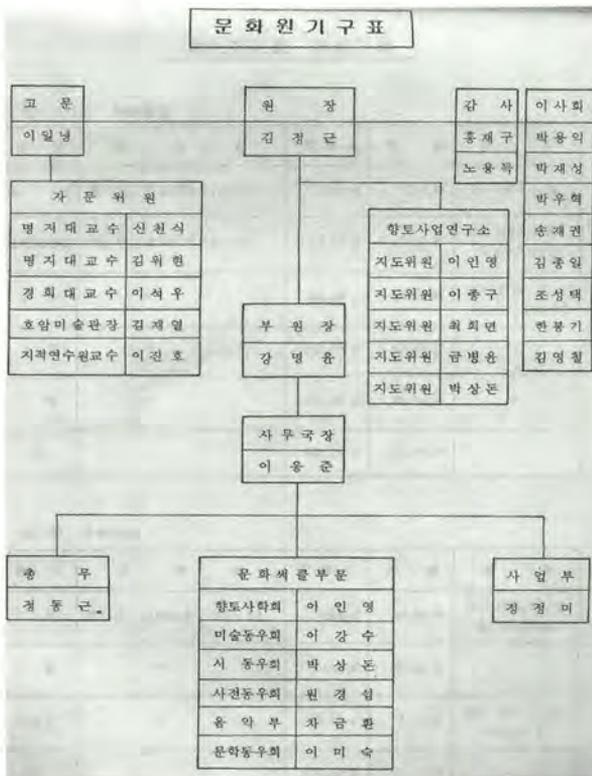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정서도 소득 증대와 개발이라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게 되었고, 따라서 문화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기를 띠어가는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김정근 문화원장이 등장하게 된다. 이일영 원장의 뒤를 이어 1983년 3월 1일 제 7대 용인 문화원장을 맡게 된 김정근은 1930년 3월 28일생으로 서울 용

산구 원효로 1가 19번지에서 출생, 1950년 5월 6일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 해 7월 1일자로 경기도 종축장 용인중우사업소에 일시 근무하였고, 부인 전재선 여사는 약사로서 용인에서 제일약국을 경영하였다. 착실한 기독교인으로 교회

에서는 장로의 중책을 맡았고, 부인 전재선 여사는 용인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활약 했으며 어머니합창단 단장으로서 용인문화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부창부수(夫唱婦隨)로 김정근 원장 재임기간 동안 문화 사업에 말없이 내조하였다.

특히 김정근 원장은 과묵한 성격이었다. 용인에서 최초로 창안 실시된 용구문화제를 개최 하면서 행사 경비를 사재를 들여 실시한 바 있으나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후에 홍재구 원장이 말하기를 “그 양반은 문화



김정근 문화원장 출범시의 문화원 조직도

원에 돈을 쓰고도 생색을 내지 않는 성격이어서 남이 돈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1975년 5월 17일 실시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당선되어 한 때 정계에 진출하려는 꿈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곧 정계와는 인연을 끊었고 이일영 문화원장 당시 문화원 이사가 되었다가 이일영 원장의 후임이 되었던 것이다.

우선 조구행, 이일영 원장의 연령에 비교한다면 당시 53세의 장년으로서 폐기가 넘쳤고, 따라서 이사진도 절반의 인원은 젊은 세대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고학력자로서 교양과 품위가 있었고 또 영어가 능통하였다. 후에 영어 말하기대회(회화)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해외에 자주 나가게 되는 여건이 되면 영어가 필수적이라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요즈음 영어마을을 만드는 등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영어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앞서간 발상이었다.

김정근 문화원장이 자리를 잡은 다음, 최초 문화원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이점이 이전 문화원장과의 차별성으로 볼 수 있다. 문화행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를 보면

- 21세기를 대비한 지방문화시대의 토대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문화센터 기능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문화의 전당으로 활성화 하고,
-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혁신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다수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현실적인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 민족문화의 뿌리인 지방고유의 전통과 향토색을 살린 특성문화를 키워 지역주민과의 일체감과 애향심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코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상과 같은 문화원 운영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가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문화원 시설을 확장 활용하여 자생적 문화 활동력을 신장하고,
- 향토문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조직으로 활성화하며,
- 문화원 운영 및 조직을 다양, 다원화시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여건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른 방침으로는,

- 문화원 조직 및 운영개선
- 문화원 환경 및 이미지 개선
- 문화원 활동 및 기능의 강화
- 문화원 서클 조직의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

부수적으로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여 6개항으로 구분하고 실천하려 했다는 점은 분명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기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용인미술인회발족, 제1회 초대작가전에서 테이프를 끊고 있는 내빈. 좌측에서 4번째가 김정근 문화원장이다.

이 때 문화원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조직은 조구행 문화원장이나 이일영 문화원장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내 활동단체를 만들어 일하는 조직을 갖추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문화원 운영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고 문화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위원으로 하여 향토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향토사학회, 미술동호회, 시 동우회, 음악부, 문학동우회 등의 문화서클에 문화원의 조직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던 일이다.

이로써 이 단체들은 문화원에 속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자문위원단과 향토사연구위원, 문화서클 단체들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었다.



용인문화원이 주최한 제1회 용인미술인 초대작가전 도록

그 결과 김정근 원장 재임시에는 이인영이 이끄는 향토사학회, 이강수가 이끄는 미술인동우회, 박상돈이 이끄는 시 동우회, 원경섭이 이끄는 사진동우회, 차금환이 이끄는 합창부, 이미숙과 박수자가 주축이 된 문학동인회가 활동하였다.

향토사학회 회원으로는 이인영, 이종구, 최희면, 금병윤, 박상돈이 회원으로 활약하였으며, 용인군지 편찬을 지원하는 한편, 경인일보사에서 간행한바 있는 '쇄미록'의 교정을 용역 받아 운영비로 충당하기도 하였고 강진갑, 박창수 등을 용인군지 편집위원으로 추천하여 간행을 보게 하였다.

향토사학회 회원으로는 이인영, 이

특히 '용인군지'의 편찬은 4년여의 대장정을 거친 역작으로서 정부수립 이후 최초 용인에서 시도된 향토역사의 기록물로서 군 당국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의 편찬을 주도하여 완간되기까지 문화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컸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치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89년 8월 9일에 창립된 용인문화원 '미술동우회'는 1997년 4월에 이르러 '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의 회원으로는 회장 이강수(서양화)를 비롯, 부회장 이상학(서양화), 총무 허만갑(서양화), 감사 서해창(서양화), 이선열(한국화) 등이 임원이었고, 엄익규(서양화), 오인환(서양화), 이원석(한국화), 이경재(조각), 연경환(디자인), 조남준(사진), 김기창(서예), 김주익(서예), 김동해(서예), 원창식(서예) 등 총 15인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점차 회원이 늘어나면서 제8회까지 정기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박상돈이 이끌었던 시 동우회 '서정3세대'는 문화원의 지원으로 향토문학총서를 간행하였으



문화원에서 간행한 향토문학총서

며 이때 활동한 문학동호인 회원으로서 회장 박상돈을 비롯하여 김종경(용인신문 편집국장), 임준규, 이종대, 장영옥, 박수자(현 예총지부장) 등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문화원에서 태동한 여성문학동인회는 '글이랑 동인' 라는 명칭으로 창작시, 수필, 콩트 등을 모아 문화원의 후원을 받아 동인지를 만들었다. 이때 회원으로 활동한 여성문학 동인회원은 박수자, 이미숙, 노광희, 정영자, 홍종우, 고순정, 박성덕 등이었고 '글이랑 동인지' 는 10회까지 발행되었다. 예총이 창립된 뒤에는 예총 산하 문인협회에 소속되었으며 후에 '여성문학회' 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9년 현재는 시인 노광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외에 원경섭이 주도한 사진 동우회에는 15명의 회원이 활약하였고, 조구행 원장 시절에 있었던 '문화원 인성합창단' 을 재구성하여 합창단을 운영하였는데 이 때 지휘자는 차금환이었다. 차금환은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했으며 용인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후에 수원으로 이주하면서 합창단의 운영은 지속되지 못했다.



또한 김정근 원장 재임시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문화원 사상 최초의 '문화논단' 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심포지엄 형식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와 고고학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발제안을 내도록 하여 198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문화원 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문화원 회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케 하였으며 자료를 간행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문화원 역사 이래 최초의 시도였으며 학계 인사나 지성인이 '논단' 에 대거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대학이 들어서면서 용인에 지적, 인적 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논단에 참여한 사람을 보면, '용인의 풍토문화'에 대하여 호암미술관 김재열(金載悅 현, 경기도박물관장)이 '선사문화와 도자문화에 대하여'란 논제를 발표하였고, 명지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인 신천식(申千湜)은 '한국사상과 향토문화'란 논제로, 명지대학교 국사학과 김위현(金渭顯)교수는 '향토문화의 실상'에 관하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석우(李石佑)는 '지방문화의 중요성에 관하여'라는 논제를 가지고 발표하였다.

이외에 1984년 12월 계간지 용구문화(龍駒文化)를 창간하였고 이 계간지는 지령 30호에 이르는 동안 '향토문화 연구 자료집'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다.



제1회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에 참여한 용인국교 어머니합창단

아직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향토문화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향토문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깨웠다는 점은 고학력의 지성을 갖춘 김정근 문화원장 다운 착상으로서 유의해 볼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시도된 것은 대중문화의 확산이다. 당시 용인인구 15만에 불과하고 농촌생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시기에 합창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합창경연대회를 주최하였다. 1986년 11월 14일 용인군청 대강당에서 제1회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를 실시한 것이 그것이다. '용인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에는 20여 단체 300명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용인어머니합창단이 첫 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김정근 문화원장의 업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을 하나 손꼽자면 용구문화제(龍丘文化祭)를 창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구문화제'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애향심과 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창시되었다. 이 용구문화제는 1986년 6월 14일 우리의 고유 민속날인 단오절을 기하여 당시 용인읍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 공터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 김정근



제1회 용구문화제 행사장 일부(시의버스터미널 예정부지에서 본 운학동방향)

용인문화원장이 사재로 출연한 1천 여 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되어 읍면에서 농악, 씨름, 그네뛰기, 줄다리기, 농악 경연대회 등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였다. 이외에 식전행사로서는 이동면 묘봉리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타맥놀이'가 마당놀이 형식으로 시연되었다. 제 1회 행사 내용을 보면 전야제, 기념행사, 민속행사, 민속 경연대회와 부대행사로 향토음식 및 지방토산물판매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었다.

전야제는 용인여고에서 제등행렬 및 민속무용을 선보였고, 민속공연단의 특별 공연이 올려졌다. 기념행사는 제1회 용구문화제를 개최하기까지의 경과, 기념사, 축사, 유공자 시상 등이었으며 민속행사로서는 한국민속촌 농악대의 특별공연, 모현중학교의 취타대, 용인상고의 가장행렬 등이 펼쳐졌고, 민속경연대회는 각 읍면대항 농악경연대회, 씨름, 그네뛰기 등이었으며, 부대 행사로서 향토음식과 토산품 전시판매 등을 실시하였다.

제1회 용구문화제 안내서

당시의 행사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동네축제에 불과하였으나 잊혀져 가는 민속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뤄볼 토대를 마련하여 용인 시민축제의 효시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보조 없이 문화원 단독으로 지역축제가 시도되었다는 점은 김정근 원장의 독심이 이끌어 낸 향토애의 발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 영어용변대회, 서예대회, 주부백일장, 미술작품공모전, 어머니합창단 운영, 꽃꽂이전시회, 피아노경연대회, 군민친선바둑대회, 사진콘테스트 전시회, 청소년대상 순회교육, 향토문화강좌, 고향소식전하기 간행물배포, 전통 다도 및 예절보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의 문화사업을 전개하였다. 또 간행물 제작에 착수하여 향토문화 시리즈가 첫 번째 시도되었는데 '내 고장 민요' (1983), '내 고장 용인 인물편' (1984) '내 고장 옛이야기' (1985) '내 고장 민속' (1987) 등 '내 고장 용인' 시리즈를 속간하였고 '용인군지'를 완간하여 용인 역사를 집대성하였다.

특히 1984년 창간된 '용구문화'에는 많은 사료가 발굴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용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양서로 애독되었다.

한편 1998년 용인에 예충이 설립될 때 초대 지부장으로 추대되었으나 후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초대 지부장 직을 사양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김정근 원장은 재임 8년 기간 중에 용인문화의 전환기를 열었던 지성인으로 사재를 털어가며 묵묵히 일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 이응준(李應峻) 사무국장



김정근 문화원장 재임시 문화원 사무국장을 맡아 문화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이응준은 1932년 11월 3일생으로 김정근 원장보다는 두 살이 아래였다. 1956년 수원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수원농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김정근 원장이 이응준을 사무국장으로 발탁하게 된 동기도 아마 같은 서울대학교 수원 농과대학 동문이라는 인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준 국장은 1957년 육군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서 만기제대를 한 후에 1957년 처인구 남사면 소재 남사중학교에서 1962년 7월까지 5년간 교편을 잡고 있다. 동년 11월 농협중앙회 용인군지부에 입사한 후 1985년 과장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농협에 몸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2년 4월 경 사무국장 박민웅이 용인군청 공보실에서 근무하게 되자 뒤를 이어 동년 5월 24일 용인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1991년 2월 박용익이 문화원장으로 당선 되자 김정근 원장퇴임과 함께 동반 사퇴하게 된다.

그 후 송재권이 박용익 원장의 뒤를 이어 문화원장이 되자 1993년 12월 1일자로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용준 소장은 '용구문화' 편집, '용인군지' 집필위원, '내 고장 용인 인물총람' 집필위원, 용인대학교 국문학과 박종수, 강현모 교수 등과 함께 용인의 동, 서, 남, 북, 중부지역의 구비전승 자료를 집대성하는데 참여하기도 하였고 용인문화원에서 최초 시도한 읍·면지 가운데 '구성면지'의 집필위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다가 김용태 사무국장의 유고로 인하여 사임하게 되자 그간 문화원 운영에 경험을 쌓아온 경력을 인정받아 1998년 1월 1일 부로 문화원 사무국장을 다시 맡아 일을 보다가 이현규가 문화원장이 된 후 2년 6개월 만에 지병으로 중도사퇴하고 후배 이인영이 후임을 맡게 되자 1999년 9월 30일 사임하게 된다.

이용준 국장은 업무에 따른 상황 판단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계획은 치밀하게 수립하고 일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장점이었다.

한편, 교편을 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 향토학교(야학)의 교감으로서 원삼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정필영선생과 함께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들에게 향학의 길을 터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외에 경기도 향토문화협의회 이사, 유네스코 경기도 협의회 이사, 용인시 궁도협회장, 용인 용무정사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안미자(安美子)

1962년생. 용인군 양지면 제일리에 거주하였다. 1986년 1월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입사하였다. 용동중학교와 용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상업고등학교 재학 중 주산검정시험에서 3급자격증을 받았으며 영문타자 기능 3급자격을 획득,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6년 9월 6일 사직하였다.

### 이혜원(李惠遠)

1967년생. 용인읍 마평리에 거주하였다. 용인국민학교와 용인여자중학교, 용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6년 9월 9일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임명되었다. 1988년 6월 25일 사직하였다.



### 황미경

1969년생.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54번지에 거주하였다. 용인초등학교, 용인여자중학교와 용인여고를 졸업하고 1988년 7월 7일 문화원 사무원으로 임명되었으나 1988년 9월 30일 사임하였다.

### 이문숙



1965년생. 용인군 포곡면 신원리에 거주하였다. 용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88년 신일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였다. 1988년 10월 5일자 황미경의 후임으로 채용되어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 4. 박용익(朴庸益) 원장 재임기(발전기)



1930년 7월 1일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에서 출생한 박용익은 7·8대 김정근 용인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9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문화원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문화원 최초로 직접 선거를 통해 제 9대 용인문화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때의 문화원장 선거 분위기는 김정근 원장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연임을 하려는 의향을 배제하지 않았음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일부의 소장파들이 박용익을 적극 지지했던 것이 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부원장이었던 강명륜이 세를 규합하고 나섰으나 김정근 원장의 의향은 회원들이 선택해 준다면 모르거니와 문화원장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으므로 선거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으니 박용익의 당선은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박용익은 1930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식송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외가는 해공 신익희(申翼熙) 선생과 같은 집안이었고 일찌기 그의 영향을 받아 평생 야당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기에 5·16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과는 같은 고령 박씨로 가까운 족벌이었으며, 이천시 오천 사람인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과도 잘 아는 처지여서 군사정부에 참여하기를 권유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를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려서는 두뇌가 명석하여 공부를 곧잘 하였다고 한다. 서울로 유학을 떠나서 재동공립보통학교를 다녔고, 5년제의 경북공립중학교(지금의 경북중학교)를 졸업한 후 1949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듬해 전쟁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피난을 했고 26세 때인 1956년 뒤늦게 군에 입대하게 된다. 육군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의복과 부식이 부실하자 집단 항의를 벌여 당시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어 조사를 벌이는 등 군부대에 관한 문제가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고려대학교를 7년 여 만에 졸업한 박용익 원장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출



판업이었다. 서울에서 '박문사'라는 출판사를 차려 공무원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시험문제집을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5·16군사 쿠데타 이후 단행된 통화개혁으로 인하여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농촌개발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 3만여 평의 농지를 개간하였으나 개간한 땅을 등기하지 않았다가 설정되었던 등기 시효가 지나서 국유지로 귀속되는 바람에 빗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는 한때 수염을 깎지 않아서 검은 수염이 텃수룩하였다. 오천장에 갔다가 간첩으로 오인 받아 인천경찰서 정보과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던 중 “언제(북에서) 내려 왔느냐”는 말을 서울에서 언제 왔느냐는 말로 알아듣고 “한 삼사년 됐소” “그동안 뭘 했느냐” “농사를 지었소”라고 대꾸하자 주먹이 날아왔다. 이를 재빨리 피하는 바람에 날아간 주먹이 유리창을 부셨다. 마침 지나가던 서장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날 잡아온 형사에게 물어보라. 나도 왜 잡혀 왔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서장을 보니 잘 아는 사이였더라는 얘기다. 그 후 수염을 깎았다고 한다. 이렇듯 가끔 기인으로 보일 때도 있었다.

눈에 띄는 책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 버릇이 있었다. 심지어 경찰서 서장실에 있는 책도 훔쳤다고 한다. 한번 그의 손에 들어간 책이나 자료는 절대 내놓지 않는다. 옛날에는 경안천에 배가 다녔는데 경안에서 관노들의 착취가 심하여 이를 탄원했다는 내용의 옛 탄원서를 한 장 보여주었다. 후에 경안천에 관한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보여 달라고 하였지만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자료의 수집에는 광적인 취미가 있어서 군청 공보실에 들어오면 하다못해 묵은 신문이건 말건 집어들었고, 정부나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화보나 책자 등도 모조리 챙겼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인영과 박민웅을 알게 되었고, 1974년 포은 정몽주선생 묘역을 조사하러 갈 때 함께 가서 잘 모르는 한문을 풀이하거나 읽어주는 바람에 문화재 조사에 동행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다 보니 이인영, 박민웅과는 10여년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말하자면 1974년부터 향토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각 개인들이 서로 알려지게 되자 좀 더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보자는 취지로 박용익, 이인영, 정양화, 홍순석, 박민용 등이 1982년 10월 12일 '용인향토문화진흥협의회'의 발기인이 되어 동호인을 규합하자 13명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두 달 후인 1982년 12월 12일 12시에 김량장리 바위다방에서 첫모임을 가졌고 이때 참여키로 한 사람은 권대운, 김춘자, 박민용, 박용익, 박재성, 박종용, 양승본, 이인영, 이창원, 전기원, 정양화, 최희면, 홍재구 등 13명이었으나 이 중 홍재구가 불참하여 12명이었다. 그리고 가장 연장자였던 박용익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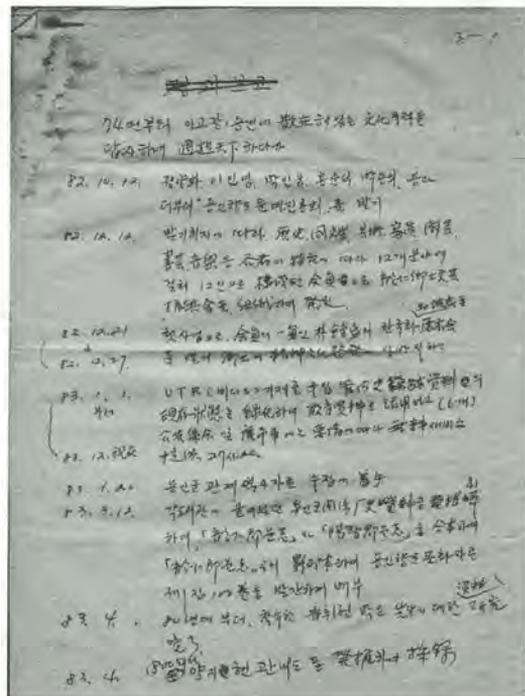
박용익이 문화원에 발을 들여 놓게 된 동기와 경위는 1983년 12월 22일 개최되었던 제1회 탁본전시회의 경과보고 사항에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는 용인의 향토문화를 연구하게 된 최초의 발단이 되는 자료이므로 이에 전제한다. 글씨는 박용익 당시 위원장이 초안한 육필이다.

『74년부터 이 고장 용인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주유천하 하다가 82년 10월 12일 정양화, 이인영, 박민용, 홍순석, 박용익 등과 더불어 “용인향토 문화진흥회”를 발기.

82. 12. 12 발기 취지에 따라 역사, 국문학, 미술, 사진, 도예, 서예, 음악 등 각자의 특기에 따라 12개 분야에 걸쳐 12인으로 구성된 회원으로 '용인문예진흥회'를 조직하여 발기.

82. 12. 21 첫 사업으로 회원의 일원인 박종용의 한국화 30여 점으로 전시회를 열어 향토의 정신문화 계발에 이바지하고,

83. 1. 1 부터 83. 12월 현재 VTR (비디오) 기재를 구입, 관내 사적 자료의 현 상태를 녹화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6개) 공공집회 및 경조사에



무료서비스 제공. (27 개처)

83. 1. 20 용인관계 역사자료 수집에 착수.

83. 3. 12 각 도서관에 묻혀있던 용인관내 역사자료를 발췌하여 '용인군읍지'와 '양지군읍지'를 합본하여 '용인군읍지'와 영인하여 향토문화자료 제1집 100권을 발간하여 배부.

83. 4. 80년대 초부터 착수한 읍취헌 박은 선생에 대한 자료 연구 완료.

83. 4. 1800년대 양지현 관내도를 발굴하여 채록.

83. 6. 회원 홍순석이 읍취헌 박은 선생에 대한 연구논문을 한국국어국문학회에서 발표.

83. 4월부터 용인관내의 역사 및 문화적가치가 있는 금석유물, 비석 마애불상, 그리고 각종 현판 30점을 탁본하여 조상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재조명.

83. 8월 원삼면 문촌리에서 발견한 마애보살상 2점을 지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그간 본회 자문위원이신 맹인재 선생과 수차 현지 답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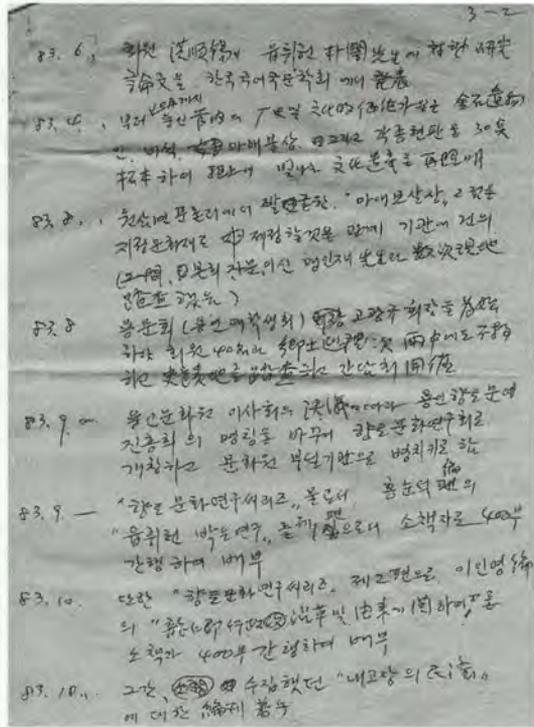
83. 8. 용문회(용인대학생회) 고광규회장을 위시한 회원 40여명과 향토순례차 우중에도 불구하고 유적지를 답사하고 간담회.

83. 9. 20 용인문화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용인문예진흥회의 명칭을 바꾸어 향토문화연구회로 개칭하고 문화원 부설기관으로 병치키로 함.

83. 9. 향토문화연구 시리즈물로 읍취헌 박은 연구를 제1편으로서 소책자로 400부 간행, 배부

83. 10. 또한 향토문화 시리즈 제2편으로 이인영편의 '용인행정연혁 및 유래에 관하여'를 소책자로 간행하여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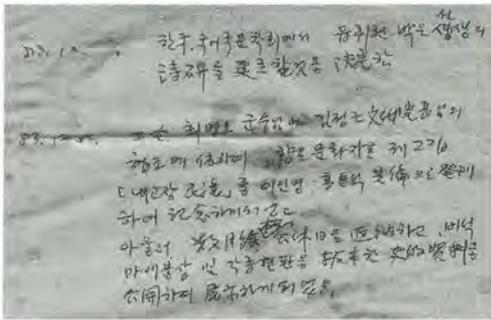
83. 10. 그간 수집했던 '내 고장민요'에 대한 편간 착수.



83. 12. 한국국어국문학회에서 읍취헌 선생의 시가비를 건립할 것을 결의함.

83. 12. 2. 그간 최병호 군수님과 김정근 문화원장님의 협조에 의하여 향토문화자료 제2집 '내 고장 민요'를 이인영·홍순석 편으로 발간하여 기념하게 되었고, 아울러 수 월여 본회원은 공휴일을 반납하고 비석 마애불상 및 각종 현판을 탁본한 자료를 공개하여 전시하게 되었음.』

이것이 박용익이 문화원과 관계를 맺게 된 단초가 되었고, 후에 전국적으로 문화원에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오기 이전이었으므로 문화원에 향토문화



연구회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한 것도 전국에서는 용인문화원이 최초였을 것이다.

이때가 박용익과 회원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절이었다. 그 후 탁본전시회를 마친 것을 끝으로 박용익은 독자행보를 걷기 시작하였고 전국 단위의 향토사연구모임 조직에도 눈을 돌려 1987년 5월 23일 전국 18개 향토사연구단체가 모여 사단법인 '향토사연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86년 이인영과 함께 수원 의안익승, 최흥규, 이창식, 시흥의 이승언, 도청 강대욱 등 경기



도 향토사학자들의 모임인 '기전문화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988년에는 '용인향토문화연구회지'를 창간하였으며 1990년 '용인군 금석유문집(홍순석 공편)'을 낸 후 최인태(NOC위원), 장원섭 등과 함께 "향토문화지킴이용인 시민모임"(약칭 향지모)을 창설하고 모현면 유희묘를 시민이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고, 이인영이 문화원장으로 재임할 때 지원을 받아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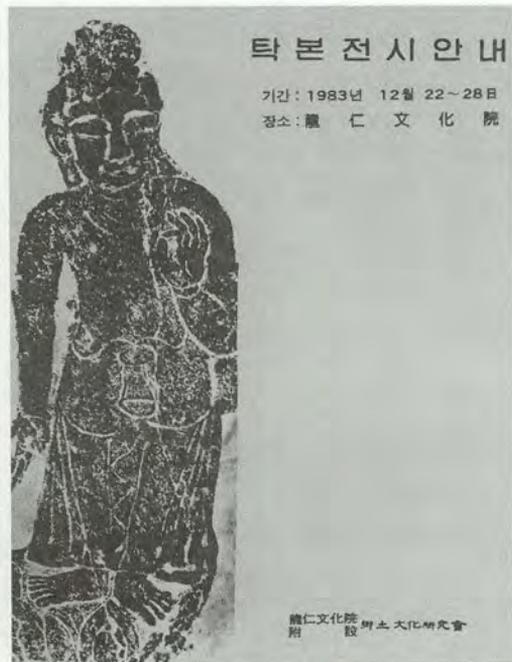


2003년 2회에 걸쳐 용인문화원과 송담대학에서 각각 '용인금석문 탁본전' 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용인 '3·1운동기념사업회' 를 조직하고 사업회의 이사장이 되어 독립운동에 공헌을 세운 애국지사들의 후손을 찾아 유공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의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임종 시까지 '향지모' 의 회장을 맡았고, 2004년 5월 11일 위암으로 향토 사랑의 여정을 멈췄다.

김정근 문화원장의 뒤를 이어 제9대 용인문화원장에 당선된 박용익은 1991년 5월 3일 문화부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은 후 동년 7월 12일 취임식을 가졌다. 그리고 문예회관 지하실에서 다시 문화원 원사로 사무실을 옮겼다. 박용익 체제로 출범한 용인문화원의 사무국장도 이때에 와서 모현면 거주 정윤준으로 교체되었다.

박용익 원장은 향토문화에 심취해 있던 사람으로서, 또는 향토사 연구 취향인물로서 용인문화원장이 된 것은 그가 최초의 인물이었다. 따라서 향토문화 강좌를 개설한 후 직접 각급 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향토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이듬해인 1992년 5월 6일 문화부로부터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받아 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도 행운이었다. 이 돈으로 문화원 2층



에 시청각이 가능한 환등기와 앰프시설을 갖추었고, 문화원 현관 입구에 한식대문을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녹화장비와 카메라 등의 비품도 마련하였고 문화원 외벽의 도색도 하였다.

재임 중의 업적으로는 1993년 9월 경기도민속경연대회에 노승식선생의 지도 하에 '한터동해놀이'가 참가하도록 지원하여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사상 최초로 최우수 놀이로 입상한 바가 있고, 경기도에서 주관한 소인극 경연대회에 자연농원 연극반을 참가하게 하여 '맹진시댁 경사'라는 내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물론 당시 용인군 당국의 지원에 힘입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지자체와 문화원이 호응을 맞추어 이와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박용익원장 재임 중의 문화사업 내용을 보면 대개 전임자가 실시하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실시한 것도 있지만, 경로효친 선양을 위한 청소년 글짓기, 주부교양대학, 관내 유적지순례, 효도관광 등을 시행한 것은 새로이 눈에 띄는 사업들이었다.

재임 중반기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서 출생한 임옥여 의병장을 기리는 사업을 주관하였다. 임옥여 의병장 동상비(銅像碑)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마을



입구, 17번국도 변에 위치한다. 1993년 6월 18일 당시 용인문화원장 박용익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임옥여 의병장 후손과 풍천임씨 문중의 후원으로 건립되었다. 동상은 서양화가 이상학이 제작하였고, 동상에 새겨진 비문은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영석이 짓고 글은 강원대학교 교수 황재국이 썼다. 동상은 2m 높이의 자연석 좌대위에 170cm 크기의 동상을 세웠다. 전면에는 대자로 '義兵將 玉汝 任景宰 像'이라 썼다. 뒷면에는 추모비문을 기록하고 말미에 '1993년 계유 6월 10일(음 4월 29일)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 문학박사 박영석 삼가 짓고 국립강원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황재국 삼가 쓰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박용익원장이 주관하여 건립한 동상비

이 동상비를 제막하면서 풍천임씨 문중에서는 감사의 표시로 문화원에 복사기 1대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동상비는 문화원 이사들의 결의에 따라 문화원의 공식 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원장 개인 자격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항일의병을 발굴하고 그 업적을 기렸다는 점에서 박용익 원장 일생에 가장 큰 업적으로 기려질 기념비적인 사업이었다.

결국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박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원장직을 사퇴함으로써 박용익 원장 시대의 막을 내린다. 그러나 박용익 원장은 용인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초기 단계에서 동호인을 결속시켰고, 당시 참여했던 회원들이 용인의 향토계를 주도하고 있다.

## 정윤준 사무국장

박용익 문화원장이 취임하자 이용준 사무국장의 뒤를 이어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에 임명된 정윤준은 1956년 1월 27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408-25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74년 경기도 광주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광산업주식회사를 다니다가 행정직공무원으로 10년 8개월을 근무하다가 사직하였고, 1990년 9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약 1년 7개월 용인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박용익 원장이 중도에서 물러나게 되자 함께 사임하였다.



### 김기정(金基貞)

1973년생.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 445번지에 거주하였다. 용동중학교, 용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1년 10월 18일 용인문화원 간사로 임용되었으나 1991년 12월 23일 사직하였다.



### 김은미

1971년생. 용인군 구성면 중리 271번지에 거주하였다. 1992년 용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2월 6일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1992년 7월 2일 사임하였다.



### 이연희

1971년생. 용인군 구성면 중리 273번지에 거주하였다. 신갈중학교와 용인여고를 졸업한 후 기흥읍사무소에 잠시 근무하였다. 1992년 7월 25일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임용되었다.

## 5. 송재권(宋在權) 원장 재임기 (발전기)

송재권은 1987년 3월 5일 김정근 문화원장 당시 처음 문화원 이사로 선임되어 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된다. 1941년 9월 2일 생으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서 출생하였다. 1965년 부산 동아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하였고, 1989년 수원대학교 행정학과를 수료하였다.



용인에서 동아서점을 경영하면서 용인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용인로터리클럽회장, 용인문고협의회장, 수원법

원 조정위원, 로터리클럽 3600 지구 부총재 등으로 폭넓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였다. 1991년 9월 1일부터 1995년 9월 1일까지 경기도 교육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제 9대 박용익원장이 재임하던 1991년 3월 5일 용인문화원 부원장에 선임되었고, 1993년 일신상의 이유로 박용



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개소식, 좌로부터 두번째가 송재권원장

익원장이 중도 사퇴하게 되자 1993년 10월 1일 부원장으로서 전임 원장의 잔여임기를 승계받아 문화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고 1994년 2월 28일 총회를 통해 제 10대 용인문화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로부터 1998년 12월 말까지 5년간 재임하면서 이 기간 동안 용인문화원의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 송재권 원장은 1994년 2월 1일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그리고 전문 9조와 부직 2조로 된 연구소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향토문화연구소는 '내 고장 용인의 향토문화를 발굴 및 연구하기 위하여 본 문화원이 부설한 용인향토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소장 과 부소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연구소의 연구과제는 향토사의 발굴 및 기록, 고증 및 연구, 향토사 편집, 편찬, 미개발 향토분야 연구개발 등을 명시하고 초대 소장으로 이응준을 위촉하는 한편, 이인영, 금병윤, 박상돈, 최희면, 정양화, 이종구를 초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조직은 후에 이인영, 정양화 소장으로 이어지면서 매우 심도 있는 향토문화연구 성과를 거양하게 되는데, 이는 경기도 내에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



색이 없을 만큼의 업적으로 남게 된다. 예를 들자면 10여 년에 걸쳐 각 읍면동지와 같은 향토사료집의 연속간행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김정근 원장 시절 시도되었던 관내 주부합창견연대회를 주관하여 주부들의 여가선용 및 취미와 정서생활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송재권 원장 재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당사자가 얘기하였듯이 ‘용인아가씨 선발대회’를 창안, 실시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용인문화원 행사 중에서 ‘제 24회 용인군민의 날 및 용구문화제’의 전야제로 1994년 9월 29일 용인문예회관에서 치러진 제1회 ‘미스용인 선발대회’를 가진 것이 그것이었으며 용인에서는 처음 시도된 공개 행사였다. 미스용인 선발대회는 참가자 전원 야외복, 한복, 비키니 차림 등을 심사 종목으로 하여 진, 선, 미와 포토제닉 상, 그리고 용인농협이 후원하는 미스 백옥 등 5명을 선출, 시상하였고, 제4회까지 회를 거





답하였으나 후에 한복맵시대회로 변경하였다. 제1회 미스용인 선발대회에는 50여 명이 참가하였고 남궁석 삼성 SDS사장으로부터 라디오와 카메라 등을 협찬 받아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하기도 하였다.

처음 시도된 3명의 미스 용인 진, 선, 미와 포토제닉, 용인백옥 아가씨 등은 24회 시민의 날에 시가지 퍼레이드를 갖는 등으로 용인 아가씨로서의 건강미와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특히 1986년 6월 14일에는 MBC교향악단을 초청, 용인문예회관에서 근로자를 위한 연주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 때 삼성반도체로부터 2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관내 대기업에서 문화사업을 위해 후원을 해 준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으며 시간예술을 시민들, 특히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은 문화원 활동에 있어서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기흥의 서천리농악이 출연하게 되자 이때에도 삼성반도체에서 5백 여 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대회참가 경비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용인에서 기업이 지역문화 사업에 참여하는 메세나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송재권 문화원장이 남긴 업적 중의 하나는 문화학교 운영을 시도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문화사랑방으로 명명하고 1994년 7월부터 한



○ 일시 : 1997년 11월 14일 오후 6시  
 ○ 장소 : 용인문예회관 대강당  
 ○ 주최 : 용인 문화원



문화원예술단 회장 정해랑

국무용협회 용인지지부 고문이자 한국민속무용(코리아 엔젤스) 부단장으로 있었던 김진옥의 지도를 받아 용인문화원 예술단을 창단하게 된다. 예술단은 정해랑을 회장으로 추대하였고, 임순자가 부회장을 맡았으며 황규분이 총무를 맡았다. 단원으로는 조종남, 김순자, 안기수, 이연호, 안옥수, 주정임, 남상립, 안영순, 김윤경, 김정옥, 김보형, 강옥자, 유태정, 유명희, 김혜경, 김충자, 김성자 등 20여 명으로서 이들은 순수 아마추어 가정주부들이었다. 1994년부터 꾸준히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 1997년 11월 14일 용인문예회관 무대에 서게 된다. 이들이 무대에 올린 작품은 화관무, 사랑가, 흥과 멋, 장고춤, 선녀무, 부채춤, 강강수월래 등의 전통 한국 무용이었으며 용인문화원 사물놀이 회원 배소희, 배정임, 최정순, 김귀자, 윤미애 등이 출연하여 사물놀이와 웃다리 농악을 선보였다.

예술단 창단 이후 최초로 무대에 오른 작품이었지만 상당한 기량을 보였고 후에 러시아로부터 초청을 받아 국제무대에도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사실 용인에서 용인문화원 예술단이 창단되기 이전에는 순수 한국무용을 연구하고 공연한 단체나 개인이 없었다.

이후 예총이 설립되자 회원단체가 예총산하로 흡수되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 용인문화원은 문화예술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용인군이 시로 승격된 후 1996

년 처음 맞이하게 되는 제1회 용인시민의 날 및 제11회 용구문화제 기간중에 용인문화원 향토 미술인들의 초대작가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가 통상적으로 제8회째 맞이하는 행사였다. 이후 용인문화원 미술인회는 1998년에 이르러 한국미술인협회 용인지부로 발전하게 된다. 그동안 8회로 이어진 초대전은 해를 거



▶ 사진: 생각하는 소녀, 브론즈 전철문작



▶ 사진: 유희민속마을 허만갑작

듬할수록 회원도 늘어났고 그들의 기량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여 회원수도 21명으로 늘어났다. 당시의 작가들이 이제는 모두 중견 미술인이 되어 예술계에서 활동하면서 명성을 얻고 있는 것도 문화원에서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으로 작가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전시 및 예술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 일말의 기여가 있었다고 하겠다.

송재권 원장의 사회활동 사항 중에서 수원법원 교정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하나 꼽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입지에서 기인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문화원에 ‘청소년 무료상담실’을 운영한 것은 이례적인 활동이었다. 물론 청소년 문화가 문화사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착안하여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카운슬링을 통하여 바른 길로 선도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았다고 볼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서 가사조정위원으로 년 5회 이상 조정업무(이혼가정 상담 10년, 1년 5회 이상 팀장)를 보았다. 문화원은 사람이 바뀌면서 나름대로의 취향과 마인드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착상되고 추가되면서 발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점을 운영하던 송재권 원장은 책의 소중함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7년 9월 1일 문화원 3층에 작은 도서관을 열고 소장하고 있던 장서 5천권을 기증하면서 사비로 책장 4개를 동아서점의 이름으로 기증했던 일이다.





책 속에 미래가 있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1만여권에 이르는 장서를 구비한 문화원의 작은 도서관에는 방과 후에 찾아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문화사랑방을 열어 자체 운영하던 중 1998년 3월 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연간 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첫 사업으로 '주부문화대학'을 개강하는 한편 농악을 장려하기 위하여 풍물반에 장고와 쟁가리 등 농악에 필요한 악기 일습을 기증한 바 있는데 이 풍물반에서 배정임, 노은경과 같은 중견 농악 기능보유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문화학교의 지정에 따라 1998년 11월 1일, 문화원 2층 강당의 개조사업을 완료하게 되는데 첫째는 방음 시설을 갖추어 주변으로부터의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 2층 강당에서 풍물연습을 할 때면 징, 쟁과리 등의 소음으로 이웃 대동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을 정도였고 주변 사무실에도 소음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 참나무목으로 플로어를 깔아 재즈댄스나 무용으로 올리는 진동을 막았다. 문화원 이층의 다목적실 보강사업이 완료되어 문화학교 회원들이 불편 없이 연습할 수 있게 된 것도 눈에 띄지 않는 하나의 업적으로 볼 수 있다.

용인이 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유입된 사람들에게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용인사람의 일원으로서 동화되게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는 전통문화나 문화재와 같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이해시키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된 문화 사업이 각지에서 용인으로 유입된 새 용인 사람들에게 향토순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문화원의 재정상 향토순례자를 모집하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즈음 삼성반도체 봉사단에서 향토순례 참가자들 전원에게 도시락이나 지정 식당에 점심을 마련해 주는 한편 순례자 이동을 위한 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삼성반도체 봉사단에서는 정기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정화사업을 위해 노력봉사를 해주는 등으로 지역사회 문



화재 보호와 문화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후원으로 문화원에서는 적게는 월 1회, 많게는 2·3회씩 향토순례를 실시하여 새롭게 용인사람이 된 많은 사람들에게 용인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후에 용인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금까지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원에서 '내 고장 용인 문화유산 총람'을 간행할 때 삼성반도체에서 7백만원을 후원해 준 것 등에서 송재권 원장 당시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문화사업을 전개한 것도 전에 없었던 패턴이었다.

송재권 원장의 임기 말년인 1998년 2월 정기총회에서 대형사고(?) 한 건이 발생



1998년 2월 19일 용인문화원 신갈분원 개원식

하였다. 전국 문화원 어느 곳에서도 시도해 본 일이 없는 문화원 사상 초유의 '신갈분원 설치 건' 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문화원 정관을 개정하자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정 승인된 정관에 의하여 신갈분원이 설치되었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였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신갈분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통과시키고 김문향을 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결의하였다.

절차와 규정이 어찌되었든 신갈 분원 설치 건이 가결된 후 분원장 김문향은 '민속놀이 두레싸움 보존회', '용인농악회', '사단법인 한국농악보존협회 용인시지회' 를 회원단체로 영입하고 1998년 2월 19일 개원식을 갖는다. 규약, 조직, 재정 등은 완전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였고, 본원에서 사무비를 보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였으며 회원은 8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분원설치 운영은 2년여 지속된 후 김문향이 문화원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폐원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1개 시에도 문화원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공민관이 여럿이 있다. 용인에도 3개 구청이 있어서 문화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한다면 향후에는 일본과 같이 분원이 있어야겠지만 송원장의 분원 설치 시도는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기록될 것 같다.

송재권 원장은 교육위원과 용인문화원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로터리클럽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봉사활동과 독서지도, 문고협의회장, 교정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1994년 지역사회 개발부문을으로 경기도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후 임기를 마치고 제11대 이현규 원장에게 바톤을 넘기게 된다.

1986년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 김윤후 승첩 가장행렬을 처음 발굴하여 오늘날에도 용구문화제를 더욱 빛을 내고 있다.

### **김용태 사무국장**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144-9번지 상우빌라 102-101호에 거주하였다. 1997년 2월 25일 용인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었고 1998년 12월 퇴임하였다.

### **이은정**

1974년생. 용인읍 김량장리 325번지에 거주하였다. 용인여중·고등학교를 마치고 1994년부터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임용되었다.

### **송혜경**

1975년생. 용인군 외사면 가창리 623번지에 거주 하였다. 백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3년 12월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임용되었다.

### **주인자**

1961년생.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우남아파트에 거주하였다. 1997년 1월 1일 용인문화원 사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송재권, 이현규, 이인영, 홍재구 원장대를 거쳐 현 이종민 원장 체제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6. 이헌규(李憲珪) 원장 재임기(도약기)

1998년 송재권 문화원장은 결원이 생긴 문화원 이사로 이헌규를 영입하였다. 문화원 이사로 영입된 이헌규는 1937년 1월 18일 지곡리에서 출생하였고, 줄곧 그곳



에 거주하였다. 1955년 수원중학교를 졸업한 후 1959년 태성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이듬해인 1960년 대협건설주식회사, 1964년 동양미싱주식회사 등의 사원 경력을 거쳐 1976년 (주)삼양전자를 설립한 후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후에 모 대기업으로 흡수된 후 신원여객 이사, 유한정밀 회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1990년부터 98년까지 9년간 수원의 동남보건대학 상임이사, 동 대학 재단이사장, 신안금

고 이사장 등으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지향장학회 이사장(현 고문), 가목장학회 이사를 맡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 주는 등으로 육영사업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헌규가 용인문화원에 등장하게 된 것은 별도의 동기가 있었다. 본래 수원에서 생활의 기반을 닦은 이헌규는 수원문화원장과 수원시장을 지낸 심재덕과는 한마을의 선후배 사이로 매우 절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심재덕이 수원문화원장 임기를 마치고 수원시장으로 출마할 즈음, 선배였던 이헌규에게 수원문화원을 맡아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헌규는 “고향인 용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인인 김종기(후에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을 역임)를 추천하였다. 고향인 용인에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데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 한 사연이 있었다.

1960년대 누구나 겪은 가난이었지만 이헌규도 어린 시절에 유복자로 태어나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 몹시 곤궁하여 수원중학교를 마친 후 곧바로 진학하지 못하고 가사에 종사하고 있다가 한 두 해 묵은 다음 태성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959년 3학년 졸업 때까지 지곡리에서 삼가동 궁촌을 지나 먼거리를 걸어서 통학하였고, 월사금을 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된다.



이듬해인 1960년 취업(공무원) 위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월사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발급을 거절당했다. 마침 재학시절의 담임선생이 사정을 듣고 “좀 기다렸다가 나를 보고가라.”고 말한 후 졸업증명서를 대신 발급해 주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격려를 해주더라는 얘기가.

그 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수성가하였다. 회사 사원으로부터 경영자로 올인하다가 “열심히 돈을 벌어 갚으라.”던 담임선생님의 말씀까지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수원 중앙 라이온스 회장, 309-C지구 국제로터리클럽 부총재, 대학교 이사장도 역임하였다.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비로소 과거를 돌아볼 겨를이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학비를 못내고 졸업해야 했던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향에 장학회를 만들었고, 지곡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가로등 설치, 마을의 쉼터로서 정자(亭子) 건축, 마을회관, 경로잔치와 효도관광 등 적지 않은 공헌을 하게 되면서 독지가의 길을 택하게 된다.

한참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때 고향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항이 출생지 지곡마을에 있는 그의 송덕비에 새겨져 있다.

송덕비에는 향리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내용, 이현규의 가계, 경력, 평소 지니고 있는 애향심과 효친사상이 돈독했음을 적시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원 이사로 있을 때에는 이강수 태성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이사로 있었음을 알았고, 학교의 행사 때마다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다소나마 마음의 짐을 벗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수원문화원장의 자리가 주어지는 기회도 있었지만 문화원장, 혹은 문화 사업에 기여할 바에야 기왕이면 조금의 성의나마 그가 태어난 용인을 위해서



이현규선생 송덕비(기흥구 지곡동 소재)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었고 이와 같은 뜻이 우연하게 김문향 문화원 이사 등에게 알려지게 되자 송재권 원장 재직시에 이사로 추대되었다가 당시 부원장이었던 김영인이 중도 사퇴하였으므로 1997년 2월 21일 제 39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보선하게 되었는데 이 때 김영인 부원장의 후임으로 당시 동남보건대학 이사장이었던 이현규를 부원장으로 추대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1999년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제 11대 용인문화원장으로 추대되었고, 그로부터 2년여의 임기를 수행하던 중 당뇨 증세와 더불어 심장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절대안정”을 주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문화원장의 직무에 전념할 수 없음을 들어 2001년 2월 28일 잔여임기 2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부득이 중도 사임하게 된다.

비록 2년여의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사재를 들여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고, 이때까지 용인문화원에 에어컨이 없음을 보고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대형 에어컨 1대를 비품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현규 원장은 경영인 출신답게 우선 문화원 환경부터 개선하려 노력하였다. 그가 지향한 문화원사업의 계획을 보면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혁신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다수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현실적인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 아래 “기존 시설을 처분하여 현대적 다목적 문화시설로 확대 신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현규 문화원장 대에 와서도 문화원을 이전 신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문화원사의 입지조건을 개선하여 문화원의 환경 및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문화원장으로서 재임 중 가장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가 문화원장으로 취임하자 문화원 임원 중 50% 정도인 12명을 신임이사로 보강하였고, 1999년 2월 10일 '용인문화원장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가장 민주적인 원장 선거방법과 절차를 명문화했던 것도 그간 부실했던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해에 원장으로서 처음 맞이한 '용구문화예술제'에서 이 대회를 전국적인 행사로 키울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보자는 방안 중의 하나가 몽고 제2차 침입을 화살한 대로 물리친 '처인성 승첩 기념 궁도대회'의 창안이었다.

본래 중국의 중화사상 중에서는 주변 민족들을 지칭할 때 남만(南蠻), 북적(北狄), 서용(西戎)이라 하였고 우리나라를 동이족(東夷族)이라 하였다. 동이족에서의 이(夷)는 종대종궁(從大從弓)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夷는 큰 '大'자와 활 '弓'자를 합쳐 놓은 것이다. 말하자면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화살한 대로 물리친 일이나 처인성에서 김윤후 승장이 화살한 대로 세계를 정벌한 몽골군 원수 '살리타이'를 물리친 일 등은 결코 우연치 않은 쾌거였고, 이와 같은 전통의 맥이 지금의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양궁대회 전 종목을 휩쓸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 특유의 지향 감각이 뛰어난 동이족의 근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를 살려 '양궁'의 반대 개념으로 국궁(國弓)도 전통의 맥을 잇고 이의 전통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해 보자는 의미와 취지는 매우 좋은 발상이었고 그래서 '처인성 승첩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가 용구문화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행사도 2·3회 단발 행사로 끝을 맺었지만 지금까지 매년 지속되었더라면 전통 있는 전국 대회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당시에 도 처인성 인접지역에서 이 대회를 치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



행되지 않았다. 어쨌든 용구문화제 사상 전국대회로 행사를 치렀던 것은 이현규 원장 당시의 처인성 승첩기념 국궁대회가 처음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2001년 10월 이동면 서리백자요지 및 경희대학교



교 도예관에서 실시된 '세계막사발 장작 가마 축제'가 그것이다. 용인예총과 공동 주관하여 10여개의 외국 도예인을 비롯하여 학생, 작가, 교수, 일반인들이 참가한 이 축제는 도예전통을 되살리는 행사라는 의미에서 각종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도자사에 있어서 시흥, 고양, 양주와 함께 용인은 초기 청자 발상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고려백자의 발상지라는 것은 국제 도자사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따라서 용인은 우리나라 도자사(陶瓷史)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고장이라는 점, 이 때문에 막사발 축제와 같은 콘텐츠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자문화에 관한 인식이 일천(日淺)한 풍토에서 자리를 잡아 뿌리가 내리게 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향토 축제의 소재였다.

그리고 현대문화로부터 멀어져 가는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일을 특정인이나 하는 문화로 치부되던 인식 속에서도 시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지금도 치러지고 있는 행사가 한복맵시대회인 것 같다.



물론 이 대회는 송재권원장이 1997년 최초 창안 시행한 행사였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우아하게 다듬어지고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아 왔다. 그런데 이현규 원장 당시의 제4회 대회(2000년 9월 30일)에서는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때 참가자 전원에게 '한복 바르게 입기' 소책

자를 만들어 '여자의 웃입기', '남자의 웃입기'를 계도 했다는 점이다. 참여 인원도 130여 명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어떻게 한복을 입어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태가 나게 되는가를 삽화를 곁들여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에게 전통의 옷차림을 섬세하게 알리려 했던 점에서 이 행사를 일과성으로부터 교육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현규 원장 재임 중인 2001년 3월 3일 문화원 회원단체로 '솔잎봉사단'을 창단한 것도 전에 없었던 일이었다. 25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의 회장은 이동일이 이끌었는데 주부들이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양로원이나 불우이웃, 또는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니며 노력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금을 모아 김장 담그기 등을 실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문화원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도 하였다.

이현규 원장 스스로가 연고지인 지곡리에서 연례적으로 경로연을 베풀었고 효도관광을 실시하는 등의 트렌드와 일맥이 통하여 문화원의 솔잎봉사단의 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해에 김문향이 기흥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두레싸움'을 발굴하고 '기흥농악보존회'에서 이 놀이를 재현하였고,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발굴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도 거양했으며 이현규원장은 이 놀이를 위해 적지 않게 사재를 들여 후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술적인 행사로는 '고려시대와 용인' '반계 유형원'에 관한 학술대회를 주관하였고, 특히 박곡사지, 문수사지, 서봉사지 등의 사지를 발굴하여 자료로 남겼다. 이외에 '용인시사'를 착수하는 한편, 기흥읍지를 완간하였고, 전통혼례와 세시 풍속놀이를 재현 하는 등의 치적을 남겼다.

그리고 경영인(CEO) 출신답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문화원의 부채, 즉 가건물을 짓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모두 소진시켰을 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없이 대물림된 부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방만한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우선 문화원 운영에 내실을 다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후임 문화원장 이인영에게 이의 과제를 넘겨주게 된다.

박용익 원장 임기 동안 미술대회 공모전을 하였으나 송재권 원장 재임기간 동안

에는 태성중학교 이강수 교장, 이상학 화백등 문화원 이사 두 분을 모시고 초,중, 고등학교 미술사생실기대회를 에버랜드 2회(참석인원 360명, 에버랜드측에서 기념품을 전학생들에게 제공함), 민속촌에서 2회, 경기도 박물관에서 3회, 한국미술관에서 4회 개최하였다. 입상작은 문화원에서 전시를 가졌으며 당시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였다.

### 이상정(李相亭) 사업과장



이상정은 2000년 1월 20일 용인문화원 사업과장에 임명되었다.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13번지 두진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1960년생으로 1985년 강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시인으로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이인영이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시인 이은주와 함께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의 창립에 참여하였다. 용인예총을 설립할 때 일시간사를 맡았다. 이현규 원장 재임기간 사업과장으로 기여하였다.

## 7. 이인영(李仁寧) 원장 재임기(도약기)



이인영은 1943년 충남 아산시 좌부동에서 출생하였고 1960년 선친의 고향인 용인으로 이사하였다. 1964년 태성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65년 공무원으로 발을 들여 놓은 후 용인문화회관 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은퇴하였다. 처음 공직생활을 하면서부터 용인문화와 인연을 맺게 된다. 과거 문교부에서 관장하던 문화재관리 업무가 당시 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용인군 공보실에 근무하던 이인영이 용인교육청에서 문화재관리 업무를 직접 인수받게 된다. 이로써 퇴직 시까지 거의 공직생활을 용인문화와 관련된 업무로

일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용인 관내에 산재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등으로 풍부한 문화재 관련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용인의 향토문화 방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입지를 갖춘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86년 10월에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에 발탁된 후 경기도향토사료관 설치 업무를 맡아 동년 12월 23일 개관하였고 1990년에는 경기도박물관 건립계획을 입안하고 그 실무를 맡아 용인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후 곧 용인으로 내려왔으며 1994년에는 용인문화회관에 ‘용인군향토사료관’을 기획, 직접 설치하기까지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인영원장의 저서 19권의 향토문화자료를 집대성하였다.

비록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30여년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왕성한 지적욕구로 향토문화 연구에 심취하여 19권에 이르는 저서를 냈으며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1986년에는 경기도문화상(학술부문)을 수상함으로써 ‘경기도문화상’이 제

정 된지 25년 만에 용인사람으로서는 그가 최초 수상자가 되었고, 일반 공무원이 이 상을 수상한 것도 최초였으며 향토사를 연구하여 학술상을 받았다는 것도 최초였고 고졸자가 학술상을 받은 것도 그가 최초였다. 그 중에서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한 전국 향토사 논문공모에서 “몽고 제2차 침입과 처인성 대첩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응모하여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1992년 11월 17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박영석)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98년에 발표한 “조선시대읍호강등제도에 관하여”



라는 논문은 ‘경기향토사학 제3집’ 첫 머리에 게재되어 있고, ‘초기백제와 용인’에 관한 논문은 ‘기전문화’ 학술지(1997)에 게재되어 기전문화연구회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결과 향토문화와 향토사 연구의 위상을 학문적 수준으로 이끌어 낸 최초의 인물이 된 셈이었고 향토사학자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이외에도 ‘호산인장고’, ‘일호남계우인보’, ‘충렬서원중수기 소고’, ‘석비고’ 등 논고 다수가 있다.

그가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한수 이남의 처인구 포곡면 가실리 향수산에서 까막딱따구리를 발견하여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지정받게 한 것을 비롯, 우수초상, 오명향 초상, 오명향 양무공신교서, 남재왕지, 남은의 분재기 등의 문화재를 발굴하여 국가보물로 지정 받았고, 문수산 마애보살상의 발견과 경기도문화재 지정, 용천리의 고려시대 5층 석탑재를 발견, 복원하는 등 경기도 지정 문화재를 비롯하여 향토유적에 이르기까지 그에 의하여 빛

을 본 향토화유산은 총 30여 종이 넘는다.

특히 용인의 '독립항쟁사'를 연구하여 3·1만세운동 당시 용인의 선열들께서



13회에 걸쳐 1만 3천 2백여 명이  
 결기하였다는 통계적 수치를 처  
 음 고증하였고, 이 중에서 사망  
 35명, 실종 139명, 부상 및 상해  
 502명, 수형 65명 등 모두 741명  
 의 사상자, 실종자가 발생하였거  
 나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당시 경기도내의 22개 군 지  
 역 중에서는 김포에서 15,000명



이 결기하였고 그 다음이 용인으로서 13,200명이  
 결기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바, 당시 용인군 인구가  
 3만 여명이 조금 넘는 숫자에 비한다면 참가 비율  
 면에서는 용인이 제일 컸다는 점에서 용인의 독립  
 의지와 애국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투철했음을 입  
 증하는 한편, 단발령 이후 용인에서 의병에 투신한  
 40여 명의 항일 의병의 행적, 국내외에서 활약한 38  
 명에 이르는 항일 우국지사 등을 밝혀내어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마침내 '용인군독립항쟁

기념탑'의 건립을 이끌어 '내 고장 용인' 선열들의 위업을 기렸다.

특히 독립항쟁사를 간행하고 '향토사학회'에서 이종구 선생 등과 함께 1천여만  
 원이 넘는 독립항쟁기념탑 건립 성금을 모금하면서 판권을 기념사업회에 넘겨주  
 기까지 하였다. 그가 용인지역사회에 기여한 업적 중에서 1992년 문화부 예산 3억  
 원을 지원받아 역북동 명지대학 입구에 용인최초 군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오랜 숙  
 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그의 힘이 컸다.

1998년 4월에는 만학도로서 '순수문학'에 희곡으로 데뷔하여 신인상을 받았고  
 동년 8월에는 다시 '문예사조'에 수필로 데뷔하여 또 신인상을 받음으로써 한국문

인협회 회원이 되어 희곡분과위원의 자격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문예회관 관장 재직 당시에는 한국문인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의 창립을 주도하였고, 한국예총 용인지부 결성을 이끌었으며 제 2대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장을 맡고 있던 중 이현규 문화원장의 후임으로 제 12대 용인문화원장을 역임하게 된다. 그가 문화원장으로서 첫 번째 한 일은 4대 문화원장이 바뀌는 동안 누적되어 온 5,410만원의 문화원 부채를 청산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과장(이상정)과 총무(정동근)등의 직원을 감원하였고, 그가 맡고 있었던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을 10개월간 겸직함으로써 사실상 3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임대수입을 매월 적립시키는 한편 연구소장 수당 월 60만원을 수령, 문화원 경상비로 충당하여 고질적인 만성부채를 해결하였다.

용인문화원장에 취임한 후 특별교양반 2개 강좌 100명, 일반교양 취미 6개 강좌 190명, 실기교양 7개 강좌 265명, 전통문화 4개 강좌 120명, 향토테마순례 10회 640명 등 20개 문화교양 과정반을 개설하고 1,315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맹렬하리만큼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은 2001년 10월 일본의 문화실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후 부터였다. 단 일주일여 체류 기간이었지만,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보니 그들과 우리와의 국민성과 문화 감각의 격차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이 왜 선진국인가를 인식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도쿄의 중앙부에 위치한 미타가시는 도쿄도(東京都) 산하 12개 구(區) 가운데의 하나로 면적 16.5km<sup>2</sup>에 인구 16만 7천 여 명이 거주한다. 우리의 문화원과 같은 공민관(公民館)에서 실시하는 전통문화강좌 1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예산이 우리 돈으로 1천만원이며 생애교육(生涯教育: 우리의 평생교육과 같음)과 사회 교육관에 지원되는 일년 예산이 2억엔(20억, 당시의 통화비율) 정도였다. 2001년 10월 말 현재 공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연인원 10만 2천명으로 거주 인구대비 62%가 참여하였다는 말이 된다. 공민관에 투입되는 일년 예산이 87억엔(870억)



**용인군 독립항쟁건립비 성금 결산보고**

○ 1989. 4. 4 부터 1990. 12. 30 까지 총 419명이 참여하여  
성원의 주신 결산금액 ( 187 - 41 - 642,494 )

● 수 입

금 액 : 일원육십칠만육천원 ( 10,676,000 원 )  
예금이자 : 구민발전특별회계 ( 98,801 원 )  
합 계 : 일천칠십칠만사천팔백십원 ( 10,774,801 원 )

● 지 출

독립항쟁사발간비 : 육백오십만원 ( 6,500,000 원 )  
( 발행부수 : 2,000권 ( 1판 ) )  
조사 및 편집비 : 오십만원 ( 500,000 원 )  
차 문 용 품 비 : 이만일천이백십십원 ( 21,270 원 )  
건 립 보 고 서 : 5,000 × 100부 = 500,000 ( 상설판권 )  
경 리 보 고 서 : 200,000 ( 이십만원 )

합 계 : 칠백오십이만일천이백십십원 ( 7,521,270 원 )

수 입 : 10,774,801 원  
지 출 : 7,521,270 원  
잔 액 : 3,253,531 원

○ 독립항쟁사 발행부수 2,000권중 1,017권은 이미 배부(판매)가 되었고 923권이 현재 재고 보관중



이라는 것만 보아도 이들의 문화 투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만 하지 않은가? 또 교토부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27만의 아와타시에는 공민관이 7개소나 된다. 아와타시에 비하면 인구 85만여의 용인시는 대도시에 속하는데, 그들의 기준으로 친다면 용인에는 열 두 개 정도의 문화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는 못할망정 용인시 문화예산이 시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볼 때, 그런 점에서 문화정책에 관한 한 우리 용인은 일본에 비하여 20~30년 정도는 뒤떨어져 있다는 점, 그 현실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대한 문화에 대한 투자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자기들 고장의 역사뿐 아니라 이웃나라(한국, 중국)의 역사, 문화, 또는 서구문명의 실제 등을 체험적으로 익히고 받아들여 교양을 넓히고 지식을 습득하며 취미를 만끽하여 삶의 질을 윤택하게 이끌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의 상대는 일본”이라는 경쟁의식이 그의 뇌리를 파고들면서 문화사업의 지향점을 설정한다. 용인문화원 사상 처음 현수된 ‘용인문화원 3대 문화지표’의 설정이 그것이었다. 다음은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문화지표의 지향점에 관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첫째 ‘창조하는 문화’를 위하여는 개성 있는 지역축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포곡읍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창포축제’ 라든가 모현에는 포은선생을 중심으로 ‘유림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고, 남사면에서는 ‘항몽승첩제, 기흥에서는 ‘사은제’, 수지에서는 ‘정암제’와 같은 지역 축제를 통해서 주민의 공동체의

### 이인영의 3대 문화지표

1. 창조하는 문화
1. 공유하는 문화
1. 교류하는 문화



식을 발현하고 전통을 숭양하게 하며, 문화단체를 활성화하여 용인이 낳은 제2, 제3의 홍사용을 배출하자는 것이다. 꿈 많은 청소년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경연, 경창, 공모 등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1914년 '용인 600년'에 이르는 기념사업의 구상도 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데 용인역사 600년을 계기로 '문화로 먹고사는 시대'의 전기를 창조적으로 마련하자는 얘기다.

둘째, '공유하는 문화'를 위해서는 용인의 유서를 가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유서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해오는 유서와 산, 하천, 언덕, 가옥 등 자연계와 관련된 유서가 있고, 이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형상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인사람으로 알려진 남이 장군의 응시를 새긴 시가비(詩歌碑)를 건립한다든가, 약천 남구만의 시가비를 건립하고 포은, 민영환, 이한응 열사와 같은 선열의 동상, 3·1만세 항쟁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의 전적지에 대한 표석, 청동거푸집 발견 장소의 사적(史蹟公園)공원 조성, 기타 용인사람의 긍지를 심기위한 형상화 사업 등으로 공유하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완성도 높은 기록문화를 위해 '향토문화대관'을 간행하자는 것이다. 그가 향토문화연구소장 재직 시 '읍·면지'의 간행을 착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용인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사회교육 시설과 컨벤션 센터와 같은 공유시설, 야외음악당, 문화광장 등의 문화시설을 이끌어내자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 공유하는 문화의 요체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의 문화관은 거시적이며 그의 문화마인드는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셋째, 문화는 교류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우리문화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시



일본공민관시찰단과 함께, 우측 뒷줄 세 번째가 이인영 당시 원장이다.

민 사이, 지역과 지역 간, 더 나아가서는 국제교류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국제화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월한 문화는 지키고 발전시키며, 동서와 고금이 소통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들어 가는 문화의 소재를 제시한다.

말하자면 ‘용인시민 소장 문화재전’, ‘우리집(문중) 가보전’, ‘용인명사 애장품전’, ‘용인시민 숨씨자랑’, ‘용인시민 서화 유목전’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면 시민 상호간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용인 문화원 합창단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음으로 지역 순회연주회, 연합합창제, 국내외 교환 방문 연주회 등을 통해 문화교류의 채널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이 공유하는 문화원,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원, 교양과 지식의 산실로 사회교육에 공여될 수 있는 문화원, 고장 특유의 향토문화가 교류되는 문화원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 그의 포부였고, 이를 위해 3대 문화지표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포부는 한갓 구상으로 그친다. 2년여의 짧은 재임기간 긴축재정 운영으로 만성부채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20여개 문화교양 과정반을 개설하고 1,300명이 넘는 회원을 참여시켰다는 것으로서 어느 원



박창희씨와의 대화중 합창단결성 의견교환

장 못지않게 의욕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 중에서 용인문화원합창단을 창설한 것이 지금까지 존속되면서 전국경연대회를 석권하리만치 대단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후임 문화원장들이 이를 뒷받침해준 결과였지만 이로써 용인문화원과 용인시의 위상을 전국에 들어내게 되었다. 이

와 같은 것이 곧 문화의 힘이라고 한다. 그는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며, 오늘의 현실은 과거가 물려준 유산”임을 강조한다. 과거와 현실의 끈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용인역사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고, 용인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역량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육성 과 거시적인 문화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향후의 과제로 제시한다. 그리고 용인6백년 기념사업을 통해 ‘컬처노믹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 즉 ‘문화가 도시를 먹여살리는 시대’를 위한 계기로서 이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용인문화원의 도약기(跳躍期)에서 한 축을 담당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구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부력은 국민이 밥을 먹을 만하면 되고, 나라의 강력은 적을 물리칠 만하면 된다. 다만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야말로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김구선생이 그토록 희구하던 문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제는 문화 사치를 즐길 때가 되었다는 얘기다. 문화원은 모든 시민이 문화 사치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제시하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종규(金種奎) 사무국장

1950년생,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김종규는 1969년 태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0년까지 용인군 지방행정공무원을 역임하였다. 그 후 민정당 경기 제 7지구(용



인, 여주, 이천) 총무와 조직부장을 역임하였고, 13대 김정길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박철언 장관 보좌관, 자유민주연합 용인시 지구당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정치계를 두루 거친 후 2002년 1월 6일 용인문화원 사무국장에 임명되면서 동년 6월 30일 용인문화원 최초의 제 1기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전임 사무국장 이웅준의 뒤를 이어 사실상 이인영 문화원장에 의하여 발탁된 후 문화원의 '조직 관리'에 탁월성을 발휘하여 20여개 문화교양 과정반 1,300여 명의 회원을 조직화함으로써 그의 잠재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로써 용인문화원은 회원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회원 단체로서 용인문화회를 끌어들이고 합창단을 창단하여 후에 전국합창경연대회에 나아가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용인과 용인문화원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평소 깔끔한 성격이어서 문화원의 환경을 변모시킴으로써 문화원의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한편 용인문화원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간 3만여 명의 방문자가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전자도서실을 개설하여 누구나 용인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2007년 6월 30일까지 용인문화원에 몸담고 있는 동안 문화학교의 각 과정별로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가족들의 숨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였다. 한편 일본의 '사카현'과 문화교류를 추진한 바 있고, 2003년 6월에는 이달의 인물로 선정된 포은 정몽주선생의 666주기를 맞이하여 학술대회와 포은 문화제를 기획하여 용인의 대표적인 인물축제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농악보존회 용인시지부부지부장,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용인2지부 이사, 할미성대동굿보존회 이사, (사)용인미래포럼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 정치, 문화계를 두루 아우르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공으로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표창,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장 등을 수여 받았으며 공무원 재직시에는 모범공무원 표창과 효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8. 홍재구(洪在九) 원장 재임기 (번창기)



홍재구 원장은 1987년 용인문화원 이사를 시작으로 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감사 및 부원장을 역임하다가 2003년 2월 경선에 의해 제13대 용인문화원장으로 당선되어 당년 3월 21일 취임하고 2007년 3월 20일까지 4년 동안 직책을 맡았다.

홍재구 원장은 1942년 7월 5일 용인군 구성면에서 태어나 어정초등학교와 수원 삼일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 최고경영자 과정 농축산과를 수료하였다. 1976년부터 홍재농장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용인 청년회의소 회장을 비롯하여 용암로타리클럽 1대, 2대, 13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특히 1990년 용인축산업협동조합장에 당선되어 8년 동안 축협을 이끌어 온 최고 경영자 출신이기도 하다. 1998년에는 정계에 입문하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2000년에 자유민주연합 용인시 갑지구당 위원장을 맡아 국회의원에 출마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원장 직을 수행하며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사 및 부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홍재구 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문화창조의 시대를 맞아 역사문화의 전통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고의 가치임을 역설하며 지역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보존, 보급, 선양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 대의원 제도 도입

취임 후 문화원 조직과 문화사업의 기본 운영 방향인 문화원 정관의 정비를 통해 지역의 문화관계 인사를 적극 영입하여 임원진 30명, 대의원 50명, 중장기발전위원 10명, 연구위원 20명 등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각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문화인들을 대의원으로 영입

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조직력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 용인문화원 중장기발전위원회 발족

또한 용인문화원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으로 2003년 5월 <용인문화원 중장기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용인문화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정하고 학술연구사업, 문화진흥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문화원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수, 예술인, 언론인 등 문화계 인사와 각계 전문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원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포은문화제 신설

2003년 6월, 문화관광부가 '이달의 문화인물'로 포은 정몽주 선생을 선정한 것을 계기로 2003년 6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첫 '포은문화제'를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포은 묘역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고려 말 충신이며 성리학의 태두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학덕과 절의를 본받고 지역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포은문화제는 지방문화원 설립 정신과도 부합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제1회 행사는 국비 1천만원,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이 후원하였다. 주요 행사 내용을 살펴 보면, 첫날은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포은 선생의 사상과 학문”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용인문예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튿날은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천장행렬을 시작으로 묘역 본 행사장에서 고유제, 상산제, 추모제례, 학생글짓기 대회, 전국한시백일장, 기념 공연 등이 열렸다.

제2회 포은문화제는 2004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었는데 행사 내용은 1회와 대동소이했으며 추가된 행사는 6월 13일 포은문화제 기념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회는 포은문화제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후 열리지 않았다.

제3회 포은문화제는 2005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1, 2회 행사 때 미흡

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천장행렬을 위한 대형 상여를 제작하고 추모제례용 복식 일체를 구입하였다. 또 학술대회를 취소하는 대신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함께 개최하여 200여명의 사진작가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제4회 포은문화제는 200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렸는데 이전 행사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직접 주관하던 고유제와 추모제례를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학술행사와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전국진혼굿대회,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상여놀이대회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수지 새마을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진혼굿대회는 수지기독교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론회 등 기독교계의 반발로 용인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였으며 이후로는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 용인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2003년 12월 최초로 용인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홈페이지는 용인문화원을 알리는 가이드 역할 뿐만 아니라 용인의 향토문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시민이나 학생들이 내 고장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고 문화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체계로서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미래정보통신(대표 송희섭)을 통해 구축하였다. 사이트 내용은 문화원소개, 문화원 사업 소개, 향토문화 자료실, 숙제 도우미, 행사안내, 숙제도우미,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등이다.



### 제5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제5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가 용인문화원 주관으로 2004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후원하는 청소년민속예술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문화의 정서를 직접 체험해보는 계기를 갖게 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민속예술을 적극 발굴, 육성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용인시를 비롯하여 고양시, 포천시 등 총 26개 단체팀과 2개 개인팀이 대표로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포천시의 ‘포천메나리 농악놀이’가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용인 대표로 참가한 용동중학교의 오고무는 노력상을 받았다.

‘오고무’는 다섯 개의 북을 무용수가 화려한 의상과 역동적인 몸놀림이 특징으로 10명의 무용수가 장구와 팽과리 장단에 맞춰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오고무는 북틀에 칠해져 있는 오색 단청들과 북안에 그려져 있는 태극무늬 장식으로 한국적인미를 자랑한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1996년부터 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 제1회 ACE철쭉분재축제 개최

용인시의 시화(市花)인 철쭉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1회 ACE철쭉분재축제>를 2005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용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개인 및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철쭉분재를 공모하여 500여점이 출품된 가운데 전국분재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경혜씨(기흥구 보정동)씨가 대상을 수상하고 200만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았다. 금상은 이광종씨

(광주군 퇴촌면), 은상은 김명구씨(강동구 거여동), 동상은 소현씨(분당구 야탑동)가 각각 수상했으며 김혜진씨 외 9명이 입선했다. 하지만 ACE철쭉분재축제는 본래의 행사 개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단발성 행사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 용인문화원 행정타운으로 이전

2005년 10월,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이 완공되고 용인시청이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본 문화원도 문화예술원 3층으로 옮겨 새 동지를 틀게 되었다. 용인문화원이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원사 공간 확보 문제는 본 문화원의 오랜 숙원이었다. 김량장동에 위치한 기존 문화원은 교통혼잡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주차공간이 없어 접근에 문제가 많았으며 낡고 협소한 시설로 인해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문화원의 행정타운 이전은 문화계의 오랜 숙원을 풀어내는 쾌거였다. 2001년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와 문화원 관계자가 만나 문화예술원을 함께 신축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한지 4년여 만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최초로 용인문화원이 마련한 이전 신축계획안에 따르면 사무국, 회의실, 원장실, 향토자료실, 연구실, 연구자료실, 도서자료실, 문화관람실, 문예창작실, 영상정보자료실, 음악감상실 등 총 494㎡의 공간에 문화행정 시설과 연구목적 시설, 문화활동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종합 문화공간을 꾸미겠다는 계획이었다. 더욱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문화원사(文化院舍)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용인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10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 당시의 계획과는 달리 사무실, 회의실, 원장실, 서고 53평만을 사용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용인문화원이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서고의 책장을 비롯하여 쇼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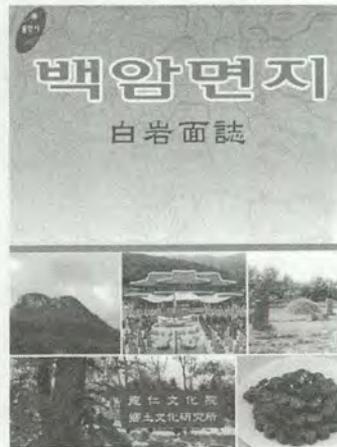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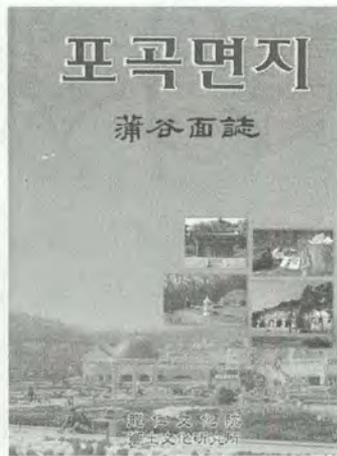


탁자 등 각종 사무실 집기를 구매하는데 1천 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 비용은 홍재구 원장이 전액 부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 후인 10월 21일 문화원 입주식도 가졌는데 문화원 임원 및 축하 인사들로부터 1백 40만원의 후원금과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기부물품이 접수되었다.

## 읍면지 발간 사업

용인시 읍면동 중 매년 1곳을 선정하여 발간하는 읍면동지 발간사업이 연례적인 기획사업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모현면지를 발간하였는데 향토문화연구소 집필위원을 비롯, 편찬위원 등 20여명에 의해 포은 정몽주 선생을 비롯한 명현들의 묘소 등 지역의 역사와 가문, 자취에 대한 기록을 총망라 했다. 총 130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현면지는 제작 방식과 내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한국정신문화원이 향토문화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전국을 망라하는 문화컨텐츠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추진중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표준목차에 따라 편찬되었으며,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또 편찬위원회 산하에 현장조사팀(팀장 홍순석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장)을 두어 새로운 자료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04년에는 포곡면지를 간행했다. 자료조사와 현장답사 등 1년여의 집필과정을 거쳐 발간된 포곡면지는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포곡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천과정과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특히 모현면지 이전 총설을 비롯해 역사 정치 산업경제 보건사회 교육, 종교 인쇄 문화예술 문화재 민속 성씨와 인물 등의 백과사전식 연대기적 나열에서 벗어나 체계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곡지역의 자연환경과 주거지 등을 기술한 제1편 자연과 지리부터 지명유래와 구비전승 자료를 조사, 정리한 제9편 구비전승과 어문학 등 모두 9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선사유적과 석비, 묘역, 금석문, 고문헌 자료 등을 다룬 제3편 문화유산과 제4편 성씨와 인물, 조선후기의 각 마을의 서당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룬 제7편 종교와 문화, 민간신앙과 민속놀이 등을 기술한 제8편 생활과 민속 등이 주목된다.



2005년에

는 원삼면지를 간행하였다. 총 1022면의 양장본으로 컬러화보를 비롯해 풍부한 사진자료들로 채워진 원삼면지는 원삼 일대의 의·식·주를 중심으로 생활민속문화에 중점을 두어 제작되었다. 10년 단위로 발간하는 <용인시지>와 내용의 중복이 많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문헌의존도를 낮추고 현지답사와 구술 등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또한 오랜 농경사회의 생활문화와 노동단위로서 전통문화의 원형질로 평가받고 있는 마을단위 기술방식도 향토문화와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입체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진천 송씨와 신천 강씨, 그리고 전주이씨 덕천군파의 분묘나 인물 등은 종전의 「용인군지」나 기타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 자료를 새로이 발굴한 것들이다.

2006년에는 백암면지를 발행하였다. 급변하는 백암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총체적

으로 집대성한 백암면지는 1067쪽 분량으로 지역 주민들의 구술이 비중 있게 반영되었으며 문헌보단 생활사 중심으로 엮어졌다. 또한 시각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진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도 백암면지의 특징이며, 백암을 상징하는 농경사회의 시장 '백암장'을 집중 조명해 과거와 현재의 시장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 용구문화예술제

2003년 9월 30일, 제8회 용인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제18회 용구문화예술제가 전야제 행사인 한복맵시대회를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9월 29일 용인실내체육관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한복맵시대회는 읍면동별로 학생부 및 일반부 각 2명



씩 추천을 받아 대상 1명, 으뜸상 2명, 맵시상 2명, 인기상 6명, 장려상 6명 등 총 17명에게 300만원의 부상과 함께 시상을 하였다. 이어 30일 열린 처인승첩길놀이는 통일공원에서 출발하여 실내체육관 까지 퍼레이드를 벌였으며 3군군악대를 선두로 8장군, 취타대, 풍물단, 선수단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농악경연대회가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각 읍면동 학생부, 일반부가 참여하여 대상, 우수상, 가락상 등 총 56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했다.

제19회 용구문화예술제는 2004년 10월 6일 개최되었다. 전야제 행사로 5일 용인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한복맵시대회는 기존의 한복 의상만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복과 양장을 함께 평가하는 변화를 시도했다. 명칭도 ACE용인가가씨선발대회로 바꾸고 읍면동별 참가자 18명 중 대상, 으뜸상, 맵시상, 장려상, 인기상을 각각 수여했다. 대상은 구성음의 곽혜미씨가 수상했다. 행사 당일인 6일 11시 처인승첩 길놀이가 통일공원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졌으며 오후 1시부터는 풍물경연대회(얇은반)와 농악경연대회가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제20회 용구문화예술제는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개청을 기념하여 2005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때 함께 열린 행사는 제10회 시민의 날, 문화복지행정타운 개청식, 도시브랜드 선포식, 제5회 용인시 사이버 페스티벌, 2005 건강축제 등이다. 처인승첩길놀이는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통일공원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제7회 한복맵시대회는 기존의 방식대로 한복 의상만을 평가하였다. 한편 제20회 용구문화예술제에서는 제19회 행사까지 운영해 오던 농악경연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제21회 용구문화예술제는 2006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열렸다. 29일 용인문예회관에서 열린 한복맵시대회는 생활한복 부문을 처음 도입하였으나 가족부 2팀, 개인부 7명으로 참가자가 많지 않았으며, 전통한복 부문은 가족 8팀, 개인 31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을 치렀다. 30일 열린 처인승첩 길놀이는 용인시청부터 실내체육관까지 이어지는 약 4km의 구간에서 진행되었다. 기수단, 군악대, 가장행렬, 승마단, 택견시범단, 취주악대 등 총 760명으로 구성된 행렬이 고려말 몽고군을 물리친 처인승첩의 역사를 재현하였다.

## 서양화 교실 아내이아전(我內異俄展)

용인문화원 서양화 교실 이경성 화백의 지도 아래 실력을 닦은 20여명의 회원들이 꿈과 열정으로 그려낸 작품을 매년 선보이는 전시회가 아내이아전(我內異俄展)이다. 아내이아전은 내안에 또 다른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똑같은 생활의



일상속에서 찌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작고 아름다운 배움터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활동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이다. 아내이아전은 2001년 12월 17일 첫 선을 보였으며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 11월 8일 여섯 번째 전시회를 마지

막으로 이경성 화백이 서양화 교실을 떠나면서 막을 내렸다.

## 서예회호대회

서예회호대회는 지역 내 거주하는 일반 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 재능을 가진 참신한 서예인을 발굴하여 서예인구 저변확대를 꾀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에서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1



회 대회는 2002년 10월 27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렸으며 한문부 전은숙씨가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제2회 대회는 2003년 12월 13일 용인문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고 대상은 한문부 최영옥씨가 받았다. 2004년에는 용인예총에서 서예회호가 미술 분야인 까닭에 미술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중복되므로 대회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사를 갖지 못하였다. 제3회 대회는 2005년 12월 18일 용인시청 청소년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대상은 강은숙(처인구 고림동)씨가 받았다. 제4회 대회는 2006년 12월 10일 용인 소방서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윤광미(역북동)씨가 대상을 차지하였다.

## 향토문화유적순례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향토문화유적순례는 1999년 전국 최초로 용인의 지역문화 바로알기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년 4,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2003년에는 총 77회 실시하였으며 3,500명이 참여하였다. 2004년에는 84회에 3,800명이 참여하였고 2005년에는 103회에 4,200명, 2006년에는 107회 실시하여 4,300명이 참여하였다

##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사)한국농악보존협회와 용인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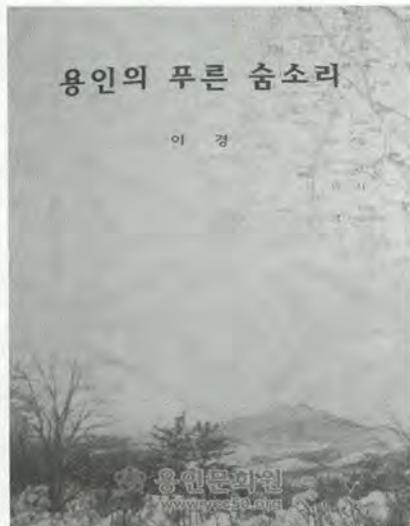
1999년 10월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매년 한국민속촌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쇠놀이, 씨름, 탈춤, 민속놀이, 민속놀이, 민속놀이 등 5개 종목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 대회는 첫날 명인부와 학생부 예선을 치루고 둘째 날에는 본선을 치른다. 2003년에는 5월 3일-4일, 2004년 5월 1일-2일, 2005년 5월 7일-8일, 2006년 6월 17일-18일 각각 개최하였다.

### 할미성대동굿예술제

백제시대 처인구 포곡면 마성리의 한 할머니가 고구려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하룻밤 사이 석성을 쌓았다는 할미성의 유래를 토대로 토속굿을 재현한 ‘할미성대동굿 예술제’가 할미성대동굿보존회 주최로 매년 8월 15일 용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으며 2006년도부터는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주당물림 부정청배를 시작으로 총 14거리로 진행되는 대동굿 행사는 ‘국태민안’ (국가의 안녕을 기원)과 통일을 기원하고 지역의 발전 및 평안,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행운을 축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 ‘용인의 푸른 숨소리’ 발간

용인시 각 읍면의 지명을 소재로 시를 지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2004년 12월 발간된 시인 이경의 <용인의 푸른 숨소리>가 그것이다. 용인의 지명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한 이 시집은 시인 이경씨가 용인의 지명에 길 이름을 붙이고 마을별 지명의 역사적 배경과 특색을 설명하였다. 매회꽃길 기흥읍, 연꽃길 구성읍, 배꽃길 수지읍, 창포길 포곡면, 목화길 모현면, 밤꽃길 남사면, 은행나무길 이동면, 닥나무길 원삼면, 잣나무길 백암면 소나무길 양지면, 하늘길 중앙동, 낙은길 역삼동, 버드나무길 유림동, 학길 동부동 등 각 읍면과 관련된 길을 테마로 하였다. 시집을 발표한 시



인 이경씨는 서울 강남에 20여년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와 느낀 감정들을 시에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그는 시집에 용인지명 사전을 보다가 내 고장을 자랑하고 싶었다면서 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뿌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시집을 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시인 이경씨는 심상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을 하였으며 한국생활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 <겨울장미는 춤지 않다> 등 세 권이 있고 저서로는 <이경 선생님의 아동문학교실>이 있다.

## 2005년 문화가족 워크숍

2005년도 문화가족 워크숍을 2005년 12월 20일 용인시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다. 200여명의 문화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용인지역 문화환경과 축제문화'라는 주제를 발표한 홍순석 강남대 인문학부 교수는 용인을 생각하면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제외하고는 떠오



르는 것이 없다며 70만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정 토론자로 용인향토문화연구소 정양화 소장, 용인예총 최현석 사무국장, 용인시민신문 이상표 사장, 용인신문 박숙현 사장, 용인의제21 김장환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크고 작은 축제가 용인을 대표하지 못하고 실패한 까닭은 축제 기획자들의 용인지역 문화적 환경과 지역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전문성과 지속성, 자발적 참여가 주요 성공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중심으로 기획돼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데다 축제를 일관되게 기획, 운영해야 할 기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용인지역 특색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용인 향토사료항목 목록집 발간

용인의 지역 향토사 연구자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용인향토사료항목목록집>을 발간하였다. 기존의 용인향토사 저작물 57종의 단행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관련 단행본 295종, 논문과 자료해제 등이 81종이다. 분류 항목은 한국중앙연구원의 '디지털향토대전 편찬 항목분류표'에 의거하였으며 정리된 항목은 1만 여개이다. 일반 항목은 가나다 순으로 하였으며 개념이나 현황 등은 해당 항목의 앞에 배열하고 있다. 또 지역은 2006년 12월 현재의 지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백암면, 이동면, 남사면, 처인구 4개동과 관련된 자료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것은 당시 해당 지역의 읍면지가 발간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추후 읍면지 발간 사업이 완료되면 내용을 보완한 개정판이 발간될 것으로 본다.



## 박환신(朴煥新) 사무국장



박환신 사무국장은 1952년 생으로 1968년 수원 북중학교, 수원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광주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이후 고향인 용인으로 전입하여 용인군 문화공보실장, 원삼면장, 용인시립도서관장, 용인시 시민과장, 교통행정과장, 회계과장을 두로 거친 행정통이다. 이후 2005년 10월 지방서기관으로 명퇴하였다. 그 후 2005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테크 과정을 수료하였고, 2006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투자 분석 전문가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후 2003년 문화원 이사, 2004년 용인문화원 문화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농협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문화원이사 재임 중 풍부한 행정경험과 공무원 재직시 문화행정을 맡아 본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제 2기 용인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발탁되어 홍재구 원장 재임 시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였다. 박환신 국장의 평소 지역문화와 문화원의 비전에 관한 소견으로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궤도진입에 맞추어 지방분권과 아울러 지방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고 지역문화를 사업화하는 마케팅 사업은 자치시대의 생존과제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자치시대가 거듭될수록 자치단체장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대하고 있으나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 문화예술 전문가 및 주민의 문화행정참여 의식구조가 미약한 것이 용인문화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문화원 조직의 정예화, 향토문화연구소 지역문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각계 문화 분야 전문 인력 신규 이사 영입, 사무국 조직 및 인력확충 등으로 문화원 위상을 정비하는데 힘썼다.

### 유병의(俞炳議) 사업과장



유병의 사업과장은 2006년 10월 21일 김장환 사업과장이 사직함으로써 용인문화원 인사규정 제11조에 의거 2007년 1월 2일 임용되었다.

용인문화원의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총무과장은 기본운영 기획, 예산 재산관리, 직원관리,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처리로 되어 있고, 사업과장은 간행 출판사업, 향토사관리, 도서발간 홍보, 기타 문화사업 편찬 등으로 분장되어 있다. 홍재구 원장 재임시 최초 기구를 증설하고 문화원 업무를 사무국장 산하에 2개 과장을 두었고, 간사를 투여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유병의 과장은 1959년생으로 태성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였고, 1978년 공무원을 시작한 후 2000년 9월 퇴임 후 2007년 1월부터 용인문화원 사업과장으로 4개월 근무하다가 2007년 5월 1일 사직하였다.

## 9. 이종민(李鍾敏) 원장 재임기(재도약기)



이종민(李鍾敏) 원장은 2001년 2월 본 문화원 이사로 위촉되면서 용인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2002년 3월 제12대 이인영 원장 취임과 함께 부원장으로 선임되고 2003년 3월 제13대 홍재구 원장 취임시 중임되어 2007년 3월까지 그 직을 수행해 왔다. 2007년 3월 제14대 용인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이종민 원장은 1944년 7월 12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06번지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규슈탄광에 징용으로

끌려가 모진 고생을 하였으며 6.25 때 제2 국민병으로 전장에 투입되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그의 부모님은 방학이면 자식들을 한문 서당에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다. 그리하여 형은 서울 동국대학에 다니고 그는 중동고등학교를 다녔다.

이종민 원장은 학창시절 4.19 혁명을 맞아 시위 대열에 합류해 광화문과 종로를 누볐고 경무대(지금의 청와대)까지 진격하다가 최루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 중앙청 앞 최초 발포 현장과 피흘려 독재에 항거하는 현장에 있었고 제2공화국 탄생과 혼란을 목격하였다. 5.16군사 혁명 와중에 가뭇과 기근으로 민생은 날로 피폐하고 형이 병마로 시달리게 되자 그는 학업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일을 돕게 된다. 대학을 다니지 못한 아쉬움은 그를 경기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과 미국 알마대학, 수원대 사회교육과정의 생활철학(명리학), 풍수지리, 카이로 프락틱 등을 수료하게 하였다. 또한 가나안농군학교에 입소해 신앙과 농촌계몽 운동의 선구자로 막사이사이 상을 받은 일가 김용기 선생이 이상향으로 꿈꾸던 사상과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1965년 군에 입대하여 백마9사단에 배속되었고 그 부대가 월남전에 투입되자 그도 함께 파병된다. 그곳에서 작전 교육계 업무를 보며 '월남어교육대'에서 현지어



를 배워 작전 민사통역을 담당하였다. 특히 대민지원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68년 구정 대공세 때 부대 내에 박격포가 떨어지고 부대가 포위되어 육로로 나오지 못하고 나트랑 항구까지 헬리콥터로 이동해

귀국선을 타는 스릴도 느껴 보았다. 당시 한국에서는 1.21사태가 일어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회적 혼란의 시기였다.

제대 후 1969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고향인 수지면과 구성면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식량자급 등 농사행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군청 특작계장으로 발탁되고, 농산물 직거래, 화훼단지 조성 등에 힘썼다. 군청에서 근무한지 2년 4개월 만에 수지면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 그의 나이 43세로 최연소 면장이었다. 면장 재임시 '수지면민의 날'을 제정하고 낡은 청사를 지금의 구청자리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분당신도시 개발로 수지에 밀려드는 불법 비닐하우스 철거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당뇨가 악화되어 23년 만에 공직을 마감한다.

퇴직하고 중국연변대학 초청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하였다. 배를 타고 산둥반도를 거쳐 철령, 심양, 길림, 연길에서 교포 양봉석 교수 등을 만나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신해혁명과 국공합작 대장정, 맥아더의 만주폭격과 압록강철교 폭파 현장, 그리고 한국전에 개입한 중국의 입장, 김일성과 6.25때 서울에 입성한 장교들의 생생한 비화를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무대였던 용정 혜란강, 두만강을 접한 도문, 백두산 천지, 동경성 경박호, 주춧돌만 남은 발해 왕궁터, 흑룡강성,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저격한 하르빈 역사 등을 둘러보면서 국가와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역사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길림대학 연길병원에서 중국침술을 배워 필업증(수료증)을 받고 자침까지 하게 되었다. 2년

체류 계획이었으나 당시 중국과의 수교가 없는 관계로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여 3개월 만에 돌아왔다.

중국에서 돌아와 역북동에 상가 건축을 시작으로 수지에 물류창고, 동탄에 소규모 공장 등 8동을 지으며 건축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1994년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역사문화대학 일원으로 썬샤인호(크루즈)를 타고 대마도, 규슈, 나가사키, 후쿠오카, 왕인박사의 유적 고려촌 등 우리 문화를 일본에 전래한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1995년에는 마평동 제일의원을 인수하여 병원 운영에 전념한다. 2000년 병원 확장용으로 구입한 맞은편 빌딩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희성'을 창업하고 예식장을 건축하고 희성웨딩문화원과 희성빌딩을 운영하게 된다. 후에 수원 우만동에 창주빌딩을 인수하여 희성지점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남동에 (주)대도를 인수하여 자동차매매 단지를 운영하였다.



사회활동으로 용인로타리에 입회하여 환갑 나이에 총무를 맡았으며, 관명장학인이 되어 매년 2회에 걸쳐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생활체육 분야에도 관계하여 용인육상연합회를 창설, 용인마라톤의 토대를 다졌으며 환경운동연합, 행정동우회, 전주리씨종친회 등에서도 활동을 하였다. 모교인 문정중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였고, 베트남참전전우회장을 맡아 6년을 끌어오던 참전 공적비 건립에 적극 나서 5개 단체를 아우르는 추진위원장을 맡아 2009년 8월 20일 마침내 준공을 보기에 이른다. 또한 용인복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용인시 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CEO과정을 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술대학 문화



재학과에 입학하여 4년 과정을 이수하고 2010년 졸업을 하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만학도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학인으로서도 당당한 야심을 가지고 있어 2009년

10월 월간 <한국문인>의 시 부문으로 등단하여 시인으로서, 수필가로서 탈고의 꿈을 키우고 있다.

여행을 좋아해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를 두루 여행하였다. 지중해 4개국 여행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천추의 불효자식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또 아프리카 6개국 여행 중에는 한 동네 절친한 죽마고우를 잃기도 했다. 2010년 1월 중남미 8개국 여행에 인류 역사에 찬연히 남아 있는 마야, 잉카, 아즈텍, 아스카 문명을 둘러보고 그들의 흥망성쇠와 그 후예들에 삶과 문화를 온 가슴으로 느끼기도 했다.

그의 다양한 직업과 세계 여행 등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국지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화행정가로서의 마인드를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는 용인만의 독특한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에게 여유와 낭만을 제공하고 용인 600년에 걸맞는 역사와 전통, 미래를 기약하는 일품 도시로의 꿈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문화원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석성산 봉수터 복원, 할미산성 복원, 처인성지 성역화 등 용인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으며, 사비로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하여 문화원 소식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으로써 문화가족들에게 각종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 경기기념물 제25호인 대마도 정벌의 영웅, 이종무 장군 묘역 성역화를 강력히 요청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당을 신축하는 등의 용역결과가 나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포은문화제의 큰 걸

림돌이었던 정몽주 선생 묘소 앞 닭장 부지를 영 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섬으로써 마침내 넓은 행사장 공간을 확보하였다. 2014년이면 용인지명이 탄생한지 600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용인600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였다.



2009년에는 제17회 경기민속예술제를 용인에 유치하면서 용인시 대표로 출전한 '죽전줄보매이'에 사비 1,000만원을 후원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경기도와 용인시로부터 매년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 400년 이상 용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거문중을 결집하여 '용인 세거문중협의회'를 결성하고 조상들의 유물·유



적에 대한 조사와 가풍과 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009년 11월에는 진천문화원과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유래와 전설을 토대로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으며 제주문화원, 전북 부안문화원, 경남 하동문화원과의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또 용인문화원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용인향토문화연구소를 용인문화연구소로 개칭하고 향토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도시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와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 2010년에는 규방공예 등 전통 여성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특화된 체제의 규방문화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전국 최초의 연구소로 전통 여성문화 연구와 교육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어서 이종민 원장이 현재까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용인문화원의 각종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 ■ 신규사업

## 석성산 봉수 복원계획 수립

용인의 진산인 석성산의 봉수대(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 78번지 일원)를 복원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충주대학교에 석성산 봉수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였다. 용역을 수행한 충주대학교 백종호 교수는 2009년 2월 13일 용인시청 철쭉실에서 용인 석성산 봉수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갖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과 함께 보다 정밀한 발굴조사를 거쳐 석성산 일대에 대한 보전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179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종합정비 추진체계와 석성산 일원에 대한 보호·관리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단계적으로 석성산 봉수대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첫 해인 2010년에 발굴조사 및 토지 매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軍장병 용인사랑 학습여행

용인시 관내 군 장병들에게 용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용인이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고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용인시 평생학습센터와 공동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05월 까지 '軍장병 용인사랑 학습여행'을 실시하였다.



매주 토요일 마다 용인시 관내 4개 코스를 선정하여 문화유적 투어를 실시한 이 사업은 삼군사령부를 비롯하여 55사단 모범 장병 30명씩 선발하여 매월 4회씩 총 4차례에 걸쳐 총 16회 진행하였다.

차시별로 운영된 세부 운영내역을 보면, 1차시에는 김장환 문화원 사무국장의 안내로 양지향교, 세종옛돌박물관, 허씨 5문장 묘역, 미평리 약사여래불을 투어하

였고 2차시에는 정양화 향토문화연구소장의 안내로 정몽주 선생 묘소, 한국등잔박물관, 왕산리 고인돌, 남구만 묘소 등을 투어하였다. 3차시에는 이종구 용인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의 안내로 서리백자요지, 처인성, 상업사박물관, 우리랜드, 와우정사 등을 투어하였다. 마지막 4차시에는 조명숙 문화원 가이드의 안내로 호암미술관(회원)을 투어하고 오후에는 에버랜드에서 장병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용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차시	투어 일정	안내(강사)
1차시	양지향교, 세종옛돌박물관, 허씨 5문장 묘역 미평리 약사여래불	김장환 (문화원사무국장)
2차시	정몽주 묘소, 한국등잔박물관, 왕산리 고인돌 남구만 묘소	정양화 (향토문화연구소장)
3차시	서리백자요지, 처인성, 상업사박물관, 우리랜드 와우정사	이종구 (향토문화연구위원)
4차시	호암미술관(회원), 에버랜드(장병가족과 함께)	조명숙 (문화원가이드)

###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 운영

태종 14년(1414) 8월 21일을 기하여 고려시대의 행정구역 명칭이던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을 병합하고 용구의 ‘용’자와 처인의 ‘인’자를 합쳐 “용인(龍仁)”이라 칭하였는데 오는 2014년이면 용인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600주년을 맞게 된다. 이에 본 문화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창조적 문화유산을 기념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향구적인 문화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전 용인문화원장 이인영씨가 중심이 되어 2004년 9월 30일 용인600년 기념사업회를 발의하였고 2007년 7월 6일, 용인시의회 제121차 정례회의에서 박남숙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용인 600주년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공론화되었다. 2008년 2월 19일 용인문화원 2008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600주년 기념사업을 총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2월 27일에 열린 50차 정기총회에서 용인 600주년 기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정식 의결하였다. 이후 문화원에서 용인600년기념사업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에 추경예산을 요구하였고 5월 26일 용인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2천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이에 용인문화원은 2008년 12월 26일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토론회와 용인600년기념사업회 발족식을 가졌다. 1부 행사로 정양화 용인향토문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토론회에서 양정석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용인 지명 연혁에 대한 문헌 고찰'이라는 발제를 통해 논란이 되어온 용인 600주년의 원년이 1413년인가 1414년인가에 대하여 당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정책의 마무리 단계가 1414년이므로 여기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인영 전 용인문화원장(현 미래포럼 대표)은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용인 6백년 연혁비의 건립, 조형물 형상화 사업, 용인6백년 역사관 및 기념공원의 조성, 타임캡슐 제작 매립 등 다양한 사업 방향을 내놓았다. 이어 장두식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교수, 박숙현 용인신문 대표, 박



남숙 용인시의회 의원, 신승만 용인시의회 의원, 이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박상섭 용인시 문화관광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열린 토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부 행사로 진행된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 발기인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기문을 채택하였다.

##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 발기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것이 1392년, 그로부터 23년 뒤인 1414(태종 14년) 8월 21일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이던 용구와 처인 두 현을 통합하면서 “용구”의 “용”자와 “처인”의 “인”자를 합하여 ‘용인’으로 명명된 이래 2014년이면 6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숱한 세월의 흐름 속에 선조들의 삶이 이어졌고 그와 함께 역사도 쌓여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없이 해와 달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비록 한 지방의 역사이기는 하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전환점에 새삼 의미를 두는 것은 과거를 재조명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주지의 단순한 개념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와 애착을 갖게 마련인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용인은 앞으로의 삶을 영위해 가야할 터전으로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마다 다르게 급변하는 용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85만 전 시민이 먼저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 지향적인 어떠한 역사의 창조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용인 6백년 기념사업」은 애향심 고취와 함께 발전적인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는 도전과 도약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개인의 영광으로 고장을 빛내는 일은 한 사람의 영예로 그칠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부상은 모든 시민과 후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사입니다.

특히 용인의 역사 전환 시기에 즈음하여 지나간 자취를 재조명함과 아울러 새롭게 도래할 세기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역사를 준비하는 용인시민의 마땅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선조들이 땀과 눈물로 가꾸고 지켜온 이 땅을 꿈과 희망이 있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발전시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인 600주년 사업은 용인이 새롭게 거듭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온 시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묶는 시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발기인 일동은 용인의 미래비전을 밝힌다는 소명의식으로 희망찬 도약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는 큰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용인 6백년 기념사업회 발기인 일동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는 문화계에 이종민 용인문화원장, 이인영 용인미래포럼 공동대표, 김재열 경기도박물관장, 예술계에 박수자 용인예총회장, 마순관 백암도예연구소장, 용인시에서는 최승대 부시장, 용인시의회에서 심노진 의회 의장, 박남숙 의원, 학계 인사로 이병옥 용인대 무용학과 교수, 홍순석 강남대 인문대학장, 교육계에 유성희 전 태성고 교감(현 용인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정환 전 경기도용인교육장, 여성단체에 한은실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옥배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용인지회장, 언론계에 이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박숙현 용인신문 사장, 경제계에 이병성 용인상공회의소장, 김규식 농협 용인지부장, 이강수 원삼농협조합장, 원로 인사로 이양구 기흥구 노인회장, 지역 인사로 최완영 전 용인시의회 의원 등이다.



이어 2009년 11월 3일 용인문화원 회의실에서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분과위원회(위원장 홍순석), 6백년 사료 정립 분과위원회(위원장 정양화), 사적지 정비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분과위원회(위원장 강진갑), 기념관 및 조형물 건립 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호), 기념공원 조성 분과위원회(위원장 조길생)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이종민	용인문화원장	공동위원장
이인영	용인미래포럼 대표(전 문화원장)	
홍순석	강남대 인문대학장	기획·홍보분과위원회
이종재	용인시의회 의원	
박남숙	용인시의회 의원	
이병옥	용인대 무용학과 교수	
이오규	용인대 국악과 교수	
권미나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장	
박숙현	용인신문 사장	
정양화	용인향토문화연구소장	
김재열	경기도박물관장	
양정석	수원대 사학과 교수	
김태근	태성중 교사	
강진갑	한국외대 교수	사적지 정비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분과위원회
임영상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장두식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교수	
김동호	조각가	기념관 및 조형물 건립 분과위원회
유성희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진철문	조각가	
오성만	서양화가, 용인중 교사	기념공원 조성 분과위원회
조길생	포은문화재단추진위원장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한은실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법률자문
조성범	변호사	
김홍동	용인시 문화관광과과장	

이에 용인시는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 사업계획에 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강남대학교 발전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 제1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개최

청명한 하늘과 맑은 햇살이 눈부신 가을의 문턱에서 경기도 최대의 민속문화 축제인 경기민속예술제가 2009년 9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경기도의 유일한 민속예술 경연대회로 각 지역에 전승되어 오거나 새롭게 발굴된 전통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화되고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되면서 선조들의 삶과 늘 함께 해왔던 수많은 문화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문화 창달과 민속예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번 대회는 연천군과 지난해 대상을 차지하여 시범 팀으로 참여한 과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29개팀이 참가하였으며 농악을 비롯, 민속무용, 상례의식, 농요, 줄다리기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출품돼 열띤 경연을 벌였다.

첫 날에는 이천시의 '경기이천풍물'을 시작으로 전 대회 대상을 수상한 과천시의 '과천 나무꾼놀이' 시연, 남양주시의 '늘을 지경다지기에서 상량식까지' 등 15개 작품이 경연을 벌였다. 이튿날에는 시흥시의 '시흥 월미두레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화성시의 '왕재 호상놀이'에 이은 안성시의 '백봉 기생놀이'에 이르기까지 15개 작품이 선보였다.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새로운 민속놀이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는 기우제를 소재로 한 동두천시의 '동두내 옛소리 물까부리'에게 돌아갔다. 최근 고층자들의 구술을 통해 발굴, 복원작업에 나선 용인시의 '죽전 줄보맥이놀이'는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광명시의 '아방리 농요'와 양주시의 '양주들노래'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밖에 화성시와 시흥시가 공로상을, 의정부시를 비롯한 6개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 안성시의 '백봉 기생놀이'를 연출한 유청자씨가 지도상, 양주 들노래의 박정아씨가 연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31개 시·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이었다. 본부석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경기도 시군 순서규정에 따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이천, 구리, 양주, 안성, 포천, 오산, 하남, 의왕, 여주, 동두천, 양평, 과천, 가평, 연천의 순서로 부스를 배정하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동장 밖 주차장에 용인시 관내 음식점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 10개 부스를 운영하였다.

용인시 대표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죽전 줄보맥이>는 자연마을이 사라지고 아파트 숲으로 변한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우리문화를 되찾자는 억척같은 고집과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으로 한데 뭉친 주민들의 노력이 빚어낸 큰 성과라는 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죽전 줄보맥이 민속놀이는 죽전 뿐 아니라 성남시 분당 구미동과 구성 두레패가 참여했을 정도로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용인 최대 규모의 행사로 전해지고 있다. 죽전이 도시화되면서 20여 년 간 맥이 끊긴 죽전 줄보맥이 민속놀이는 최근 지역 주민과 직접 줄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던 마을 출신 원로들이 가칭 죽전전통문화보존회를 창립,

지난 6월 죽전줄다리기 복원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고증작업을 벌여왔다. 줄보 맥이는 길놀이, 지신밟기, 신랑각시 혼례, 보맥이, 뒷풀이 순서로 진행되는데, 용인 시에서 줄보맥이 전통을 그대로 재현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숫줄인 북부줄과

지 역	소속 및 직책	참가인원	시상내역
이천시	경기이천풍물	55	노력상
광명시	아방리 농요	70	우수상
안산시	둔배미 배치기소리	60	노력상
의왕시	집잡기놀이(나뭇꾼놀이)	55	노력상
과천시	과천 나무꾼 놀이(시범)	60	노력상
성남시	오리뜰농악	50	노력상
평택시	웃다리 평택농악	39	장려상
의정부시	버들개 농요	60	장려상
김포시	김포 지경다지 놀이	40	노력상
고양시	백석 도당 액 줄놀이	80	장려상
포천시	포천농악	49	노력상
구리시	갈매동 회다지	29	노력상
수원시	대유평 두레	50	노력상
여주군	이포 나루굿	51	노력상
남양주시	늘을 지경다지기에서 상량식까지	80	노력상
시흥시	시흥 월미두레 풍물놀이	39	공로상
파주시	파주고을 금산리 농사소리	51	장려상
부천시	석천농기고두마리	80	노력상
양평군	양평나물노래와 목도소리	50	노력상
광주시	광지원농악	52	장려상
용인시	죽전 줄보맥이 놀이	80	최우수상
오산시	외미농악	35	노력상
양주군	양주들노래	42	우수상/연기상
안양시	웃다리 날피농악	35	노력상
화성시	왕재 호상놀이	80	공로상
군포시	군포 둔대마을 논메는 소리	47	노력상
가평군	봉수리 봉화제 민속무용극	30	노력상
동두천시	동두내 옛소리 물까무리	74	대 상
하남시	목도싸움	48	노력상
안성시	백봉 기생놀이	39	장려상/소품상/지도상

암줄인 남부줄을 메는 각 20명과 신랑각시 2명, 농악대 각 15명씩 30명 등 80여명이 대회에 참여하였다. 죽전 줄보맥이는 신랑각시 혼례와 줄다리가 끝난 후 보를 막는데 이용한 점이 용인 각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줄다리와 다르다. 이번 대회의 죽전 줄보맥이는 정양화 용인향토문화연구소장이 연출하였다.



### 용인문화원 55년사 발간

용인문화원은 1954년 4월 7일 설립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이고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 탄생한 문화원으로, 용인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문화 창조와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최근 급속하게 도시화 되고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사회적 변화가 초래되면서 용인지역의 전통적 요소들이 크게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켜가고 연구하는 문화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전국문화원의 수범사례로 회자되었던 용인문화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용인문화원 55년사>를 간행하게 되었다.

<용인문화원 55년사>는 이인영 전 용인문화원장이 집필하였으며 제1절 개관 편에는 문화의 본질과 지역문화의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제2절에는 용인의 문화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제3절은 55년사의 본문 편으로 용인문화원의 기원과 역사를 서

술하였고 제4절에서는 제1대 조구행 원장부터 제14대 이종민 원장까지 역대 문화원장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다. 제5절에서는 용인문화원에서 발굴하거나 주관하고 있는 전통문화 행사를 소개하였으며 제6절에서는 문화원의 특색사업, 제7절에서는 문화원 주관 각종 학술대회, 제8절에서는 용인문화원 간행 향토사료집, 제9절에서는 회원단체, 제10절에는 용인문화원 기구를 소개하고 있다.

### 소식지 '월간 용인문화원' 발간

용인문화원의 각종 사업 및 정보, 문화가족 동정 등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월간 용인문화원'을 2008년 8월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알리고 각종 문화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용인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문화소식을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매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문화원 소속의 임원이나 문화위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하여 문화가족 상호간의 유대 및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소식지 인쇄를 위해 이종민 원장이 최대 A3 사이즈 출력이 가능한 500여만원 상당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기증하여 소식지를 사무국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다.



### 용인문화원-진천문화원 자매결연

예로부터 생겨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去龍仁)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용인과 진천이 유기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양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09년 11월 25일 용인시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본 문화원과 진천문화원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종민 용인



문화원장과 남명수 진천문화원장이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양 문화원의 우호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오용원 경기도지회장, 장현석 충북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생겨진천 사거용인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스토리텔링화 하여 공동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양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양 문화원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각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와 보급,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화원장과 남명수 진천문화원장이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양 문화원의 우호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오용원 경기도지회장, 장현석 충북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생겨진천 사거용인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스토리텔링화 하여 공동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양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양 문화원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각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와 보급,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전국문화유적답사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매월 전국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전국문화유적 답사는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답사하면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쌓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매월 전국 시군 단위의 지역을 선정하여 하루 일정으로 계획된 코스를 돌면서 김장환 사무국장과 정양화 향토문화연구소장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참가 희망자는 문화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2008년에는 충주(3월), 영월(4월), 철원(5월), 서산·태안(6월), 부여(7월), 월정사-강릉(8월), 합천(9월), 정선(10월), 강화도(11월), 예산(12월)을 답사하였으며



2009년에는 연천(1월), 전주(2월), 남원(3월), 함평 나비축제(4월), 상원사-강릉단오제(5월), 구리-남양주 왕릉(6월), 순천(8월), 경주(9월), 동두천 소요산(10월), 진안 마이산(11월), 용인(12월)을 답사하였다. 2010년에는 김천 직지사(1월)에 이어 2월에는 공주 무령왕능, 공산성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전국문화유적 답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스스로 지키고 보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향토애를 북돋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청소년들의 감성을 파괴하는 입시교육 중심의 과열경쟁과 공교육의 신뢰성 붕괴 현상을 극복하고, 새로 도입되는 주 5일 수업에 대비하는 대안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잃어버린 감성을 찾아 줌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청소년문화학교는 특히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탐구케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혀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지켜가는 실천적 의지를 다지게 하고 있다.

회차	일시	학 습 내 용	체험학습
1회차	7월4일(토) 실내학습	문화재 바로알기 첫걸음 문화재 기초지식, 접근방법, 용인 문화재 소개	탁본체험, 전통문양 셔츠 만들기
2회차	7월11일(토) 현장학습	용인의 문화재와 인물(1) 정몽주 선생 묘소, 왕산 고인돌, 한국등잔박물관	등잔과 초 만들기
3회차	7월18일(토) 현장학습	용인의 문화재와 인물(2) 용인의도요지, 처인성, 상업사박물관, 이한응 열사	송례문 만들기
4회차	7월25일(토) 현장학습	용인의 생태문화 생태체험 프로그램	나무목걸이 핸드폰고리 만들기
5회차	8월8일(토) 현장학습	경기도의 문화재 이해하기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여주)	오감도토리 마을 체험

### 충렬서원지(忠烈書院誌) 간행

충렬서원은 포은 정몽주 선생을 배향한 용인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산실이었다. 충렬서원에서 강학한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변하는 저명한 인사들임에도 자료들이 소실되어 전하지 않고 있어 본 문화원에서 2009년 400여년 만에 고문헌을 섭렵하여 복원하는 사업으로 <충렬서원지>를 발간하였다. <충렬서원지>는 양장본 600여 쪽 분량으로 충렬서원의 창건과 변천과정, 건축물의 배치와 특징, 향사의례, 서원운영 등 충렬서원 전반의 기록을 모았다. 배향인물과 역대 원장을 비롯한 인물록과 각종 소장 문헌 및 관련 자료를 모은 문헌록을 각각 한 편으로 다뤘



다. 이번에 간행한 충렬서원지는 몇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립교육기관이 향교라면, 사립교육기관의 대명사는 서원이다. 이번 간행물은 상현동(옛 지명 심곡동)에 위치한 심곡서원과 더불어 구한말 서원철폐에서도 제외됐을 만큼 높았던 위상답게, 유림 전반의 역사와 학맥 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참고서로서도 큰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충렬서원지와 중수기, 도암유적, 왕림유고 등 각종 원전을 부록으로 실었다.

<충렬서원지>는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향토문화연구소(조장 정양화)에서 편찬하였으며 기획 및 제작은 홍순석 강남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충렬서원은 선조 9년(1576) 죽전에 창건되어 포은공을 비롯한 충신과 열사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가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고 향사가 중단돼 오던 중 선조 38년(1605) 포은 선생의 묘소 아래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해군 1년(1609)에 '충렬'이란 사액을 받아 3번째로 사액서원이 됐다. 그 후 유림들의 뜻을 모아 설곡 정보, 죽창 이시직, 추담 오달제 등이 추가 배향되었다.

## 실버합창단 창단

합창음악을 통해 지역 노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선용으로 즐겁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이끌고자 2009년 9월 28일 용인문화원

실버 합창단을 창단하였다. 합창단 활동 경험이 있거나 합창음악에 관심이 있는 60세 이상의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실버합창단은 주 2회 이상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갖게 되며 본 문화원 및 지역의 각종 행사와 위문공연, 합창경연대회, 정기연주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들의 합창단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2009년 8월 지휘자 공개 채용을 통해 송원석씨가 지휘를 맡게 되었다. 지휘자 송원석씨는 1965년생으로 경원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였으며 오스트리아 그라츠국립음대에서 성악 및 오페라를 전공하고 이태리 로마 아레나국제아카데미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했다. 경북대, 경원대, 강남대, 동덕여대 등의 음악과 강사를 거쳐 광진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 코리아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단장을 역임했다. 반주자는 본 문화원합창단에서 오랫동안 반주를 해 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민주 양이 겸임을 하기로 하였다.

### 구 문화원 건물 매입

다음은 구 문화원 건물 매입이다. 문화원의 행정타운 이전과 함께 처인구 김량장동 133-61에 위치해 있는 기존의 문화원 시설들은 용인향토문화연구소 및 문화학교 강의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지와 건물 3층(144m<sup>2</sup>)은 용인문화원 소유이나 건물 1,2층(288m<sup>2</sup>)과 화장실(13.19m<sup>2</sup>)은 1969년 용인시에서 건축한 것으로 37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고 부식되어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7년 6월 1일 1,2층 건물과 화장실 301.19m<sup>2</sup>를 문화원에서 매입하게 되었다. 매입 금액은 일천사십이만이천구백사십원(10,422,940원)이다.

## 할미성대동굿 재조명 심포지엄

용인의 대표적인 향토민속 행사로 17년 동안 이어온 할미성대동굿 재조명 심포지엄을 2008년 10월 20일 용인시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용인문화원과 할미성대동굿보존회가 주최하고 강남대 경기문화연구소(소장 홍순석) 주관으로 열린 할미성대동굿 재조명 심포지엄은 제1주제로 용인 할미성 대동굿의 무속사적 위상을 조명하고, 제2주제로 의식절차와 음악적 특징으로 본 용인 할미성 대동굿의 성격을 규명하며, 제3주제로 할미성 대동굿의 향토사적 위상을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1주제 발표는 이수자(중앙대 겸임교수, 문화재전문위원), 토론은 김종대(중앙대 교수), 2주제 발표는 장휘주(용인대), 토론은 윤영해(서울대 강사), 3주제는 홍순석(강남대 교수, 경기문화연구소장), 토론에 김성환(경기문화

재단 실학박물관) 등이 각각 맡았다. 제1주제를 발표한 이수자 교수는 할미성 대동굿은 용인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할미성 설화는 오누이 성쌍기 설화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연구차원에서도 주목된다고 하였고 제2주제를 발표한 장휘주 교수는 할미성 대동굿은 경기도당굿과는 거리가 멀고 강신무들이 주관하는 한강 이북의 굿음악이 전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제3주제를 발표한 홍순석 교수는 마을의 풍장패가 풍물을 먼저 친 후 다른 마을에서 함께 동참하기 위해 오는 풍물을 맞아들이는 화합의 굿판인 만큼 문화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며 할미성대동굿의 뿌리인 마가실 서낭굿의 본질적 요소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술 행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첫째는 용인에서 민간신앙에 뿌리를 둔 무속을 학술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조명하는 첫 기획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소재의 발견이란 측면이다. 일부 종교계의 신앙으로서의 굿이라는 집착으로 인해 전통문화와 민속으로서의 굿이

수난과 시련을 겪어 왔지만 할미성 대동굴은 거리 구성에서의 독창성과 할미산성과 마고선인 설화와의 연관성 등 지역적 소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민속문화의 관점에서 전승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인 것이다.

## 용인시향토사료관 운영

용인시향토사료관은 용인의 역사복원을 위한 고고학, 문헌사학, 민속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미발굴 향토사료를 조사, 연구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교육·연구자료로 제공하여 향토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1994년 10월 31일 개관하였다. 소장하고 있는 전시목록은 총 367점으로서 주된 소장자료는 용인지역과 그 주변에서 출토된 고고미술, 문헌, 생활민속자료, 도자기류 등이다. 그동안 용인시에서 관리해 오던 용인시향토사료관의 관리 주체가 2008년 1월 1일부터 용인문화원으로 변경되어 상주 해설사를 배치하고 문화원 향토문화유적순례 코스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물을 관람케 하고 사료관의 유물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일체의 전등 및 형광등을 할로겐램프나 자외선 차단막 코팅 형광등으로 교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시실에 비치되어 있는 용인시 변천사 등 관련 정보를 재정비하고 향토사료관 리플렛을 제작하여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2009년 11월 13일 기흥구 동백동에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을 개관하면서 전시 및 보관 유물의 일부를 이전하였고, 추후 향토사료관 전시유물을 모두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면서 2년여 동안 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해 오던 향토사료관 운영권을 용인시에 환원하였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2002년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동백지구에서 발굴된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구석기 문화층을 이전, 복원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된 전시관으로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 (아름다운 용인의 산하) 간행

1997년 용인지역 향토산의 아름다움을 산악인들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용인지역 최초의 산악지침서로 호평을 받아왔던 <용인의 산수이야기>의 저자 이제학씨가 12년 만에 개정판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용인의 산하>를 2009년 본 문화원에서 발

간했다. <아름다운 용인의 산하>는 제1장 기품이 있는 <용인의 산>, 제2장 늘 보고 싶은 <용인팔경>, 제3장 백두대간의 뿌리 <한남정맥>, 제4장 여울 따라 계곡 따라 <용인의 하천>, 제5장 용인시 경계밖 기 <향토순례>, 그리고 시산제 지내는 법이 <부록>으로 수록됐다. 급속한 개발로 변화무쌍한 용인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제학씨는 또 다시 용인의 산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용인의 '올레'가 숨어있다는 평가를 받아 전문 산악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잖은 호응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저자 이제학씨는 발간사를 통해 아름답고 사랑하는 나의 삶을 무작정 발품 팔아 모아 준비한 아주 소박하고 소탈한 작은 '아름다운 용인의 산하'라고 밝히고 좋아서 쓴 이 한권의 책이 용인을 알고 알려는 분들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즐거움의 전부라고 밝혔다. 세상 풍습이 변하고 세인의 무관심 속에 자칫 잊혀 질 수도 있는 선인의 숨결을 찾고 역사의 흔적을 더듬는 이제학 선생의 노력이 있었기에 용인의 산하는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이름을 유지하며 우리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 만화 <처인성의 위대한 전투> 간행

2009년 12월, 용인문화원은 경기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처인성'을 성역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박숙현 원작의 교육용 역사만화 『처인성의 위대한 전투』를 발간하여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 보급했다. 처인성은 고려 고종 18년(1231년)부터 시작된 40년간의 몽골전쟁 중 유일하게 몽골군의 적장을 사살해 전투를 승리



로 이끌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만화 『처인성의 위대한 전투』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강화도로 천도하는 등 고려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했으며, 당시 몽고의 침입에 항거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승장 김윤후와 처인부곡민들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엮고 있다. 이 책은 고려시대는 물론 처인성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역사서로도 충분한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다. 만화 『처인성의 위대한 전투』의 원작은 용인신문 발행인 박숙현의 희곡 『처인성』이며, 각색과 그림은 용인 출생으로 현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인 윤기현 화백과 만화가 정규화씨가 맡았다. 화성축성 200주년 기념 방송극 '효'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한 원작자 박숙현은 잊혀져가는 처인성의 위대한 전투를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화 콘텐츠로 각색하였으며 원작 희곡 『처인성』은 연극과 뮤지컬로도 수차례 무대에 올려져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은바 있다. 처인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청소년 교육용 자료 가치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관심 증진은 물론 더 많은 문화콘텐츠가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계속사업

### 포은문화제 확대 개편

먼저 포은문화제로, 고려시대의 마지막 충신이며 목은 이색, 야은 길재와 함께 고려 3은(三隱)의 한 사람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개최되는 지역문화축제이다. 2009년까지 일곱 번째 행사가 열린 용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인 포은문화제는 포은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 선현들의 지고한 정신문화를 계승하며 축제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7년도 제6회 포은문화제는 5월 18일(금)과 19일(토)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18일 첫날에는 묘소에서 고유제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상여놀이대회(수지새마을공원), 청소년국악경연대회(수지여성회관 큰어울마당)가 각각 열리고 야간에는 극단 개벽의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한원식 연출, 용인문예회관)가 공연되었다. 본 행사일인 19일에는 천장행렬 재현이 1차로 수지 새마을공원에서 수지구청으로 이어지는 약 1km 구간에서 진행되고 2차는 장소를 모현면 능원리로 옮겨 선죽교에서 묘역 행사장까지 1km 구간에서 이어졌다. 이어 전국한시백일장이 回憶 丹心歌라는 시제로 진행되었고 청소년백일장, 포은선생 추모제례, 포은상 시상식, 상산제, 시상 및 민속공연(사물, 합창, 민요명창) 등이 진행되었다.

2008년 포은문화제는 용인을 상징하는 지역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특별한 해이다.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사 내용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행사 일정도 3일로 확대하여 종합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이종민 원장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오던 묘역 입구의 담장 부지를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에서 매입하고 그것을 행사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사장 규모가 세 배 이상 확장되었다. 문화제의 오랜 숙원이었고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해결하려다 무산됐던 이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단순히 포은문화제 운영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제를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넓어진 행사 공간의 이점을 살려 중심에 무대공연 시설을 배치하고 구간별로 공예체험, 전통문화체험, 환경 및 놀이체험, 각종 전시관, 용인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부스 등 축제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3일 동안 상설 운영하였다. 또한 전국한시백일장,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서예회화대회, 청소년 백일장 등 각종 경연대회를 운영하였으며, 둘째날 오전에는 국가 중요무형 문화재 제 56호 종묘제례 기능보유자 이형렬 선생의 집례로 추모제례가 진행되었는데, 제례



과정뿐만 아니라 용인대 국악과 이오규 교수 중심의 헌가 연주와 4일무의 제례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볼거리였다. 무대공연에 있어서도 용인시 관내 대학 동아리 공연을 비롯하여 마당극 신판 춘향전, 대감놀이, 국악한마당, 오케스트라, 가곡합창제, 유진박 퓨전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물이 3일 동안 연이어 무대에 올려졌다. 그리고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먹거리이다. 6회 포은문화제에서는 포은 선생의 묘역이 소재하고 있는 모현면의 각종 단체(모현면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 모현의좋은사람들 등)에서 다양한 메뉴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운영의 계기가 되었다.

다음해인 2009년도에 열린 제7회 포은문화제는 전년도 운영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향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UCC 동영상·사진 콘테스트를 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이는 지역 대학과의 문화교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사회적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젊은 세대를 축제에 끌어들이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2009년도 제7회 포은문화제 일정표이다.

시 간	5월 15일(금)	5월 16일(토)	5월 17일(일)
10:00-11:00	고유제	천장행렬(풍덕천동-묘역)	전국한시백일장(행사장)
11:00-12:00	대학 동아리 공연	추모제례(묘소)	충렬서원 향사(충렬서원)
12:00-13:00		기념식	퓨전국악 공연(희앤비)
13:00-14:00	용인외고 오케스트라	퓨전국악- Hey Ya 김덕수 사물놀이패	백암농악(백암농악보존회) 경기민요(경기도립민요단)
14:00-15:00	청소년국악경연대회	경기소리 한마당 (서울시문화재단 박상옥 출연)	전국한시백일장 시상식
15:00-16:00		세계민속무용 공연	예원춤무용단
16:00-17:00		S.H 금관앙상블	추억의 7080 콘서트
17:00-18:00	선소리산타령(예림국악단) (인간문화재 황용주 출연)	가곡 합창제	- 옥순80, 라이너스, 건아들, 조갑경 로커스트, 블랙테트라, 홍서범
무대 외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CC 동영상·사진 콘테스트 5월 15일(토)-17일(일) &lt;중고등부/대학·일반부&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사생대회 (10:00-17:00 행사장 전역)</li> <li>■ 국제학술대회 (15:00-16:30 등잔박물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백일장 (10:00-17:00 행사장 전역)</li> <li>■ 전통문화 특강 (15:00-16:30 등잔박물관)</li> </ul>
상설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관 운영(전통공예체험, 전통문화체험, 환경 및 놀이체험)</li> <li>■ 전시관 운영(포은 선생 학문과 사상 조명전, 문화재 사진전, 규방공예전 등)</li> <li>■ 농특산품 전시판매(친환경 유기농산물, 용인 농특산품, 시설채소 등)</li> </ul>		



오늘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보하는 테마축제를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지역축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도부터 지역의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는 포은문화제를 개최해 오면서 용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 열린 제6회 포은문화제는 현대적 개념의 축제요소들을 다양하게 접목하고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3만여 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으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집중적인 투자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본 행사를 문화 상품화 한다면 용인을 상징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전통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처인성문화제(용구문화예술제)

다음은 용구문화예술제이다. 1973년 <문화의 날>이 처음 제정된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형식적인 문화 행사를 갖는 것이 고작이었던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축제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80년 신군부의 5공 정권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풍(國風)'이란 관제 축제를 시작한 것에서 비롯된다. 5공 정권은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민심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행정기관에 관제 축제를 권장하였으며, 오늘날 전국 시군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제 지역축제가 이 시기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축제들이다. 우리 용인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처음으로 축제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1986년에 시작된 <용구문화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역축제가 시발된 경위야 어떻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홍보, 관광 상품화라는 다기능적 효용가치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자치단체별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1회 용구문화제는 1986년 6월 14일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용인군민의 화합을 위해 각종 전통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8년부터 용인예총과 공동 주관을 하면서 <용구문화제>라는 명칭을 <용구문화예술제>로 변경하고 그간 지역성을 살리는 뚜렷한 주제 없이 치러져 오던 것에서 탈피, 21세기를 앞두고 용인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마케팅 전략을 가미한다는 의미에서 행사의 테마를 '처인성 승첩'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처인성 승첩의 테마를 살리기 위한 행사로 <처인승첩 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 <김윤후 승장 고유제> <처인성가요제> <처인승첩 가장행렬> 등을 벌였다. 이후 2001년, 제16회 용구문화예술제는 지난 15년 동안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어 온 행사를 팔당 상수원인 경안천 둔치를 주행사장으로 정하였으며 일주일의 행사기간 동안 매일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술공연이 무대에 올려졌다. 제16회 용구문화예술제는 과거의 관제 동원식 행사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기 있는 문화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2년 제17회 용구문화예술제 부터는 행사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축소되어 극히 일부만 진행되는 파행적 축제로 전략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1998년 제13회 행사부터 용인문화원과 용인예총이 공동 주관하고 용인시가 후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2002년 용인예총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기존의 공동운영의 기조가 깨지게 된 것이다. 이후 용인예총은 처인예술제(이후 용인예술제로



명칭 변경)를 신설하면서 용구문화예술제에 관여하지 않게 되자 문화원만의 단독 사업이 되어 제23회에 이르기 까지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부대행사로 전락하여 처인승첩길놀이와 한복맵시대회만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용구문화예술제가 용인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 의미가 축소되고 행사 내용이 왜소해지자 2008년 마침내 문화원 이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9월 23일 용인문화원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결 의 문 〉

1. 용구문화예술제는 23년에 걸친 역사성과 전통성, 나아가 권위를 가진 용인의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해 온 바, 작금의 급작스런 행사 축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2. 최근의 급속한 인구 유입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용구문화예술제로 반드시 그 위상을 회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3. 용구문화예술제는 용인문화원 뿐만 아니라 용인시민을 비롯한 제 문화예술 주체가 함께 해야 하는 대표적인 종합축제이므로 이를 제대로 복원해야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가칭)용구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를 용인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4. 최근의 지역 문화예술 사업들이 지극히 관주도의 인기 영합적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 바, 시는 향후 전통문화예술 및 풀뿌리 문화예술인들이 조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균형 잡힌 문화행정을 제안한다.

2008년 9월 23일

용인문화원 이사회

문화원 이사회의 문제제기로 지역사회 여론이 불거지자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용구문화예술제의 예산 확보와 활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9년도 예산액이 2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비로소 처인승첩을 테마로 하는 지역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 24년 역사의 지역문화축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이 축제의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의미와 특색이 없는 대동제 형식의 기존 행사를 테마가 있는 역사문화축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에서 16회 부터 테마로 설정하고 있는 처인승첩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용구문화예술제>의 명칭을 <처인성문화제>로 변경하고 한몽 국제교류를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4만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화합 한마당을 조성키로 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한·중·몽 국제학술행사를 비롯하여 처인성 관련 연극 등 무대공연, 몽골 마상무예, 씨름 등 한몽 무예시범, 그리고 몽고의 캐시미르, 가죽제품 등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것 등이었다.

- \* 학술행사: 용인문화원-단국대 몽골연구소 주관 <처인승첩 한몽학술대회>
  - \* 무대행사: 처인성 가요제, 처인성 연극제, 한복맵시대회 등 기존 프로그램 외 다양한 전통음악 등 민속예술 공연
  - \* 한몽친선 행사: 처인승첩 퍼레이드(몽골장수 및 병사 직접 참여), 몽골 민속공연, 몽골 마상무예 시범, 몽골씨름 소개, 한국 민속공연, 태권도 및 택견시범, 십팔반무예 등
  - \* 특산품 전시 및 판매: 몽골상품 전시 및 판매(캐시미르, 가죽제품, 보드카, 토속 상품), 용인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특산품 판매
  - \* 체험행사: 전통문화 및 공예체험
  - \* 경기도 씨름대회: 경기도내 초중고 및 일반 씨름단체를 초청하여 경기도 씨름 대회를 개최함.
  - \* 먹거리: 몽골음식점이 참여하는 가운데 용인의 농특산물 먹거리 장터 조성
- 특히 학술행사의 기본 방향은 ① 처인대첩을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역사적 의미를

구명하고 ②고려성곽의 유형과 구조를 분석하고 타 지역의 복원 실례를 비교하여 처인성 성역화 및 정비 방안을 강구하며 ③용인시민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처인성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④용인-몽골 간의 화해와 문화 및 경제교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9년 여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신종 인플루엔자의 감염자 및 사망자가 국내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 및 행사는 불허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24회 처인성 문화제>도 아쉽게 취소되었다. 때문에 준비해 오던 모든 사업계획을 2010년으로 미루게 되었다.

## 문화학교 운영

이어서 문화학교 운영이다. 문화학교는 본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취미생활 및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문화적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등 문화적 욕구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운영 방향은 문화원 사업 목적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설정, 타 문화 센터와 차별화된 전통 문화 강좌, 상업적인 운영을 배제한 교육 강화, 지역 주민의 문화적 특성 고려, 개설 강좌의 전문화와 차별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용인문화원 문화학교는 1994년 7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3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받고 2009년 현재 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총 600여 명이 수료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월 2만원이며 3개월 단위로 납부할 경우 1만원이 할인된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의 개설 최소 수강 인원은 7인이다.

프로그램명	강사명	수강장소	교육시간
동양화(초급)	정태균	문화예술원 3층	금 13:00-15:00
동양화(중급)	정태균	문화예술원 3층	금 15:00-17:00
서예교실(초급)	장정숙	문화예술원 3층	목 13:00-15:00
서예교실(중급)	장정숙	문화예술원 3층	목 10:00-12:00
규방공예(오전)	변인자	문화예술원 3층	화 10:00-12:00
규방공예(오후)	변인자	문화예술원 3층	화 13:00-15:00
한국무용	심규순	문화예술원 1층	화 10:30-12:30
경기민요	왕안숙	문화예술원 1층	화 14:00-16:00
판소리교실	주서운	문화예술원 1층	목 10:00-12:00
남도민요교실	주서운	문화예술원 1층	목 12:00-12:00
서양화(유화)교실		향토문화연구소 3층	화 10:00-12:00
수채화교실	정덕문	향토문화연구소 3층	금 15:00-17:00
우리춤체조	서가운레	문화예술원 1층	목 14:00-16:00
선소리산타령	곽누림	향토문화연구소 3층	수 10:00-12:00
사군자교실	(개설 준비중)	문화예술원 3층	금 10:00-12:00
한지공예교실	(개설 준비중)	문화예술원 3층	수 10:00-12:00
스포츠댄스		문화예술원 1층	수 10:00-12:00

또한 각 프로그램별로 수강생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통해 친목 및 예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제1회 회원 전시회를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문화예술원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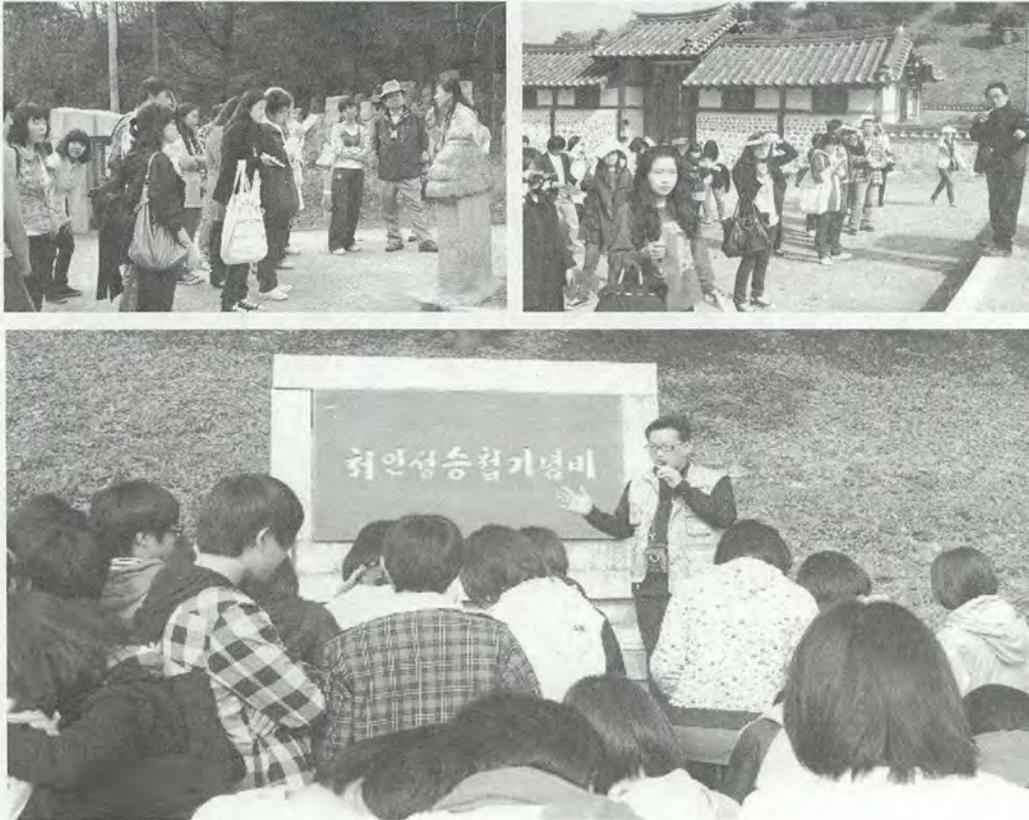
2008년에는 <제2회 우리문화한마당>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회 및 전시회를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문화예술원 전시실과 공연장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공연 프로그램은 풍물교실, 무용교실, 경기민요교실, 판소리(남도민요)교실, 우리춤체조교실 등이고 전시 프로그램은 시우회, 유화교실, 수채화교실, 동양화교실, 서예교실, 규방공예 등이다. 2009년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발표회 및 전시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

## 용인문화유적투어

용인시민에게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전통이 살아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시민으로서의 향토애와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향토문화유적 순례는 용인문화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의 하나이다.

특히 수지구 및 기흥구 지역에 새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산자수려한 용인의 자연과 환경친화적인 도·농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오랫동안 난개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본 사업은 1999년 전국 최초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문화 바로알기 사업으로 2009년 현재 12년째를 맞고 있는 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년 6,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2007년도 향토유적순례 사업 예산 총액은 8,000천만원이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총 134회(차량 156대)를 운영하였다. 월 평균 시행 횟수는 20회(차량 22대)이고 참가인원은 총 6,000명으로 월 평균 860명이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참가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 매년 3월에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고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3개월 만인 6월이면 사업 운영횟수(약 140회)가 마감되어 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에는 사업예산을 1억2천5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사업 횟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원 배정을 폐지하고 참가비를 1인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하루 2팀 이내로 하고, 토요일은 초·중·등 학생들만 가능하게 하였다.

또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3개 코스를 5개 코스로 늘려 참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2009년 하반기 부터는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의 3개 구청에서 격주 토요일 마다 출발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향토문화유적순례 차량에는 문화원 가이드가 동승하여 안내 및 해설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되어 온 5개 지역 코스별 순례지는 1코스(북부지역)에 정몽주선생 묘소, 등잔박물관, 충렬서원, 왕산리 고인돌, 남구만선생 묘소, 호암미술관, 용인향토사료관이고 2코스(남부지역)는 용인향토사료관, 서리백자요지, 처인성, 상업사박물관, 세종옛돌박물관, 양지향교이다.

3코스(서부지역)는 조광조선생 묘소, 심곡서원, 용인향교, 민영환선생 묘소, 경기도박물관, 사은정이고 4코스(중부지역)는 채제공선생 묘소, 용인향토사료관, 양지향교, 세종옛돌박물관, 허균 등 허씨5문장 묘소이다. 그리고 5코스(동부지역)는 용인향토사료관, 와우정사, 우리랜드, 미곡처리장, 세종옛돌박물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등이다.

이와 같이 순례 코스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2년여 동안 운영해 온 결과 일부 인기 있는 코스에는 지나치게 신청이 몰리는가 하면 일부 코스는 신청 건수가 지극히 저조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관 및 동백동에 개관한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을 새롭게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0년부터는 4개 코스로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다.

코스	유적지	코스	유적지
1코스 북부지역	정몽주선생 묘소 등잔박물관(or 충렬서원) 왕산리 고인돌 남구만선생 묘소 호암미술관(월요일 휴관) 용인향토사료관	3코스 서부지역	심곡서원(조광조선생 묘소) 용인향교 민영환선생 묘소 경기도박물관 용인문화유적전시관 단국대 석주선 기념 박물관
2코스 남부지역	용인향토사료관 서리백자요지 처인성 상업사박물관 세종옛돌박물관 양지향교	4코스 동부지역	와우정사 농촌테마파크(우리랜드) 세종옛돌박물관 허균 및 허씨5문장 묘소 (또는 미평리 약사여래)

### 용인문화원 합창단 운영

2001년 창단된 용인문화원 합창단은 4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정승 지휘자가 8년여 동안 이끌어 왔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쌓아온 기량과 실력을 선보이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 줌으로써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창인구 저변확대와 지역의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합창음악은 개인이 아무리 잘 해도 다수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우리 사회도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서로 돕고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키고 있다.

용인문화원합창단은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2006년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에



서 장려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장려상과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금상, 제12회 대통령배 전국합창대회에서 최우수상(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국제합창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전국 최고의 합창단으로 우뚝 성장하였다. 2009년 12월로 계약이 종료된 김정승 지휘자의 후임으로 2010년 1월부터 송원석 지휘자가 합창단을 이끌게 되었다. 반주는 피아니스트 유민주 양이 맡고 있다.

## 서예회호대회

용인지역에서 서예인으로 활동하거나 서예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서예회호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실력을 발휘케 함으로써 잠재적 능력이 있는 참신한 서예인을 발굴, 육성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용인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서예회호대회로 많은 서예인과 서예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예술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갖게 하고 있으며, 매년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의 서예인구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5회 서예회호대회는 2007년 10월 21일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3층 체육관에서 열렸으며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문화예술원 2층 전시실에서 1주일간 입상작 전시회를 가졌다. 제6회 대회는 2008년 5월 23일 포은문화제의 일환으로 모현면 능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제7회 대회는 2009년도 하반기에 만연된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공모전으로 치러졌으며 입상작 전시회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용인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 읍면지 발간 사업

용인시 관내 읍면동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읍면지 발간 사업은 1998년 <구성면지>를 시작으로 기흥읍, 수지읍, 양지면, 모현면, 포곡면, 원삼면, 백암면, 이동면, 남사면 등의 읍면지 발간으로 향토문화자료를 체계화하였다. 이 사업은 용인시의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청소년 및 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동면지>를 발간하였고 2008년 <남사면지>, 2009년에는 마지막 읍면지 발간 사업으로 <처인구 4개동지(구 용인읍)>를 발간하였다. <처인구 4개동지(구 용인읍)>는 용인의 정치행정 및 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문화예술인 연찬회

용인문화원의 이사 및 문화위원 등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연찬회(워크샵)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문화원 발전을 꾀하고자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회를 통해 문화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여 문화적 사고와 안목을 넓힘으로써 개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2007년도 문화예술인 연찬회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북도 풍기관광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김장환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 활성화 전략'이라는 이선철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용인문화원 주관 향토문화축제(포은문화제, 용구





문화제)의 활성화 방안'이란 김종대 중앙대 민속학과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양정석 수원대 교수, 조길생 포은문화제추진위원장, 정양화 용인향토문화연구소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함께 참석한 문화가족들과의 종합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 오전에는 같은 자리에서 용인문화원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연찬회와 함께 안동 하회마을, 한지 제작공정 체험장,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마을, 금성대군 우리안치소, 순흥 고분벽화 등을 답사하였다.

2008년도 연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상반기에는 제6회 포은문화제 평가회를 겸하여 문화원 임원과 문화위원, 그리고 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19일(목)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개최하였다. '포은문화제 평가 및 개선 방안 토론회'라는 주제로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김장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연찬회에서 이종민 원장과 조길생 포은문화제추진위원장의 사업보고에 이어 각 팀별 운영내용 자체 평가 보고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평가회를 마치고 매창공원, 우반동, 내소사, 채석강 등 유서 깊은 부안지역의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는 용인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12월 15일 희성웨딩문화원에서 개최하였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 문화 현안을 논의하고 바

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송년 연찬회에서는 본 문화원 임원을 비롯하여 용인향토문화연구소, 용인향토문화연구회, 용인향토문화지킴이 시민모임,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문화원합창단, 풍물단, 용인의제21실천협의회, 용인문학회, 민예총, 할미성대동국보존회, 반딧불이문화학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예원춤놀무용단, 용인현대조각회, 백암도예연구소, 용인문화원 가이드, 용인문화관광해설사회, 용인문화유산해설사협회, 용인예총과 산하의 미술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사진작가협회, 우리문화연구회, 흰바위농악단, 용인국악관현악단, 성산풍물패, 경기시조합창단, 용인민요합창단, 녹야국악관현악단, 용인풍물단, 용흥농악단, 용인가무악단, 한얼무용단, 정지윤무용단, 한마루예술단, 예림예술단, 송주현무용단, 그린청소년무용단, 용인청소년무용단, 체케티밤비니무용단, 가람무용단, 정미라발레단, 리틀SY 무용단, 용인여성문학회, 극단유리, 극단용인, 극단개벽 등 용인시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대표들을 초청하였다.



2009년도에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길도에서 용인문화원 임원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진갑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는 '지역축제 현황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에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장두식 연구교수는



‘용인시 대표 축제를 위하여-용구문화예술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에는 김장호 용구문화예술제추진위원장, 조길생 포은문화제추진위원장, 마순관 이사, 정양화 향토문화연구소장이 참여하였다. 워크숍을 마치고 보길도에 위치한 우암 송시열 선생 유적지 및 고산 윤선도의 부용동 정원 등을 답사하였으며 올라오는 길에 전남 강진군에 들러 다산초당을 둘러보았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인 연찬회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문화원과 지역문화계의 당면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또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기능을 해 오고 있다.

### 우수 민속놀이 보존 사업-삼배울 동해놀이

현대화의 물결 속에 우리의 고유한 민속놀이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삼배울 동해놀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하고 마을의 대동단결과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덕성리 동해놀이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지신밟기(우물고사) - 풍물단과 마을 사람들이 동네 우물을 찾아가 비나리와 함께 고사를 올리고 마을을 돌며 액을 물리치고 소망을 이루게 해달라 기원함.



- \* 달집태우기 - 보름달이 뜨면 달집을 태우고 보름달을 향해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함.
- \* 합궁과 줄다리기 - 1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암수 용의 합궁이 이루어지고 용줄을 이용해 마을의 남녀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성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믿음에서 여성이 승리하게 됨.
- \*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과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흥겹게 뒷풀이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함.

잊혀져 가는 민속놀이를 전승 보전하려는 덕성리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매년 1,000여명의 관객이 찾아오는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동면민의 축제를 넘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각지의 시민이 참여하는 용인의 대표적인 정월 대보름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 전국 농악명인대회

전통예술 분야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농악은 단체로 연희되는 놀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량을 가늠할 기회가 없었는데 본 농악명인대회를 통해 전체 속에 숨겨진 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발굴함으로써 명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나아가 농악을



널리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악보존협회와 본 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는 농악명인대회는 한국 민속촌 공연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가부문은 명인부(예능 보유자를 제외, 19세 이상 대학생·일반인)와 학생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쇠놀이, 설장고, 북놀이, 채상소고, 고깔소고 등 5개 개인놀이 경연이 이루어진다.

2007년 제9회 농악명인대회는 9월 15일-16일, 2008년 제10회 대회는 5월 10일-11일, 2009년 제11회 대회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각각 이틀 동안 열렸다. 부대행사로 명인초청공연, 상모돌리기, 장단배우기, 널뛰기 시연, 줄타기 공연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

### 김장환(金長煥) 사무국장



김장환(金長煥)은 1963년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서 출생하였다. 태성고등학교와 관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용인대 교육대학원에서 국악교육을 전공했으며,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행정·정책·기획을 전공하였다. 용인에서 환희음악학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1997년 한국예총 용인지부 초대 사무국장을 거쳐 2003년 용인의제21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2007년 12월 공채를 통해 용인문화

원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김장환은 다방면에서 탤런트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으며, 재능이 뛰어나 문화예술 기획은 물론 국악, 클래식, 역사문화, 생태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풍부한 지식과 발군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다. 그는 1994년부터 '휘모리'라고 하는 사물놀이패를 결성하여 문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우리 음악을 보전,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6년 뜻있는 인사들과 함께 국악협회 창립 준비를 시작하여 1997년 한국국악협회 용인지부를 설립하였다. 그는 국악협회의 사무국장직을 맡아 국악공연과 국악

인구 저변확대 등 국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고, 동시에 미술협회, 문인협회와 함께 용인예총의 창립을 추진하여 1997년 12월, 용인예총 출범과 함께 초대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다. 예총 초창기에는 예산문제에서부터 각양각색의 예술인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여 임기 4년 동안 용인예술이 무궁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 출범 당시 1천만원이었던 예산을 4억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고, 3개 지부였던 회원단체를 7개 지부로 늘렸으며, 특히 어머니합창단, 크로바합창단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3개의 공연단체를 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22개로 늘린 것은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이다. 또 시립예술단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였고, 청소년종합예술제, 용구문화예술제의 확대 개편,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각종 무대공연, 국제민속음악페스티벌, 러시아 문화교류 등 수많은 기획 사업을 운영하였다.

특히 용인의제21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며 2007년에는 원삼면의 친환경농업을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부각시켜 용인을 환경친화적인 생명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제1회 용인청동오리축제>를 기획하여 3일 동안 2만여 명의 관객이 찾았고, 언론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기량을 발휘해 온 김장환 국장은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발탁되면서 문화원의 운영지표에 따라 비전이 있는 창조적인 문화원, 문화의 공유로 시민에게 사랑 받는 문화원,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정신문화를 이끌며 폭 넓게 교류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실제 샘솟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6년 동안 운영되어 온 포은문화제를 역사성, 지역성, 축제성을 모두 살리는 혁신적인 전통문화축제로 기획하여 관객 3만 여 명이 몰리는 용인의 대표 축제로 위상을 높였고, 4백년 이상 된 지역 문증을 대상으로 하는 용인세거문중협의회를 결성하여 지역 역사문화 발굴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또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유래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효 문화의 실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문화교류를 전제로 진천문화원과의 자매결연 협정 등을 이끌어 낸 것 등은 의외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평소 용인문화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문

화원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싱크 맵을 제시하고 있다. 용인의 문화적 이미지의 형상화, 고장의 유서 가꾸기, 정신문화자료의 발굴과 편찬, 용인시립박물관 건립 및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시민대상의 사회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역사성과 향토성 짙은 문화축제의 개발, 기타 전국문화유적 순례 등 역사 및 문화발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상된 아이디어를 문화행정에 접목시켜 문화원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김장환은 문화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 증대하고 절실한 시점의 용인에 있어서 제 자리를 찾은 적재적소의 맞춤형 포스트 격으로 주목되고 있다고 하겠다. '옛 것을 익히면 새로운 것을 안다(溫故而知新)'는 말이 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문화행정의 요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기능이 융합된 디지로그적 사고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오늘의 용인은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 주인자 총무과장



1961년생, 흥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04년 수원여자대학 식품조리과를 졸업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 문화교양학과에 재학 중이다. 잠시 유남해중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용인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1997년 용인문화원 사무국 간사로 임용된 이후 총무과장으로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인자 문화원사무국 과장은 송재권 원장으로부터 현 이종민 원장 대까지 5대의 원장을 거치는 동안 문화원 사무국에 종사하여 용인문화원 여직원으로서 13년이라는 최장기 근무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체득한 업무 내용과 용인문화원 운영에 따른 갖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 넓은 문화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 공로패,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한바 있다.

## 10. 용인문화원 신갈분원장 김문향



김문향은 1939년 용인시 기흥구 서천리에서 출생하였다. 1951년 신갈국민학교를 졸업하였고, 1954년 수원중학교를 거쳐 1957년 수원상고를 졸업하였다. 그 후 용인 서천리에 거주하면서 1980년 '서천리농악단'을 창설, 용인관내에서 풍물패가 거의 자취를 감추어 가던 시점에서 '서천리 농악'을 복원하여 용인 풍물의 불씨를 당겼고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데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서천리 농악단이 창설된 지 3년만인 1982년 경기도에서 제 1회 민속예술축제가 실시되었다. 이때 평소 기량을 닦고 있던 서천리 농악단이 용인의 명예를 걸고 출연하여 영예의 은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때 김문향이 상쇠를 맡았다.

1990년에는 용인시 농악단장을 맡았고, 1999년 제 12회 민속경연대회에는 그가 발굴한 두레싸움으로 출연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기량은 경기도내에서도 인정을 받아 2001년에는 수원농악단의 창단을 주도하였고, 2002년에는 평택에서 실시된 전국 옷다리농악 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장원을 하는 등 대단한 기량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김문향은 용인에 뿌리를 두고서도 수원, 화성 등지를 무대로 활약하는 가운데 2007년에는 수원대유형두레 보존회 단장을 맡고 있는가 하면 용인두레싸움보존회장, 신갈 용흥농악단장, 국악협회 경기도지회 농악분과위원장 겸 상임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용인문화원에서는 송재권 원장시절부터 이사로 있으면서 용인문화 발전에 기여하다가 이현규 문화원장이 신병으로 중





도 사임하게 되면서 이사직을 마친 후 경기문화가족 협의회 상임부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송재권 원장 재임시였던 1998년 2월의 정기총회에서 '신갈분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통과시키고 김문향을 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발의하여 가결됨으로서 4년여 간 신갈분원을 맡게 되었다.

김문향은 용인문화원 신갈분원장에 임명된 후 '민속놀이 두레싸움 보존회', '용인농악회', '사단법인 한국농악보존회 용인시지회'를 회원단체로 영입하고 1998년 2월 19일 개원식을 가졌다. 그러나 후에 문화원 이사직을 떠나면서 분원 역시 기능이 정지되었다. 분원사무국장은 기건우였고, 간사는 김현주였다. 이로써 김문향은 최초이자 마지막 용인문화원 신갈분원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현재는 롯데월드 전통혼례를 주관하면서 경기도 박물관에서 세시풍속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1998년 용인시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11월 9일 신갈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 11. 용인문화원 역대 부원장

### 김학노



경기도 양평군 양정읍 창대리에서 출생하였고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92번지에 거주하였다. 1957년 포항수산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63년 용인군 농촌지도소 지도사로 근무하였고, 1982년 용인 흥농종묘상을 경영하였다. 조갑순 간호원이 문화원에 근무할 때인 1960년대 중반 김학노가 문화원의 사무원으로 잠시 근무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후에 용인로타리클럽 회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제 3대 김정근 원장 재임당시 부원장으로 활약하였다.

### 강명윤(姜明允)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2번지에서 거주하였다. 1945년 생으로 용인초등학교를 마친 후 안성중학교와 안성농업고등학교를 마치고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ROTC 장교 출신으로 제대 후 용인청년회의소 회장, 용인신용협동조합 감사, 용인초등학교 체육진흥회장, 용인군체육회 전무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이일영 문화원장 당시 이사를 거쳐 김정근 원장 재임시인 1973년 3월 1일 용인문화원 부원장에 추대되었고 김정근 원장의 퇴임과 동시에 부원장 직을 떠난 후 박용익 원장 때에는 이사로서 문화원 업무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1995년경 타계하였다.

### 한봉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6번지에 거주하였다. 1942년 생으로 면천중학교와 합덕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 1965년부터 1978년까지 용인의원에 근무하였다. 용인청



년회의소 특우회원을 역임했으며 1981년 용인문화원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자유민주연합 용인지구당 부위원장, CI코리아 대표, 충우회(忠友會)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3년 2월 14일 제 13대 홍재구 원장 취임과 동시에 부원장으로 선임되어 4년간 용인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였다.

### 목영희

1937년생. 수원농고 졸. 군에 입대하여 병기 기지사령부에서 만기 제대 한 후 공무원에 입문하여 용인군청 산업과를 시작으로 양주군청, 이천군청을 거쳐 원삼면 산업계장과 대한잠사회 경기도지회에 근무하였다. 1994년 4월 26일부터 2001년 3월 26일까지 용인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1978년 용인로타리클럽 회장을 역임하였고 용인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였다.

### 박수자



1956년생.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체신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선천적으로 문학에 재질이 있어서 문학활동에 치중하다가 한우리독서운동본부 연구위원, 한마음독서연구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1995년 시 부문으로 <순수문학>에 등단,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용인문화원 <글이랑 동인회> 창설멤버로서 사실상 용인의 여성문학계를 주도하였다. 1977년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장을 거쳐 현재 예총 용인지부장을 맡고 있다. 2001년 3월 26일 용인문화원 부원장으로 선임되었고 2003년 2월 까지 재직하였다. 명지대학교 문학과를 졸업하였고 저서로는 '갈대시'가 있고 '글이랑'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 심재선

1948년생. 공군만기 제대 후 용인에서 중앙파출소 방법위원장, 용인경찰서 청소

년 선도위원회 부위원장, 용인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중앙동자문위원 세정민관 협의회 위원, 용인 로타리클럽 이사 등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유선방송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용인문화원 이사로 발탁된 후 용인문화원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 김장호



1949년생. 태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1968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지 못하는 지역 청소년들의 중등교육 과정 교육을 위한 용천재건중학교 지도교사를 맡아 10여 년간 교육 사업을 통해 무상 봉사하기도 하였다. 한때 정치계에 입문하여 새정치국민회의 부위원장, 용인시의회 의원 등을 역임하였고 자유민주연합 용인지구당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다가 1999년 용인문화원 이사로 발탁되어 현재 부원장의 직책을 맡아 문화학교 교장으로서 용인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활동을 통해 국무총리표창장을 비롯하여 35회에 달하는 각종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감사패를 수상하였고, 현재 용천초등학교 총 동문회장과 범성 ENG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 이시우



1941년생. 상지고등학교를 졸업.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627번지에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한성헬트의 대표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시우 부원장은 2001년 2월 이인영 원장 당시 문화원 이사로 취임한 이래 홍재구 원장 때까지 문화원 이사로서 문화원 발전에 기여해 오던 중 2007년 이종민 원장 취임 후 부원장으로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내 동우 아파트의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을 정도로 친화력이 있다. 매사에 신중하고 너그러운 그의 인품으로 주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 손대영(孫大英)



1953년 서울출생, 덕성여고 졸업, 송담대학교 평생교육원 CEO과정을 수료 하였다. 용인불교합창단 단장, 용인라이온스클럽 네스회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 용인문화원 합창단을 창단할 때 주역을 맡았고 문화원합창단 회장을 맡아 4년간 기여하였다. 이 공으로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한편 왕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2005~2006년 국제라이온스 354-B지

구 Spouse로 활약하였다. 2007년 용인문화원 여성부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예능 방면에도 재질이 있어 수채화를 전공하였고, 2009년 대한민국 미르인 예술대전에서 입·특선하는 한편, 수원에서 실시된 경기수채화작가 초대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용인문화원 수채화교실 회원으로서 2007~8년 문화원 회원전에 참여하였다.



손대영 작 수채화, 가을이 오는 소리  
(미르인예술대전 특선작)

## 김영인(金寧仁)

1941년생.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 367-2번지에서 출생, 이동면장을 역임하였고, 송전초등학교 동문회장, 이동면 서리에 있는 헬멧 제조공장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던 (주)홍진크라운 전무를 지냈다. 송재권 문화원장 당시 3년여 간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중에서 제 1회 용인아가씨 선발대회에 삼성 SDI 남궁석 사장을 심사위원으로 추대한 바 있고 남궁석 사장은 이 대회에 카메라와 라디오 등을 참가자 전원에게 부상으로 지급하였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면서도 묵묵히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역대 부원장을 거쳐서 원장을 역임한 사람은 제외되었음.